



12

198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3. 12호

(루계 434)



◆◆◆◆◆◆◆◆◆◆ 차 례 ◆◆◆◆◆◆◆◆◆◆

담배에 대한 담시.....	4
조선의 영광.....	5
김정일 동지는 찬란한 향도의 별.....	6
자주시대의 위대한 향도의 별.....	7
백두의 흰눈을 어깨우에 받으시며.....	7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8
심장의 메아리.....	9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친위전사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빛나는 형상.....	19
한훅의 미시가루 (외2편).....	24
끝없는 사랑을 안으시고.....	26
어머님의 고향길.....	27
부령의 갈림길.....	28
백두산에서.....	30
종소리.....	30
밤은 깊어도 (외1편).....	31

그 마음들에 받들려	32
노래에 대한 추억	33
단조장의 메아리	41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명대사의 심오한 탐구.....	49
구룡연아 전해다오.....	52
락원사람들	53
고구려화공	54
잊지 못할 강선의 압연기야.....	69
해빛넘치는 령길우에서.....	70
남조선피뢰도당의 《전통문화개발계승》책동의 반동적본질	74
창조의 저 불빛속에	80

담배에 대한 답시

김경기

방축우에 높이 쌓은 벼랑가리 흔들며
떠들썩 병사들의 웃음소리 터졌네
권하는 군대담배 달게 피우며
아바이는 화선시절 이야기하네
멀리 가까이
벼이삭들도 일렁이며 달려오네

그렇지! 수령님께선 바로 저쯤-
전호속의 탄약상자에 허물없이 앉으셨지.

정찰조의 주먹밥도 맛보아주시며
수리개들의 무훈담을 들어주셨지!

헌데 이 일을 어찌면 좋으랴
그만에야 귀에 꽂은 콩초를 보시고
그이께선 벌써 다 알아내셨다네
전사들의 주머니가 비어있음을!

그이께선 담배갑을 꺼내시면서
우리더러 이렇게 물어보셨네
어느때 담배맛이 제일로 좋던가고...

저마다 제나름으로 대답 올렸지
광산출신 전사는 발파소리 썸하며
쉬일참에 한대 종이 태우는 맛이라고,

분대장은 적진을 콩마당질한 뒤
차렷담배 호뭇이 피워무는 맛이라고
그리구 또 농민전사 나는 말일세
이른새벽 갈아엎은 밭머리에 앉아
마라초를 두툼히 말아 피우는 맛이라고,

아버이수령님은 흥겨우신듯
호랑히 웃으셨네
-웁소 웁은말이요 다들...
하지만 나는 전사들과 마주앉아
이렇게 피울 때가 제일 좋거든!

산에서 싸울 때
나뉘피우는 담배맛이 더 좋았다 하시며
한가치도 남김없이 나눠주셨지.

내겐 특별히 두대를 더 주시며
손수 성냥까지 그어주셨지!

글쎄 어떤 분이시라구
불을 붙이겠나
헌데 그이께서 드신 성냥불이
거의거의 타들어가질 않겠나
그러니
할수없이 불을 붙일수밖에...

그때 우린 몰랐거든
무척 담배를 좋아하는 전사들이
어렵지 않게 모두 받아 피울수 있도록
그이께선 즐기지도 않으시는 담배를
달게 피우셨다는것을...

이런분이시지! 우리 수령님은
화선식당의 국맛까지 맞추어주시는
콩나물 기르는 법까지 가르쳐주시는!...

담배는 다 탔네만
그분께서 붙여주신 그불은
옮겨볼기 시작했지
불타는 심장으로...
수리개들은 떠나갔지...
그리고
원썬들의 심장을 통채로 들춰왔지!...

알겠나
수령님께서 지퍼주신 한점의 불꽃은
온 전선에-
원썬격멸의 불바다로 펼쳐졌거든!
수령님은 이렇게 한가치 성냥불로
전사들의 심장에-
폭풍우로도 끌수 없는 불을 지퍼주셨거든!

...아바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었다.
담배연기 한껏 빨아 가슴깊이 머금고
전사들도 후더워오는 눈굽 습벽이었다
숫구치는 눈물을 담배연기로 감추면서...

조선의 영광

정서춘

1

동해의 물을 기울여
글을 쓴다 하여도
그 사랑
다 노래하지 못하고

하늘의 추억만 별을 따다
구슬을 꿰여드린다 하여도
그 은혜
갚지 못하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우리의 기쁨
그이는 우리의 행복

이 강산의 아침 해빛도
그이 열으시는
당중앙창가에서
비쳐오고

이 나라의 웃음소리도
그이 안팎에 어리신
다정한 그 미소에서
시작되거니

언 땅을 헤치고 돌아나는 새싹도
요람속에 잠든 아기의 꿈도
이 땅의 모든것은
그이의 품속에서 태어나라

2

그이 탄생하시여
첫걸음 디디신
그 프락은
눈보라 우는 백두의 창창한 밀림

등잔불 반짝이는
귀틀집 그 강가에서
그이 익히신 노래는
천지의 얼음장을 깨치던 혁명의 포성
그날에 울부짖던
만리광야의 사나운 바람소리

꺼질줄 모르던 신념의 불빛
한가슴에 안으시고

그이는 걸으시여라
그날의 장군님 모습으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전사들의 어깨를 부축여주시며

그이 가시는 길우에
생신한 바람이 일고
봄날의 해빛 따사로와
들에도 마음에도 꽃이 피여라

외진 산촌의 작은 시내가
징검돌 하나에도 가슴 아프시여
아이들이 즐겨 건널수 있도록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시며

아, 그이 가시는 길우에
조국이 믿고간 디딤돌처럼
만년대계의 언제와 탑들이 솟아나고
공산주의 붉은 노을을 펼치며
조선은 세기의 창공에 일떠서거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조선의 영광
그이는 조선의 미래

3

진리를 밝히는 그이의 사상
히말라야산보다 더 높고
인간을 위한 그이의 사랑
태평양 물다 더 깊다고

수억만 인민들 노래하고
총을 쏜 투사들도 노래하네
나일강 푸른 기슭에서도
눈덮인 북극의 밀림속에서도

사슬에 얹매였던 가슴들에
인간의 기쁨이 넘치고
억압에 그늘졌던 대륙과 섬들에

삶의 해빛이 뜨겁게 비치도록
 몸부림치는 5대양의 파도를
 한손에 휘어잡으시고
 자주시대 그 하나의 기슭으로
 세계를 이끌어가시는 그이

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인류의 향도성
 그이는 영원한 인류의 청춘

김정일동지는 찬란한 향도의 별

메다 샤를

김정일 동지

그이는 불멸의 **김일성** 주의빛발아래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시어 자라신 향도

그이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시고
 원쑤와 무자비하게 싸우시나니
 조선과 전세계에 **김일성** 주의의 승리를 이룩
 하리라
 찬란한 향도의 별을 모신 주체의 조국 조선의
 영광 끝없어라

김정일 동지

그이는 위대한 **김일성** 주의자
 그이는 위대한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을 체득
 하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완성하실
 찬란한 향도의 별

그이는
 어린시절부터 빛나는 예지와 특출한 재능을
 지니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김일성 주의는 그이의 움직일수 없는 신념

김일성 주의의 력사적인 정식화와 정력적인 사
 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 주의보물고를 발전풍부화시키시어
 인류사상발전에 기여하시였나니
 그이의 공적 위대하여라

그이는 창조와 건설의 위대한 영재
 황철의 전면적자동화로부터
 화려한 평양산원과 창광거리 인민대학습당과
 병상관, 문수거리...

그이의 업적 다는 헤아릴수 없어라

그이의 천재성과 대담성을 력사여 영원히 전
 하라

그이의 탁월한 령도력

김일성 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빛
 나거니

그이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화에로 이끄시
 는 인민의 장엄한 진군이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높은 장성속도

주체적인 문학과 예술의 찬란한 개화

조선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세기적인 변혁과 빛나는 성과들

인류를 경탄시키여라

김정일 동지

그이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참다운 후계자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

그이를 끝없이 신뢰하고

영원히 받들어모시거니

그이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영명하신 향
 도자

그이께서만이 제국주의자들의 숨통 짓눌러버리
 고

음흉한 파괴와 예측, 책동 짓부셔버리시리니

세계는 아름다운 주체의 봄을 맞으리

오, 찬란한 향도의 별 **김정일** 동지

그이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그이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며

그이께 영광의 노래 드리네

(필자는 상부볼마 재정부 직업양성소 도서관장)

자주시대의 위대한 향도의 별

싸와도고 무싸

동방의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위대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맑은 정기를 안으시고
자주시대를 밝히시는
찬란한 태양이 솟았네
바로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라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뛰어난 천재
고매한 덕성과 고상한 품성 지니시고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통찰력으로
위대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분
바로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
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꽃피우시고
그의 위대한 진리를 온 세상에 펼쳐가시는분

바로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라

먼 대양과 대륙을 넘어
온 누리에 눈부신 향도의 별빛 뿌려주시고
혁명의 자양분을 키우시여
세계혁명을 이끌어 나아가시는분
바로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여라

세상만민의 위대한 향도의 별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의 사랑과 은덕에 목메여
우리의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 담아
그이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네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네
그이의 위대성을 후세에 길이 전하리

(필자는 상부볼따 **김일성** 동지의 로작연구소조
책임자)

백두의 흰눈을 어깨우에 받으시며

김재윤

눈은 내리여
길을 메우고
눈은 내리여
밀림을 덮어가는데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시여
눈내리는 밀림을 걸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쏟아지는 눈발속으로 걸으시는

그이를 우러러
수원들은 목메여 아뢰이건만
내리는 눈 정히 받으시며
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말씀
-이 눈을 맞고 싶습니다.
이렇게...
백두산 눈을 맞으며
천리라도 걷고 싶습니다.

아,
내리는 첫눈

어깨에 맞으실 때도
걸음 멈추시며
멀리 북녘을 바라보시였고
당중앙의 창가에

소리없이 내리는 흰눈을 보시고도
그날의 백두산밀영을 생각하시며
밤을 지새여가시던 마음
여기
눈내리는 백두산밀림속에서
오늘은 30년대의
그 모든 역사를 다 안으시는가
송이송이 그 억만의 송이마다에 담긴
그날의 수령님의 생각을 가슴에 새기시는가

적후로 떠나가는 너전사
눈내리는 사령부의
창문가를 우러르며
밤이 지새이도록 다지고 다지던
그 뜨거움을 가슴에 안으시는가

가고가시여도 끝없는 눈
하늘의 수없는 별빛으로도
못다 담아 전할
가장 성스럽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과 투쟁의
영원한 노래를 담아시고 내리던
백두산의 눈
끝없는 사색을 이으시는 자욱자욱...
멀리 눈덮인 백두산을 바라보시며
그 억만의 눈발속으로
또 걷고 걸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땅우에 온갖꽃
웃으며 피어나는 한여름에도
이 땅우에 행복의 노래
울리여 메아리치는 이날에도
백두의 흰눈을 어깨에 받으시며
걸고걸으시는 그 자욱자욱에서
오늘의 주체조국은 솟아빛나거니

내리여 내리여 끝없는
백두의 그 눈발속으로
걸고걸으시는 숭엄한 모습
아, 사색을 이으시는 그 길우에
찬란한 미래는 펼쳐지고
축복의 꽃보라인양
눈은 내리고 또 내리고...

가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리광선

불타는 가슴을 헤쳐라
조국은 우리의것이다
청춘의 푸른꿈 나래퍼고
향도성 따라서 한길로 가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자 청춘, 청춘을 빛내자

백두의 그 냇을 지녔다
영웅의 붉은피 끓는다
충성의 세대를 이어가며

청춘의 자욱을 이 땅에 남기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자 청춘, 청춘을 빛내자

희망의 언덕을 넘어서
영광찬 미래로 나간다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피끓는 청춘들 가리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자 청춘, 청춘을 빛내자

심장의 메아리

권정웅

《벌써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가.》

탁상일력을 벌컥벌컥 번져나가던 박운도는 손을 딱 멈추고 혼자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어 그는 전화통을 성급히 잡아 당기더니 수화기를 들었다. 키는 좀 작은편인데다가 몸이 나서 동작이 매우 굼뜰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몸 동작도 말투도 대단히 민첩하였다. 잠간사이에 그는 두세군데의 당비서들을 전화로 불러서 이미 포치한 사업들을 거듭 확인하는것이였다.

담배를 맛있게 빨고 후 내뿔었다. 온갖 시름이 단꺼번에 풀려나가듯이 푸른 연기가 연하게 퍼져나가면서 가슴이 헉헉하게 열리였다.

박운도는 지금 문화예술부문을 담당한 당일군으로서 한주일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어제 문건을 올리고 그 비준을 기다리고있는중이였다.

전화종이 울렸다.

《네 ! 박운도입니다.》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섰다.

《접수요? 인민학교 학생이 찾아왔다! 4학년 정남수, 음 그런걸 난 또, 하하... 아버지는 정철옥, 3년전에... 예, 알만합니다. 만나보겠다고 한다. 그렇게 하시오.》

긴장했던 그는 도리를 저으며 맥없이 웃고나서 복도에 나섰다.

《오! 남수 왔구나.》

이편을 알아본 학생은 모자를 벗고 꾸벅 절을 하더니 《아저씨.》 하고 한아름에 안길듯이 달려오고있다.

박운도는 손목을 잡고 방안에 들어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매일 직장에 나가다가, 갓 인민학교에 들어간 누이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이러루한것들을 여라문가지 단꺼번에 쏟아붓는 바람에 드세게 생긴 까꾸머리에 눈이 반들거리고 손에 잉크매닥질을 한 아이가 어리둥절해졌다. 대답도 또 그러루하게 나오자 박운도 자신도 웃음이 났던지 별로 웃을 일이 아닌데도 꺾꺾 웃어가며 잔등도 쓸어주고 손도 만져보는것이였다.

《그래 왜 왔니?》

하고 용건을 물었다.

《오는 일요일에 학부형회의가 있는데 선생님도 꼭 아버지들을 다 데려오라고했어요.》

《오! 그래? 일요일에...》

그는 반사적으로 벽에 걸린 월력을 쳐다보다가 약간 난처한 기색을 보이였지만 《가야지, 꼭 가겠다.》 하고 확정적으로 대답하는것이였다. 아이의 얼굴에는 금시 안도의 웃음이 깃들었다.

《무슨 일이 있단던?》

《그럼 그린것을 보이면서 회의한대요.》

《그럼 그린것?》

《우리 반 아이들 다 그렸어요. 도화시간에 뭐든지 제 맘대로 그리라고 했어요.》

《넌 뭘 그렸니?》

《아파트 짓는것 그렸어요.》

《아파트, 하하 거 잘 생각했구나. 그래 몇점 맞았지?》

《몰라요. 아버지들이 다 와봐야 안대요. 비밀도 아닌데...》

박운도는 이밖에도 오래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그동안 몇명의 일군들이 문을 열었지만 《귀한 손님이요.》 하기도 하고 《중대사를 토의하고있소.》 하는 식으로 통을 해가면서 시간을 내었다.

이윽해서 남수는 복도에 나선 박운도에게 인사를 하고 총계끝으로 사라졌다.

박운도는 아이의 뒤모습을 오래 지켜보면서 가슴이 찌르르 울리는것을 감각하였다. 여기를 찾아올 때쯤하면 저 어린것이 얼마나 육친을 그리워했겠는가 하는 애절한 감정이 살아올랐다. 박운도는 작가 정철옥이 사망한 뒤에 그의 가정사를 돌보게되면서 남수학생과 굳은 언약을 한적이 있었다. 아무때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버지들을 부르면 서슴없이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였던것이다.

자기 방으로 돌아들어온 박운도는 일력장에다가 《일요일, 남수 학교 오전 10시》 하고 적어넣었다. 그리고나서도 한가닥 미라한것은 이제 문건이 비준되면 과연 그때 시간을 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문기척소리가 났다.

《네!》

키가 후리후리하고 목이 기다란 일군이 들어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르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곧 들어오랍니다.》

《알았습니다.》

박운도는 옷매무시를 바로잡고나서 수첩을 들고 방을 나섰다.

틀림없이 문건에 대한 말씀이 제실것이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한주일전에 중요한 과업을 받았었다. 1970년대를 우리 나라 문화예술발전에서 전례없는 대전성기로 만들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상을 실현해야 하였다. 70년대를 맞는 첫단계에서 출발도 좋았고 그후 2~3년어간에 비약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미 거둔 성과도 대단하다. 이제 자만하지 않고 한번 더 되게 내밀면 될것이였다. 목표를 대담하게 세우고 통이 크게 일을 벌린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것은 명백하였다.

박운도는 정열적으로 달라붙어 대책안을 만들어 올리였다. 그가운데는 또한 당창건 30돐을 앞두고 창작과 예술활동에서 공로가 있는 대상들을 골라서 표창도 하여 사기를 부쩍 높이도록 하기 위한 문제도 들어 있었다.

문제가 신중한데다가 문건을 급작스레 만들다 보니 미상불 부족점이 있을수도 있었다 그래서 거듭 따져보았지만 중시 이렇다할 부족점을 잡아 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박운도가 방문을 가볍게 밀고 들어섰을 때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벌써 이미 보시던 일을 한켠에 밀어놓으시고 앞상 한가운데쯤 나서시였을때였다. 언제나 그러하시지만 이번에도 또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손을 굳게 잡아주신 다음 패기에 넘치는 손짓으로 앞으로 나갔으라고 자리를 권하시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자 박운도는 벌써 어려움을 다 잊고 속심을 거침없이 털어놓을수있는 다정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였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빠진것은 없는가 하는것입니다.》

《관계자들과 여러번 협의회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까?》

서류에서 얼핏 시선을 제시는것과 동시에 그의 눈길은 불안한 기색이 스쳐지나가는 박운도의 얼굴을 거쳐 출입문쪽으로 옮겨지는것이였다.

중년나이의 한 당일군이 문가에 들어섰다.

《찾으셨습니까?》

《밤시간에 볼 영화가 준비되었습니까?》

《네! 대기하고있습니다. 그러구 오늘저녁에 렬사릉에 가시려던 계획을 그대로 준비해 일없겠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중년의 당일군이 절도있는 동작으로 돌아나가자 그이께서는 하시던 말씀을 다시 계속하시였다.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우선 이 과제들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문건을 한장한장 넘기시며 검토해나가신다. 문건을 넘기실 때마다 활달하게 쪽쪽 표식을 해나가시고 또 어떤 때에는 잠간 손을 멈추시고 박운도를 쳐다보기도 하신다. 이때 그이의 영채도는 시선은 이편의 속심을 환히 꿰뚫어보시면서 《자신있습니까?》 하고 묻기라도 하시는것 같았다. 그럴적마다 박운도는 구태여 대답을 올리지 않아도 될 대목에서까지도 《해낼수 있습니다.》 하고 결의를 표명하였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문건을 번지는 소리만이 방안의 정적을 가볍게 다져놓군한다.

이윽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창가로 천천히 다가가시였다.

《박동무, 표창대상자는 정확히 선정되었습니까?》

알릴듯말듯 가볍게 활자 구르는 소리가 나는것과 동시에 연한 하늘색창문보가 잔주름으로 변하면서 바깥불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다. 그렇게되자 젊음이 한껏 넘치는 얼굴이 환히 드러났다. 산들바람이 이마우에 드리운 몇오리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어놓는다.

《표창이란 참으로 신중한 사업입니다. 한사람을 표창해서 열백을 고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못된 한건의 표창이 술한 사람들의 손뻘을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것입니다.》

어느덧 자리에서 일어나 그이의 가르치심을 기다리고있던 박운도는 어째서인지 이때 확신있는 대답을 올릴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바로 그 문제때문에 적어도 세번이상 대상확인을 거쳤다는 점이었다.

《이 점에서 빈구석은 없는가 하는것입니다.》

그이께서 몸을 돌리시자 활짝 웃음을 담으신 환한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주저하고있는 박운도의 뺨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재삼 확인은 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며 박운도앞으로 걸어나오신 그이께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표정을 지으시면서 《동무에게 시간이 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는것이였다.

《같이 거리에 나가 바람이나 쏘입시다. 만수대극장건설장에 들렀다가 대성산에 올라가봅시다.》

《알았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책상에 놓였던 그 문건을 한켠에 밀어놓으시고 문계로 나서시였다.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팬쥔습니다.》
《그럼 갑시다.》

×

차는 밤거리를 미끄러져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고 밤거리를 달려보기는 박운도에게 있어서 난생 처음이었다. 그것으로 하여 그는 지금 끝없는 영예와 행복감에 잠겨있었다. 밝은 가로등마저도 희미한 불빛밖에 던지지 못하는 좌석이건만 박운도의 얼굴이 붉어졌다는 것을 쉬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밤거리에 나와보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줄곧 차창밖만 내다보고계시는 것 같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옆에 앉은 박운도의 감정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헤아리시며 룡기가 섞인 말씀을 슬쩍 건네시었다.

《쥔습니다. 대단히 상쾌합니다.》

박운도는 고르롭지 못한 호흡을 애써 조절해가면서 계속하였다.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장엄한 수도에 살고 있다는 궁지가 새삼스럽게 안겨옵니다.》

《그렇습니까.》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리었다.

《신동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완전한 의견일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칸에서 모든 시름을 잊고 사색하는 것도 좋고 또 문건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상에 마주앉았을 때보다 더 능률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시인이 된 기분으로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밤중에...》

이때 차는 변화한 네거리 교차점을 가로질러 건설장이 저쯤 바라보이는 구배길을 뚝아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입니다.》

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박운도쪽으로 몸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시었다.

《밤보다 아침이 언제나 현명하다는 격언을 믿으려고 하는데 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은 밤대로 많은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색을 집중할 수 있고 온갖 자자부레한 것들, 사말사적인 것들을 죄다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통이 커지고 대담해질 수 있는 것도 밤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동무의 경우엔...》

《전 미처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밤이 좀더 길었으면 하는 경우를 종종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래여 낡은 격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약 한시간반 동안 지체하시고 그길로 대성산으로 향하시었다.

모란봉고개를 잠시 동안에 넘고 룡흥교네거리에 접어들 무렵 그이께서는 박운도의 무릎을 흔들며 물으시는 것이었다.

《작가 정철옥동무네 가족이 어떻게 됐다고 했던가요?》

《네! 함흥에 있다가 작년에 벌써 평천구역에 올라왔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큰 것이 사내아인데 11살이고 그말에 계집애는 8살입니다. 학교에 넣은 뒤에 뉘번 찾아가보았는데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동무넌 전쟁때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중대에 있었습니다. 전후에 그 동문 창작을 하게 되고 저는...》 이렇게까지 대화가 번져져나가자 박운도는 곧 문건과 어떤 런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넘겨짚게 되었다.

하지만 박운도에게 있어서 정철옥이 문제라면 어느 모로 보나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었다.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한 당일군으로서 자기 관하의 작가인 정철옥에 대해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직접 도맡아 처리했던 것이다. 정철옥으로 말하면 그닥 큰 위치에 있는 작가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전후에 와서 특히는 최근년간에 와서 유망한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었다. 하던 그가 창작하던 과정에 불의의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벌써 해수로 3년이 되어온다. 년말 어느날 새벽에 급한 소식을 받고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병세가 기울어 박운도무릎에서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다.

그후 당의 배려로 가족을 평양에 올려오게 되었으며 그것을 위해 박운도는 이사짐을 직접 나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가기까지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철옥의 문제라면 어느 하나 유감이 없도록 처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미련을 남기었다면 정철옥이 사망하였을 바로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북부지구현 지지도의 먼길에 계시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 보고를 드리었다는 점이다. 그이께서는 작가가 펜을 천체 창작실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왜 보고도 제때에 하지 않았는가고 몹시 나무라신 적이 계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합장교를 건느시고 동물원앞을 지나 산기슭을 돌아나가신 때 정철옥에 대한 한가닥 추억을 더듬고 계시었다. 이미 그이께서는 작품을 통해서 그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었지만 특히 인상깊게 기억하고 계시게 된 것은

몇해전 여름 우산장에서 집중창작을 벌인 그때부터이다. 어느 한 작품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창작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창성에서 저녁편에 떠나시여 새벽 3시가 넘어 우산장에 도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운전사에게 경적을 울리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자고 하시였다. 늦도록 글을 쓰다가 피곤하게 잠든 창작가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시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몇명의 지도일군들에게만 교시를 전달하시고 그자리에서 돌아서시였다. 얼마간 내려오시다가 13각을 올려다보시였을 때 2층 가운데층에 불이 커진 방이 하나 있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것이 아닌가 하고 올라가 보시였는데 거기에는 함흥에서 올라온 작가 정철옥이 작품을 구상하느라고 방안을 빙빙 돌고있었다. 불이 뵈히 커진 13각 2층 5호실, 그것을 생각하시면 일찍 머리가 벗어진 경충한 정철옥이 련상되군하시였다.

어느덧 차는 렬사릉 초입에 멎었다.

이곳 일군들이 영접을 나와 보고를 올리였다. 공사는 이미 다 끝나고 얼마되지 않는 주변정리만 하면 될것이였다. 벌써 여러차례 현지지도가 계시였던것만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익숙한 로정을 따라 산봉우리를 향해 오르시였다.

맨꼭대기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허리에 손을 짚으시고 룡선마루를 거쳐 아득히 펼쳐진 수도의 야경을 굽어보시였다. 곤청색으로 물든 초가를 밤하늘에는 또글또글 여문 못별들이 한벌 깔리였다.

그만 못지않게 거리의 야경도 찬란하였다. 하늘에도 은하수, 땅에도 또한 은하수 그것이 한데 어울려서 아득한 공간으로 끝없이 비껴갔다. 어데선가 곡식들이 이어가는 온갖 향기들이 뒤섞여 진정 가을냄새라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는 그런 싱그러운것이 부는듯마는듯한 바람결을 타고 거슬러 올라왔다.

비탈을 오르시는동안 이마에 땀발이 서고 가슴이 뿔뿔 달아오르시여 단추를 두세개 터놓으시였다. 자연이 내놓은 장쾌한 화폭을 감회깊게 바라보시던 그이의 웅골은 음성이 정적을 깨치였다.

《어떻습니까, 이런 절경에다가 우리의 선렬들을 정성들여 모시는것이 우리 세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좌우에 섰던 수원들도 못내 감탄해마지않았다.

그이께서는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시여 동쪽기슭을 따라 언덕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좌우에 줄지어 세운 석상들과 그것을 웅위해서 힘있게 뻗어내린 산줄기들을 살펴보시면서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것이였다.

...이미 세상에 없는 선렬들의 위훈을 추모하고 그들이 가진 개개의 표상들을 영원히 남기기 위

하여 여기 수도의 한쪽기슭에 돌로 다듬어 그 영상들을 모시는것은 후대들의 웅당한 도리라고 할수 있다. 비록 석상으로나마 여기서 그 모습을 자주 대할수 있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토록 바라던 우리 조국, 우리 수도 평양을 언제나 굽어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후련한 일인가, 지난날 조국땅의 여기저기에 지어는 이국의 골짜기 또는 거치른 등성이에 이름없이 묻혀있던것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아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시게 되는 경우라면 남다른 감회를 가지시게 될것이다. 여기 모셔진 100여상에 달하는 그 전우들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 특징과 자기류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가슴에 파고들것이다. 차광수, 김혁, 오중흙, 최경화, 김진, 리제순, 박달동지들,

이들가운데 한 절반만이라도 아니 단 몇명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밖에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고많은 그 무명유명의 전우들은 또 얼마인가.

혁명이란 참으로 준엄한것이다.

혁명이란 적의 반항을 때려엿기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을 마련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것을 감당한 인간들이 동지와 겨레를 잃는 그 아픔을 얼마나 완강하게 견디여내는가 하는 검열이기도 한것이다. 엄격한 검열관-혁명은 이것을 동시에 무자비하게 요구하는것이다...

《박다운동무!》

뒤집을 지고 앞서 걸으시면서 사색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 갑자기 뻗 돌아서시였다. 이때 그이의 두눈에서는 불광을 확 내뿜는듯하시였다.

《이걸 좀 보시오. 마동회동지가 우리를 쳐다보고있습니다.》

박운도는 그이 앞으로 한걸음 썩 나섰다.

석상앞에 마주 서시였던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산사람에게 말씀하시듯 몇마디 하시더니 앞으로 몇걸음 다가가시였다.

《생동합니다. 살아 숨쉬는것 같습니다. 저 안경을 보시오. 언젠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저 안경에 대한 일화를 들려준적이 있습니다 어느날 행군을 하던 도중 마동회동지는 안경을 떨구어 깨었다고합니다. 시력이 몹시 나빴던 그는 밤이면 꿈쩍을 못했는데 도수를 맞추어 그걸 구하느라고 크게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전투에서 수령님께서 우정 안경방에 들리시여 하나 구해다 주었더니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더라는겁니다... 수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크게 웃으시였는데 이때 눈곱에서는 이슬이 피어오르는것을 분명히 볼수 있었습니다....

박동무는 이 마동희동지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박운도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던터이라 자못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윽해서 그는 용기를 내어 말씀을 올렸다.

《왜놈경찰서장앞에서 혀를 물어뜯고 무언의 항거를 하는 순간 같습니다. 또 어찌보면 사령관동지한테서 국내공작임무를 맡고 밀영을 떠나면서 결의를 다지는것 같기도 합니다.》

《웁니다. 요는 그 장면이 어느것이든간에 그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있다는 그 점입니다. 나는 여기 와볼 때마다 이 하나하나의 석상앞에서 실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당일군들은 이들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석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공로를 찬양하며 그들의 얼굴모습을 추억하는것도 중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것은 우리가 그들의 숨결을 느끼고 그들과 항상 대화할줄 아는 그것입니다. 이들 개개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수령님께 목숨바쳐 충성한 전사들입니다.

한별을 우러러 기꺼이 한목숨 던진 사람, 적탄을 한몸으로 막아 사령부를 보위한 사람, 눈속을 기어서 한해겨울 장군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것입니다. 우리 당일군들은 마땅히 이들에게서 배우고 이들의 념원을 풀어주며 이들의 행로에 견주어 자기 발걸음 채보아야 하는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팔을 흔드시며 열렬하게 말씀하는것이였다. 때로는 속삭이시는것처럼 때로는 타이르시는것처럼 감정의 파동을 자연스럽게 타고나가시면서 박운도에게 그리고 좌우에 둘러선 수원들에게 한동한 말씀하시였다.

《좋은곳에 자리잡았습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다시 계속하시였다.

《고구려의 옛성터가 있고 또 로동당시대에 활짝 꽃핀 행복의 터전이 펼쳐지고 그것들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는 명당입니다. 이쯤하면 우리 인민들은 려사릉에 기울인 당의 성의와 의도를 능히 짐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그이께서는 려사릉과 관련한 실무적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고 밤이 깊어서야 대성산을 떠나시였다.

사무실에 돌아온 박운도는 웬일인지 흥분을 가라앉힐수가 없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석상앞에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귀가에는 아직도 《당일군은 마땅히 이들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신 구절이

거듭 울려오고 있었다. 그리고보면 오늘밤에 있는 일은 그이께서 우정 이렇게 하시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연한 일치를 이루었는지 알수 없지만 결국은 미숙한 한 당일군을 깨우쳐주시려는것임에 틀림없었다. 그이의 지도를 받아오는 과정에 박운도는 문제의 성질이 중요하고 본질적인것일수록 머리로 의식한것보다 몸으로 느낄수 있게 하는 그이의 방법이 항상 위력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지도방법에서나 사람들을 설복하고 깨우치는데 있어서 늘 한본새로 주입하는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어떤 때에는 직방 안겨주시는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상상하기조차 바쁠 정도로 큰구도와 장엄한 판을 벌리시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신다. 또 일단 시작한것은 밀창이 드러날 때까지 파헤쳐 끝장을 보시고야 마는 의지와 담력을 가지시고 공격전을 벌리시는것이였다.

그러니 제기한 문건, 작가 정철옥 그리고 려사릉, 이 서로 판이한 대상들을 하나로 련결시키시고 집약시키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깃들어있을것은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여느때 같으면 그자리에서 수표를 하여 돌려주시면서 어떤 결함은 어떻게 고치고 어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해야 한다고 하실것인데 문건을 보류하시고 밤이 깊도록 건설장을 돌아보시지 않았는가.

박운도는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는 잠들지 못하였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고 빠근하였다. 불과 몇시간동안에 어느 평범한 날에 몇달 아니 몇해를 두고 체험해야 할 그런 밀도의 생활을 받아안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현재의 느낌은 바다를 단숨에 들이킨것 같기도 하고 청소년시절에 그러하듯이 하루밤 자고나면 한뼘씩이나 키가 자란것같은 그런 성장감을 의식하는것이였다.

×

이튿날 대극장에서 가극 《당의 참된 딸》에 대한 검열공연이 있었다. 비장하면서도 숭고한 감정을 격조높이 울려주는 마지막장면이 결정을 이룬 가운데 막이 서서히 내리였다.

후계실에 나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이 참가한데서 공연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였다. 각자 체나름으로 표현했지만 본점은 대체로 어슷비슷하였다. 우선 공연기준이 잘 보장되였다는것과 종전에 비해 총체적으로 형상이 올라갔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일부 부족점과 주의가 덜 돌려진 장면들을 지적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반반영을 중시하시였다. 동석한 간부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다 들으시였다. 맨나중에 왼쪽 끝머리에 서있던 박운도도 차례가 왔다.

《박운도동무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당일군도 공연을 본 이상 언권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동무들과 대체로 의견이 같은데다가 의견이라고 할만큼 조리있게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제기할만한것이 없노라고 말씀 올리였다. 《동무들의 의견에 나도 동감입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였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을 풀고 웃는 낯을 지었다.

《공연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있던 미숙한 점들이 모두 극복되었습니다.

연기형상도 좋고 특히 음악이 한계단 비약했습니다. 전번에 비해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이께서는 한번 품을 들여서 말씀하시자고 하시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수 없다고 하시면서 간단히 작품과 공연에 대한 분석을 하시였다. 평범하고 알기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서 류창하게 번져나가는 그이의 말씀에서 실로 놀라운 미학견해와 새 리론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렇게 놓고보면 그이께서는 이 검열공연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여태까지 진행된 가극창작에 대한 경험을 전반적으로 총화하시고 다시한번 더 단계어로 올리실 방안과 방도들을 이미 오래 전에 탐구하셨다는것이 명백하였다. 오늘은 다만

그것이 공개되는 계기에 지나지 않았던것이다. 한점의 돌과구를 설정하시고 전반을 추켜세우시고 하나의 방안을 제기하시기 위하여 열백번 따져보시는 세련되고 드림없는 지도는 이르는곳마다에서 명진단 명처방의 효과를 나타내고있었는데 오늘도 또 그 실례의 하나로 된것이다.

박운도도 그렇고 또 다른 동무들도 모두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그이의 말씀이 어떻게나 사람들을 심취시키는지 저도 모르는사이에 온 뉘이 짱그리 끌려들어갔다. 적절하고 흥미진진한 비유와 또 불을 뿜는것 같은 열정과 깊은 사색에 말려 들어가 단 몇줄도 적어내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뒤집을 지시고 방안을 한바퀴 거닐으시면서 말씀을 다시 계속하시였다.

《안영애가 우리 결을 떠난지 벌써 몇십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형상을 왜 보고싶어합니까. 공로와 위훈으로 말하면 사단과 군단을 지휘해서 전국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지휘관도 있고 적을 수백명이나 쓸어놓힌 용사도 있는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작품도 만들어야 하고 갖은 방법으로 기억해두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영애의

경우에는그 정신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생동하게 살아 숨쉬고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합니다. 피문은 당원증을 가슴에서 꺼내들고 한 그 마지막 몇마디 말속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바친 충성의 열정이 굵이치고있습니다. 안영애의 육체적생명은 갔어도 그의 정치적심장은 힘있게 고동치고있으며 그의 숨결은 오늘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인간들이 안영애를 보고싶어하는 억누를수 없는 감정을 야기시키는 불꽃입니다. 동무들이 만약...》

그이께서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나시여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였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동무들의 공연을 지금보다 몇배는 더 진실하고 격조높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만합시다. 시간이 없어 오늘은 더 지체하지 못하겠습니다.》

매 사람의손을 친절하게 잡아주시고나서 그이께서는 자리를 뜨시였다.

박운도도 인사를 올리고 그자리에 멈춰섰다. 지금 그의 온몸을 사로잡고있는것은 이제까지의 그이의 말씀은 그것이 단순히 한편의 가극에 대한 가르치심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인간에 대한 관점문제에 심각한 교훈을 주는 점이였다.

박운도는 련사룸에서 받은 흥분에 뒤이에 거듭되는 충격에 의해 가슴이 덜컹하는것을 감각하였다. 그것은 아주 예민한 느낌이였는데 필경 정철육이와 결부되었다는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박운도동무만 잠깐... 다른 동무들은 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배웅하기 위하여 복도에 따라나섰던 동무들을 돌려보내시였다. 휴게실에 그이와 박운도만이 남았다.

《문건을 가져가시오. 그동안 무엇인가 더 생각한것은 없습니까?》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만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때 박운도는 정철육을 비롯한 일부 수훈대상자를 재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려고 하였는데 벌써 그이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나는 어제에 생각해보고 또 오늘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문건을 두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는 한 당일군을 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일군이 그렇게 뻥뻥하고 시대에 둔감해서는 아무일도 못합니다. 나는 이 문건에 첨부된 수훈자명단에 작가 정철육동무이름이 빠진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명단의 맨 첫머리에 있을것이

라고 기대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끝에쯤은 꼭 나오리라고 바랐는데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것 같은 느낌을 감각하면서 박운도는 거칠어진 숨결을 누르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온건하면서도 납덩이같이 무거운 음성이 귀를 울리였다.

《언젠가 동무자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산장 13각 2층 5호에는 어느 때나 밤이 새도록 불이 켜져있다고말입니다. 그것은 나도 직접 목격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허를 물어 끊거나 단두대에 서는 때가 아닙니다. 막장에서 착암기를 돌리고 고층철탑우에서 용접광을 날리며 논벌에서 벼포기를 심고 또한 창작실에서 밤을 밝히는데서 우리는 오늘의 차광수, 김혁을 보아야 합니다. 정철옥동무가 쓰다남긴 유고를 정리해서 최근에 출판했다는 <세 전우>를 읽어보았는데 교양적 가치가 큼니다. 동무는 그걸 읽어보았습니까?》

《…………》

《읽어보지 못했다면 잘못된것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이해할수 있습니다. <세 전우>에서는 혁명적동지애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의 사상이 강하게 울리고있습니다. 안영애가 숨지는 순간에 당원증을 내놓으면서 한 말이 심장이 멎는 마지막순간에 펜을 통해서 주장한 정철옥동무의 웨침이 다름바 없습니다. 작품의 성과도 성과지만 그것을 위해 련일 밤을 밝히고 펜을 잡은채 숨을 거두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표창을 할수 있습니다.

그가 쓴 작품이 독자들속에서 읽히고 있고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있는데 무엇보다에 그를 표창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도 동무들의 립장을 이해할만합니다. 사후에 훈장을 주는것과 같은 그런 특혜를 그에게 적용할만한 전도가 되는가 하는걸겁니다. 대답은 단순명백합니다. 그가 쓴 작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창작한 작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도 안영애처럼 또 마동희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있지 않습니까. 주저할것이 무엇입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훈추천명단을 펼치시더니 맨 웃머리에 《작가 정철옥 국기훈장 제1급》 하고 활달한 글씨로 힘있게 적어넣으시는것이였다.

《우리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우리 시대 인간을 육체적생명의 호흡이 끊어졌다고 해서 모른것이 끝나는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하고 서류를 박운도앞으로 쏙 내미시는것이였다.

고개를 들고 한결음 나서서 박운도는 두손으로 정중히 받아안았다.

《또 한가지 유감스리운건…》 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미소를 띄우시며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이 주선을 놓치고있다는 그 점입니다. 들어보니 동무는 정철옥동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가정을 잘 돌보았습니다. 가족을 데려 올려오고 학교에도 찾아가고 부인을 직장에도 넣었습니다. 그것은 다 잘한 일입니다. 한전호숙에서 싸웠다는 전우로서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동무는 당일군입니다. 가정사를 돌보아 집을 얻어 이사집을 나르고 학교에 찾아가는것 등은 친지의 체면을 위해서도 할수 있고 또 어느 행정일군이 나 이웃사람들도 할수 있는것입니다. 당일군은 마땅히 정치적생명을 지켜주고 빛내이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의 직접적담당자로 되여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그가 살아있건 이미 세상을 떠났건 관계없이 일단 어버이수령님께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아끼고 보살펴야 하며 정치적생명이 영원히 빛나도록 이끌어야 하는것입니다.

문고리를 먼저 당기는 사람의 말이나 끈이 들고살아 면전에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나 관심을 가지는 당이라면 누가 그것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잘났건 못났건 제 자식을 모두 한품에 따듯이 안아주는것이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박운도동무.》

그이의 음성은 절절한 도를 넘어 약간 석심해 지시기까지 하였다.

문건을 받아들고 서만있는 박운도의 손이 견잡을수 없이 떨리였다. 일처리를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한동안 그의 온몸을 굳혀버리는것 같았지만 차츰 그이의 뜨거운 숨결에 융해되면서 감동의 파동이 일어났다. 가슴은 마냥 들먹이고 눈곱이 달아났다.

《엄중한 파오를 범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파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정철옥동무에게 사죄해야 하고 다음은 동무네 관하 당원들앞에서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

《파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그를 담당하게 되는 인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사업에서 이것이 첫째가는 원칙입니다.

그만합니다. 문건에 있는대로 본때있게 한번 내밀어봅시다. 70년대를 힘있게 주쳐올려봅시다. 준비되는 차례로 수훈식도 합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활발한 동작으로 박운도의 손을 힘있게 흔들어주시고는 곧 차에 오르시었다.

가을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리는 거리로 자동차가 멀어져가는데 박운도는 현관층계에 빚어 세운듯이 서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

수훈식장은 감격으로 뒤설레이고있었다.

수훈자는 물론이고 또 그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여온 사람들모두가 얼굴이 붉어지고 잠시도 진정하지 못하였다. 누구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것이 아니지만 명예가 차례지는 이 마당에서 그것이 어떤 가치와 보람을 가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있는 그들이었다. 환영곡과 박수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차례로 주석단에 올라가 훈장을 받았다.

주석단에 앉은 박운도는 이미 축적된 감정이 있었던지라 될수록 침착해지려고 애를 썼지만 얼마 못가서 가슴이 들먹거리는것을 어찌지 못하였다.

어쨌든 수훈식은 흔히 보는 그런 관례와 절차대로 거침없이 흘러가고있었다. 먼저 명예칭호를 받게 되는 예술인들이 나왔다. 수훈자는 렬을 지어 그칠사이 없었다. 다음은 국기훈장 1급을 비롯하여 차례로 내려가면서 진행될것이다.

사회자는 《국기훈장 제1급》하고 한호흡 사이를 두었다가 《작가 정철옥》하고 불렀다.

설레이던 장내는 일시에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한초 두초 시간이 흘렀지만 어데서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수훈자대렬은 끊어지고 장내에는 일순간 의아한 공기가 휘익 지나갔다. 그것은 여기 모든 사람모두가 정철옥이 이미 사망한지 몇해가 되어 기억에서 사라졌다는것을 잘 알기때문이다.

이때 박운도는 고개를 번쩍 들고 장내를 둘러보는것이였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똑 벗어나는 맨앞줄 한끝에 열살 되나마나한 학생아이 하나가 자기 어머니인듯한 중년녀인앞에 서서 소년단넥타이를 바로잡고있었다. 그것은 정철옥의 열한살 짜리 아들애와 그의 어머니였던것이다. 녀인은 벌써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 퉁퉁 부어있었다.

그는 재빨리 손을 놀리려고 하는것 같은데 흥분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아직 철이 들기에는 너무도 어린 아들애는 어리둥절해서 눈만 두릿두릿 하고있었다.

드디어 어머니가 주석단층계까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나가 등을 떠밀어올리었다. 그제서야 아이는 얼마간 대답해져서 짧은 다리를 재게 놀려 앉아서 어른들이 한대로 수훈을 담당한 간부앞에

나가섰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웬 아이냐 하는 공기다.

사회자의 말이 장내를 다시 울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작가 정철옥동무는 창작상공로로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정철옥동무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의 맏아들 정남수학생이 대신 훈장을 받겠습니다.》

순간 폭풍이 휘몰아치듯 박수가 터쳤다. 사람들이 일제히 손바닥이 깨지게 박수를 치며 환호를 울리었다. 환영곡과 박수소리가 뒤범벅이 된 소용돌이속에서 그 작은 손에 훈장이 들려졌다. 이미 어머니한테서 여러번 주의를 들었건만 줄지에 정신이 빠져 아이는 순서를 헛갈리고 두리번 거리기만 하였다.

그때 박운도가 앞상을 에돌아 남수앞으로 나갔다. 우선 그는 훈장을 붉은넥타이가 내리드리운 왼쪽가슴팍에 달아주었다. 박운도도 흥분이 앞서 빈침을 두세번 헛찌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음 그는 남수의 손목을 잡고 주석단정면을 향해 걸어나갔다. 손목을 잡은채 박운도와 남수가 자세를 바로 잡아섰다. 그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이 모셔져있었다.

《남수야, 인사를 올리자.》

박운도의 목소리는 건잡을수 없이 떨리었다.

《아버이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철옥은 오지 못하고 그의 아들 정남수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임과 배려에 대를 이어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히 인사를 올리었다. 뒤이어 그들은 팔을 들어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장내가 떠나갈듯한 만세의 환호성이 그칠줄 몰랐다. 집이 통채로 와르르 무너지는것 같고 땅이 온통 뒤 흔들리는것 같았다.

팔을 들어 흔드는 사람들모두가 눈자위가 붉어지고 어깨가 들먹거렸다.

자리에 돌아온 박운도는 무의식중에 박수도 치고 또 다음 사람의 훈장도 달아주고 하였지만 그의 눈앞에는 지난 일들이 노상 영화화면처럼 흘러가고있었다.

안경을 끼고 축 처진 배낭을 메고 힘겹게 행군해가고있는 전사시절의 정철옥, 창작실 책상에 가슴을 비비대며 사색을 더듬고있던 작가 정철옥, 장면은 확 바뀌어 이번에는 수훈자추천명단을 펼치시고 정철옥의 이름을 적어넣어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 눈앞을 확대였다.

박운도는 고개를 가로들고 기침을 연방 낚았다. 가슴이 옥죄이고 숨을 쉴어낼수 없는것이다.

그는 앞상모서리를 으스러지게 그러잡고 우들 우들 몸을 떨었다.

(철옥이, 너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느냐, 무덤을 차고 일어나 왜 여기로 달려오지 못하냐, 남수가 네 대신 혼장을 받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네가 살아있을때 진작 혼장을 주지 못한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사후에라도 표창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너를 불러주시었다. 오물통을 쳐내고 왜놈네 목강물을 데워주고 췌기밥을 얻어먹던 비렁뱅이가 장군님 덕분에 사람구실을 한다고 전호가에 엮드려 크게 웃던 네가 아니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우리 시대를 목이 시도록 노래부르겠다고 주먹을 휘두르던 네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이자리에 없느냐말이다. 몸이 오지 못할진대 넋이라도 달려와 네 영광이 얼마나 큰지보기라도 하려무나...)

앞상우에 추녀끝에서 락수물이 흐르듯 툭툭 소리를 내며 박운도의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어깨가 흔들리고 숨결은 더욱 거칠어진다. 그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옆으로 돌아앉아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얼마간 진정된 뒤에 그는 목을 끈게 세우고 자세를 바로 하였다. 흐릿한 시야를 거쳐 내려다보니 저아래에 방금전까지 어머니품에 안겨 되게 울던 남수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던가싶게 혼장이 달린 가슴을 쑥 내밀고 또릿또릿한 눈으로 주석단을 올려다보고있었다. 바로 그옆에서는 어머니가 아직 얼굴을 찡찡채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다.

(남수, 너는 아직도 다는 모를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 너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이 어떻게 마련되었고 또 그것이 너와 우리들속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것인지 그것을 알기에는 너는 너무나 어리다. 하지만 이제 네가 나이들고 당의 한 성원이 되었을 때 그때는 아마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당의 은덕을 알게 될것이다.

그리고 바로 너에게 차례진 그런 영예가 우리 세대에 또 너희들 세대에 한결같이 고루 미치고 있다는것도 알게 될것이다.)

수훈식이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에도 박운도는 울렁이는 가슴을 좀체로 진정시켜내지 못하였다. 공연히 방안을 서성거리었다. 전화통을 들었지만 딱히 어데를 부르자는것도 아니었고 자리에 앉았지만 무엇을 읽거나 쓸 준비가 된것도 아니었다.

그의 흥분은 오래 끝었다.

그는 이 며칠동안에 있던 일을 두고 자기가 하고있는 당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듬어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겪어온 한생을 갈피갈피 뒤져보기도 하는것이였다.

흥분에 떠서 시간을 보내던 박운도는 리성을 가다듬고 최근 며칠동안에 벌어진 자료들을 급히 수습해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뵈옵게 되였다.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진행한 조직정치사업이 간결하게 묶어졌으며 몇가지 결론을 받아야 할것이 준비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쁘겠는데 불려서 안되였다고 하시였다. 자리를 권하고 읽으시던 문건은 계속 읽어나가시면서 간단히 보고하라고 하시였다. 박운도는 중언부언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않고 문제를 몇가지로 추려서 본질적인것을 짧게 말씀드리었다. 문제에 대한 설정과 그에 대한 포치정형을 몇분간 말씀드리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문건에 수표를 하시고 펜을 놓으시면서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는것이였다.

《박동무, 그건 그만하고 요란하게 진행됐다는 수훈식장면을 그대로 말해보시오.》

《전과정이 감격적이였지만 특히 정철옥동무의 아들이가 대신해서 혼장을 받는 장면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만장에 울음판이 터졌습니다.》
《그렇소?!》

그이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서서더니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시였다.

《모두다 좋아하더라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나도 록음테프를 돌려서 분위기를 짐작은 할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동무가 그렇게 울더라면서?》

《네! 좀...》

박운도는 뒤덜미로 손을 가져가는데 금시 그 장면이 떠올라 코마루가 찡해났다.

《그러고보니 내들은 소리가 노상 뜬 소문은 아니였습니다. 록화를 했더라면 그 장면을 직접 동무에게 보여줄수 있는건데 유감입니다.》

그이께서는 다시 방안을 한바퀴 도시고 말씀하시였다.

《동무가 울었다니 만장에 울음판이 터졌다는 반영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일군이 흥분하고 감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흥분시켜낼수 없습니다. 당일군의 심장이 불나고 놀뛰지 않으면 그 누구의 심장도 불라게 할수 없습니다. 당사업은 다시말해서 사람과의 사업을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는것보다 심장을 흔들어놓는것이 몇배 더 위력합니다. 렬사롱앞에서 우리는 마동희동지의 놀뛰는 심장소리를 들어야 하며 수훈식장에서 정철옥이와 그 열한살짜리 아들의 심장소리도 들을줄 알아야 합니다. 1920년대로부터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그의 심장은 오늘

도 또한 래일도 높뛰게 해야 하며 그것이 대를 이어 미쳐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통속적으로 말해서 당사업이란 심장과 심장을 합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쉽니다.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높뛰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그와 정비례해서 전당, 전민의 심장이 그 만치 메아리를 일으킨다는 그것입니다.》

이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시선은 창문을 거쳐 그 어덴가 멀리 푸른 하늘이 비낀 아득한 공간에 비껴가고있었다. 어찌보면 대단히 만족하여 희열에 잠기신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보면 어떤 새로운 문제의 실마리를 포착하시고 그의 핵으로 깊이 침투해들어가는 탐구과정 같기도 하사였다.

《박운도동무!》 하고 그이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은 사색할줄 알아야 합니다. 사색하는 당일군이 되여야 한단말입니다.》

그이께서는 《내 말이 리해되는가?》하고 묻기라도 하듯이 미소를 띤 시선으로 한동안 이편을 바라보고계시였다.

그날밤 박운도는 밤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있었다. 이런 밤을 차에 앉아 무심히 보낼수는 없는것이였다. 거리는 전이나 다름없이 변화하고 들끓었다. 동에서 또는 서에서 혹은 앞에서 뒤에서 용접광이 퍼긋퍼긋 일어나고 그럴적마다 파랗게 고운빛이 하늘을 물들이곤하였다. 끝목마다 짐차들이 꼬리를 물고 질주하고있으며 씩씩한 노래를 부르며 렬을 저서 청년건설자들이 어데론가 가고있다. 건설장들에서 승벽내기로 울리는 확성기의 노래소리, 격조높은 선동원의 웨침소리.

보도들에는 길이 메게 사람들이 바쁜걸음으로 어데론가 흠어져가기도 하고 또 맞받아오기도 한다.

박운도는 이날밤 류다른 감정을 가지고 이 모든것을 받아들이고있다.

오늘낮에 박운도는 남수와 약속한대로 학부형회의에 참가하였다. 담임교원은 학생들의 재능을 자랑하기 위하여 학과경연에서 1등을 했다는 도화전람을 조직했던것이다. 특징만 보고 세부를 대담하게 무시해치우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수십점에 달하는 자기들의 작품-집, 공원, 사과, 네거리, 달리는 자동차, 소년단행진 등등으로 세상만물을 간결하게 집약해치웠다. 그중에서도 남수가 그렸다는 10점짜리 《높이 솟는 평양아파트》는 실로 볼만하였다. 비례와 균형에서는 결함을 가지고있지만 약 20층에 달하는 건설중의

아파트는 이제 얼마 올라갈지 두고봐야 안다. 《속도전》이라는 구호기가 하늘높이에서 펄럭이고있다. 들끓는 수도평양을 대담하게 자랑하고있는 어린 녀의 시도가 력력히 엿보였다. 어쨌든 대단히 만족하고 좋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거리가 기운차게 숨쉬고있다. 아니 온 나라가 약동하고있는것이다. 검덕에서, 청진에서, 송림에서, 안주에서, 간석지에서, 등대섬에서 시대의 호흡은 세차게 울리고있다.

이 거대한 움직임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놓고있는가.

여기에는 모든것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잘것 없는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도 천금같은 가치와 의의를 부여하고 고목에서도 꽃을 피우는, 진할줄 모르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울리는 다함없는 대심장의 고동이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을 변혁하는데 만능의 무기로 되고있고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 숨쉬게 하고있다.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리해하고 체험할수 있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리를 거침없이 받아들일수 있게 하는 비결이 있는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아직도 인류는 몇지 않는 심장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영원히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고이 간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누구나 살아있는 한생을 거쳐서 그것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영원불멸하는 당의 심장에 자기자신을 합치는 단 한가지 방법을 택하는것이다.

박운도는 구름처럼 피여오르는 신념과 의지의 덩어리들을 한가슴에 견어안고 활개치며 걷고있다. 몸이 확확 달아나 단추를 다 터놓았다.

온몸에 새시대의 흐름 한복판에 자기자신도 서있다는 기쁨과 희열이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무엇이 광광 흥벽을 떠받치르고있다.

한창 걸다가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앞에 낮익은 아파트가 막아섰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까지 여기를 목표로 걸어왔다는것을 깨달았다.

《3층 3호집!》

불이 뻥한 그 방에 지금쯤 열한살짜리 남수가 숙제를 하고있을지도 모른다.

박운도는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밤새껏이라도 해줄것 같은 포부를 안고 층계를 급히 오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친위전사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빛나는 형상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에 대하여-

장영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때로부터 66돛이 되는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는 우리 인민은 지금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를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워 오로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무한히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정숙동지를 따라배우려는 열정이 온 사회에 차넘치고있는 오늘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가 나온것은 주체의 혁명문학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는 자랑으로 되며 우리 인민이 또하나의 귀중한 생활의 교과서를 받아안은 기쁨으로 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1937년 4월초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장백현의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하강구일대와 조선북부국경지대인 신파지구에서 지하공작을 벌리신 내용가운데서 그 전반부에 속하는 늦은 봄까지의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하고있다. 그 후반부의 생활은 앞으로 창작될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4부에서 형상되게 된다. 따라서 이 소설 제3부와 제4부는 서로 이어지는 작품이며 제3부는 제4부의 전편이라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가 반영한 시기로 말하면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서 강력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여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시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께서 1937년 3월 서강회의를 소집하시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방침을 제시하시고 함께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시던 력사적시기이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 서남부일대를 항일무장투쟁의 전략적기지로, 조국광복회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거점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실 구상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안에서 오래동안 단련된 우수

한 일군들을 이 일대에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시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이 전략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지하활동모습을 형상한 작품이다.

소설은 1937년 3월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장백현일대와 국내 신파지구에 나가 적후활동을 벌릴데 대한 파업을 받으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심장으로 받아 안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수한 치마저고리차림으로 장백현 하강구 도천리에 들어가신다.

조국광복회 도천리지회장인 구장 강성태의 손누이로 가장하고 이 마을에 자리를 잡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시면서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하강구일대를 혁명화하시고 신파지구에도 지하공작을 적극 벌릴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신다.

장편소설은 이러한 화폭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지시 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 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1, 2부가 제기한 사상주제적과제를 더욱 심화시킨것으로 된다.

김정숙동지께서 1932년 초봄부터 1933년 가을까지의 기간 청소년시절을 보내시면서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시요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시는 과정을 그린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1부가 사람은 무엇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기 위하여 태어나는것이라는 의의깊은 해답을 주었다면 이 소설의 제2부에서는 1935년 초봄부터 1936년 여름까지의 기간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형상하면서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주었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의 사상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장군님께서 주신 파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였다.

이번에 새로 창작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임무를 맡은 혁명전사는 대중을 묶어세우는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는 립기용변의 대담한 지략,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제2부가 제기한 사상주제적과제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있다.

이리하여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1, 2, 3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총체적인 주제적과제를 관통시키고있으면서도 매 부들이 사상주제적과제의 새로운 측면들을 독자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부들사이의 주제적연계를 보장하면서도 매개 부들의 특색을 살리고있다.

그 결과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풍모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려는 작품의 총적과제를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를 회상하시어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이름난 명사수였고 능숙한 지하공작원이었으며 모진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강毅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

그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했고 동지들을 사랑했으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풍모를 형상하는데서 력점을 찍은 문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충성으로 받드는것을 가장 숭고한 의무로 여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충성심을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준것이다.

소설의 서두에 그려진바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장백에서 무송지구로 행군하던 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지하공작임무를 받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께 도천리를 중심으로한 하강구일대와 신갈과지구에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고 혁명적군중지반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국내에 백두산 근거지와 같은 하나의 혁명기지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조선인민

혁명군이 북부조선일대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백두산근거지를 랑림산맥일대로 확대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양양으로 이끌어올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일깨워주신다.

장군님으로부터 도천리일대에서 지하공작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또 그 일대와 지하조직이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는 통보를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수행을 잠시도 지체 하실수가 없으시였다.

그리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제 고개 하나를 넘으면 큰골마루가 나지고 그러면 하루밤 동무들과 함께 언뎀을 녹이고 떠날수도 있었으나 공작지를 향해 눈보라치는 수백리 산길을 결연히 떠나신다.

더운 방에서 단 하루밤 언뎀을 녹이지도 않고 시고 적후 수백리길을 홀로 떠나시는 김정숙동지의 그 결음, 그것은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받드는 일에서는 순간의 지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결곡한 마음의 표현인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후활동을 벌리시는 간고한 나날에도 언제나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뜻을 더 잘 받들겠는가, 자신의 사소한 실수로 하여 장군님의 뜻을 옳게 받들지 못한 일은 없는가를 늘 돌이켜보곤하신다.

소설에 그려진바와 같이 북방아어머니의 오향에도 불구하고 그를 쟁취하려고 근기있게 접근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심중을 리해하지 못한 강성태의 안해 신분단이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건 백날 도와야 소용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그에게 접근하지 마시라고 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분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장군님을 받들어드릴까? 어떻게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할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히 생각하면 먹는 밥도 달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아요. 장군님께서 그처럼 심혈을 기울여 키워오신 혁명인데 우리가 그 뜻을 받들지 못한다면 무슨 혁명가라구 하겠나요.》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한 인간은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것은 그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나 인간성의 발현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기 위한 사업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와 그 주구놈들을 제외한 각계 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자로 하여 북방아어머니는 물론 적들의 련담군으로 굴러떨어진 십가장 함석필의 처 향옥이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며 지어 그보다 더 복잡한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그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혁명가에게서 제일 중요한것은 장군님의 뜻에 맞게 일하고 생활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김정숙동지의 철석같은 의지, 그것은 오직 장군님을 받들으로써만 우리 혁명의 승리가 담보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인간이 당할수 있는 온갖 슬픔과 수난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혁명을 이끌

어주시는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혁명적의리에서 출발되고있다.

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 혁명적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고있을뿐아니라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혁명실천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것을 생활의 신조로 간직하고계신데 대하여 여러 국면에서 묘사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려운 일에 부딪칠때마다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생각하시며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전사가 살아있고 그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장군님의 명령은 추호도 어길수 없으며 드림없이 관철되어야 한다.》는것을 거듭 외우신다.

이것은 혁명적수령관을 최고의 높이에서 지니신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인간적품도를 형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혁명적수령관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우러러 받드는 사상관점을 확고히 세우는것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자세를 바로가질 때에만 옳게 섰다고 말하수 있다.

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장군님으로부터 받으신 혁명임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생명을 내대는 위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담하게 맡아 끝까지 관철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신데 대하여 형상함으로써 김정숙동지의 혁명적수령관을 최고의 높이에서 보여주었다.

소설에 묘사된바와 같이 김정숙동지께서 도천리의 인민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던 어느날, 백지주눔이 춘옥이네 소를 강제로 끌고간것으로 하여 벌어진 싸움은 마을의 분위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소를 지주눔에게 빼앗기느냐 찾아오느냐 하는 문제는 혁명군중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싸움으로서 김정숙동지로 하여금 놈들과 정면에서 대결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성된 사태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백가눔에게 대담하게 육박하여 그놈을 꺼꾸러뜨리시였을뿐아니라 이 사실을 강상태가 먼저 경찰서에 알리도록 하심으로써 지주눔을 움작달작 못하게 만드시고 인민들의 혁명기세를 더욱 돋구어주시였다.

백지주눔과의 대결은 이 소설의 중요한 갈등선의 하나로서 그 이후 백가눔의 책동이 악랄하여 감에 따라 더욱 심화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을 등에 업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할뿐아니라 원목채벌을 기회로 리득을 보려고 꾀하는 백가눔이 도천리일대의 지하조직을 내탐하고 이 사실을 왜놈들에게 고발하려고 할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담하게 그놈의 앞을 막아서 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찾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이다.》라고 하시며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조국진군길을 감히 막아나서려는 지주눔의 어리석은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신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이역의 거친 산야를 표류하는 불쌍한 동족을 도와주는 못할망정 착취하고 억압하며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살인까지 감행하는 네놈을 어찌 그대로야 묵인해둘수 있겠는가. 네놈은 즉석에서 인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놈이다!》

김정숙동지의 이 추상같은 말씀은 백가눔으로 하여금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감히 막아나서지 못하도록 그 죄상을 날날이 까밝히신 단호한 징벌의 선고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처럼 대담한 지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심으로써 적후활동의 어려운 국면들을 능숙하게 헤쳐나가시였으며 마침내 관동군 사령부에서 《안민촌》을 전문 담당한 가와사끼대좌놈의 《안민촌》건설구상을 파탄시키시고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장백일대에 혁명적군중지반을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소설은 특히 도천리에서 조국광복회의 하부조직인 도천리지부 부녀조직을 결성하시고 산판의 별목공들속에 들어가 정치공작을 벌리시여 그곳에 반일청년동맹을 조직하시며 적들의 경계가 심한 압록강을 건너가 신파지구에 지하공작의 발판을 마련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적극적인 지하활동모습을 인상깊게 그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진군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이 간고한 적후활동로정은 동시에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일관된 고매한 인간애의 서사시이기도 하였다.

소설에 그려진바와 같이 도천리에 자리를 잡으신 김정숙동지의 앞에는 이루 말할수 없는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피로우신것은 정을 주고싶은 사람들에게서 돌림을 받고 사랑을 주고싶은 사람들에게서 뺨대를 받는것이였다.

마을녀인들은 김정숙동지가 구장누이라고 그이를 멀리하고 그이에게 결을 주지 않았다. 지어 김정숙동지께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서면 물길던 녀인들이 쉬쉬하면서 달아나고 방숙이나 복방아네같이 구장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김정숙동지에게 로골적으로 적의감을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온갖 모멸을 참아가시면서 춘옥이네 장작도 패주시고 그 집의 앓는로인 리필섭의 병도 구완해드리시며 쌍별이의 저고리도 지어주신다.

또한 백지주집에서 머슴을 살고있는 칠봉로인이 어느날 방목하던 돼지 한마리를 잃어 온밤 산속을 헤맬 때에는 비내리는 그 깊은 밤 산관을 살살이 훑으시여 끝내 돼지를 찾아주시는가 하면 도천리에 오시던 그날에는 눈석임물에 정검돌들이 잠긴것을 보시고 내가의 찬물에 들어가 손을 얼구시며 돌다리를 피여올리기도 하시였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들을 통하여 인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김정숙동지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으며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하여 인민들이 김정숙동지를 믿고 따르게 되고 종당에는 혁명투쟁에 나서게 된다는것을 설득력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혁명가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김정숙동지께서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실수 있는것은 인민을 아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를 그대로 따라 배우시고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하공작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시려는 불타는 충성심의 결과이시였다.

사실 김정숙동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는 실로 큰것이였다.

소설에 그려진바와같이 장군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가 사령부의 작식대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전사라는것을 아시면서도 조국광복회 지하공작을 전국적판도에서 시급히 확대하고 조선인민을 반일의 기치아래 튼튼히 결속시킴에 있어서 국내에 백두산근거지와 같은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 임무를 김정숙동지께 맡겨주시였던것이 다.

장군님께서서는 믿음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를 믿소, 정숙동무가 이곳에 파견되면 신갈파를 중심으로 한 랑림산맥일대는 우리의 국내기지로 될것ियो. ... 어쨌소 감당할만 하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두 전선중의 한 전선인 각계각층의 반일력량을 묶어세워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족적인 투쟁을 불려일으키는 중요한 전선을 김정숙동지께 맡겨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김정숙동지께서 적후공작을 떠나신 이후에는 그를 못잊어하시였다.

사령부의 친솔부대가 동강밀영에 이르렀을 때 작식대의 일에 빈구석이 있다는것을 느끼시는 시각에도 장군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께서 계셨으면 이런 빈자리가 생기지 않으리라는것을 생각하고 대원들이 비누가 없어 옷을 깨끗이 빨아입지 못하는것을 보시고서도 김정숙동지께서 계셨으면

하다못해 참나무를 태워 재물을 받아서라도 옷을 빨아입게 했을것이라고 생각하신다. 하시면서도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토록 믿음이 가시는 김정숙동지이시기에 그이께서 받으신 적후공작이 반드시 잘 수행되리라는 기대를 가지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위중대장 리동학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빈자리가 보이면 보일수록 그쪽 일을 안심하게 된단말ियो. 떠난후에 빈자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파견하고는 절대로 안심을 할수 없는 법이요. 나는 김정숙동무의 빈자리를 보면 볼수록 그래서 기쁘오.》 《...좋은 동무를 파견했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된단말ियो. 정숙동무는 꼭 해내리라고 나는 믿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듯 김정숙동지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지니시고 그이께서 이제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장백현 하강구일대와 신파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지체없이 그곳을 발판으로 랑림산맥을 타고나가 국내에 강력한 지하조직망을 꾸리게 될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신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경위중대장 리동학은 자기들이 아무리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려고 하여도 결코 김정숙동지의 충성심에는 따르지 못한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것이며 김정숙동지에 대하여 《혁명을 위해 태어난 동무》라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시하는것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적후활동의 간고한 나날 대중을 쟁취하고 그들을 혁명의 길로 이끄시는데서 그토록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실수 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한몸에 지니시고 그에 보답하려는 충성심으로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신 결과이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는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받으신 적후공작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는 모습과 함께 김정숙동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충성의 대오로 자라나는 적후공작지인민들의 성격발전과정과 사상감정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도천리에 들어가시기 이전부터 구장인 강성태는 이 지구의 조국광복회 지회장이였고 권용산은 그 회원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적들의 발악적책동에 대처하여 어떻게 활동을 벌여야 할지 몰라 지하조직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김정숙동지께서 이곳에 도착하시여 그들의 지하투쟁을 지도하심으로써 그들은 장군님의 뜻을 옮겨 받들어나가는 참된 혁명가의 보람을 누리게 되였다. 즉 강성태는 적들내부에 드나들면서 놈들의 동향을 제때에 알아내어 집단부락을 만들기 위한 놈들의 책동, 토성공사와 포대공사를 파탄시키며 권용산은 채벌장에서 로동자들의 투쟁을 옹호 조직지도하여 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신파지구의 벌사촌에까지 나가 그곳에 지하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토대를 닦아놓는다.

강성태와 권용산은 이처럼 김정숙동지의 지도를 받으면서부터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는 혁명가의 보람을 찾게 된것으로 하여 장군님께서 보내 주신 김정숙동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잘 받들겠는가를 항상 생각한다.

소설은 강성태가 밤에 잘 때 코를 지나치게 골아 김정숙동지의 밤잠에 불편이라도 끼쳐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으로 권용산에게 부탁하여 목침을 크게 만들어 벤다는 생활세부를 통하여 김정숙동지를 잘 모시려는 그들의 심정을 생동하게 그리었다.

또한 백지주놈의 작간으로 뒤따르는 경찰한테 지하활동의 내막이 드러나게 되자 벌사촌의 주창범을 만나고 돌아오던 권용산은 김정숙동지의 신변안전과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그 경찰놈을 처단하고 자신도 희생되는 높은 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

소설은 지하조직원들의 적극적인 혁명활동뿐 아니라 김정숙동지의 지도밑에 도천리인민들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도 잘 묘사하였다.

그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형상된 성격은 권용산의 안해 리춘옥이다.

춘옥은 처음 남편조차 어렵게 대하고 가정살림 밖에 모르는 어리숙한 농촌녀인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그가 김정숙동지의 교양을 받으면서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혁명적으로 단련된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조국광복회 도천리지부 부녀회장으로 될뿐 아니라 《협화회》에서 보낸 《연사》나부랭이들의 정체를 예리하게 가짜하고 마을녀인들을 혁명의 길로 이끄는 여성혁명가로 자라난다.

또한 경성고보에 다니다가 독서회사건으로 출학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있던 지식청년 지세경도 김정숙동지의 지도밑에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야학을 운영하며 신파지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동아일보》 신파지구장 리풍우와 량심적인 정장로를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등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나서는 혁명가로 자리난다.

정신적으로 방황하던 지세경이 김정숙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에 매혹되고 **김일성** 장군님을 따름으로써 그이의 사상의 필연적승리를 확신하며 결국 공산주의를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매우 감명깊게 묘사되었다.

이밖에도 쌍별이와 복방아어머니등 마을녀인들의 성격발전과정도 개성적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처럼 공작지구의 인민들을 혁명의 길로 이끄실뿐 아니라 그들모두를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힘쓰시었다.

그것은 적후활동을 벌리시는 김정숙동지에게로 찾아온 경위중대장 리동학에게 하신 김정숙동지의 다음의 말씀에서 잘 표현되고있다.

《여기 공작지구의 모든 조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자나깨나 장군님을 생각하고 장군님을 우러르며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을 하도록 하겠는가 오직 이 생각뿐이예요 혁명을 한다고 다 혁명가인것은 아니지요. 십년, 이십년 아니 온 일생을 혁명가로 살았다 하더라도 장군님을 모실줄 모르는 사람이야 무슨 혁명가라고 할수가 있겠어요.》

장편소설은 이처럼 김정숙동지의 적극적인 지하활동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모습을 잘 형상함으로써 도천리를 중심으로 한 장백현 하강구일대와 국내 신파지구를 혁명기지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가 빛나게 실현되는 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는 이와 같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지하혁명활동과 그이의 지도밑에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혁명적인민들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혁명전통주체작품창작에 관한 우리당의 주체적문제이론과 방침을 훌륭히 관철하였다.

장편소설의 구성을 보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관동군사령부》의 가와사기대좌놈과의 대결이 기본갈등선으로 놓여있지만 그놈과의 정면충돌은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렇지만 김정숙동지의 적후활동의 전로정은 가와사기놈의 의도를 전면적으로 파탄시키고 장군님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고있다. 이것은 제4부에 가서 기본갈등선상의 극적대결이 첨예화될것을 예상하게 한다.

소설은 또한 김정숙동지께서 처음에는 인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시다가 그 오해가 차츰 풀리면서 인민들이 그이를 따르게 되는 전환의 과정을 잘 보여줌으로써 감정흐름선에 극성을 부여하고있다.

소설의 문체는 전반적으로 볼 때 그 흐름이 완만하고 유연한 편이며 간혹 나타나는 사론설체가 감각적인 묘사체에 잘 용해되어 형상의 정치사상적품위를 높여주고 있다.

장편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받으실 지하공작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는 과정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은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일하여야하는가를 가르치고있다.

따라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우리인민의 귀중한 생활의 교과서로 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와 같은 우수한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한흠의 미시가루 외 2 편

리종섭

눈보라 강추위속에 솔잎을 씹으며
혈전의 배밀이로 와닿은 7도구
대오는 분산행군으로 출전하는데
여기서 사령부와 헤어져야 하는가
청봉밀영으로 가시게 된 김정숙어머님

떠나는 마음도 피로우셨건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난의 행군길
아득한 밀림너머 천리밖인데
사령부엔 한줌의 난알도 없으니
그 마음이 더 아프시여
나어린 전령병을 부르셨어라

이 세상 그 무엇을 다 준대도
아니 바꾸었을 한흠의 미시가루
장군님을 위해 아껴두셨던것
운명처럼 소중히 지켜오시던것을
배낭속 깊은곳에서 꺼내드서
-나한텐 이것밖에 없군요-

아, 천근무게가 거기 실려있는듯
두손에 무거이 받아든 전령병
그 깊이 짙어낼길 바이 없는
어머님의 마음앞에
그만 눈물 머금고 얼굴 속이어라

피어린 싸움으로 하루해가 저문 날
눈무지속에 곱취있을 뜯으시던 어머님
며칠을 굶으신 맘 그만 허기져 쓰러졌을 때
지고계신 배낭속엔 있었구나

이 한흠의 미시가루!

정녕 그때도 있었구나
얼음산을 톱아오르던 행군길
대원들에게 통강냉이 몇알씩 나눠주시고
자신은 먼저 들었노라 물려서시더니
남몰래 흰눈으로 빈속을 달래이시던
그때도 배낭속엔 한흠의 미시가루

아, 그 한흠의 미시가루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받으신 장군님
이걸 한말로 생각하고 들라고
고루고루 전령병들에게 나눠주실 때
종이숟가락은 휘었다!
크나큰 무게가 실리어...

비록 한흠의 미시가루는
여러 묶으로 나눠어졌어도
장군님을 위하실 어머님 마음만은.
천만석에 갈라넣어도 그냥 넘쳐날
줄어들지 않는 웅근 마음으로 남아있었거니

그 시각 어머님은 가고있었다
어깨치는 숫눈길 헤치시며 헤치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빈 배낭 지신채
풀뿌리를 손에 드시고 청봉으로!
걸음걸음 눈우에 찍으시는 자욱마다에
오로지 한마음만이 충충히 고였다.
(어서 가서 사령부에 식량을 보내야지...)

봄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운 고향의 백살구꽃이
마음속에도 연분홍으로 피시던 날에
장군님 모시고 찍으신 사진
밀림속 타향에서 밝게 웃으시는
김정숙어머님을 우러러보노라
산뜻한 봄군복을 갈아입으시고
밀림으로 행군을 이어가실 때
지중지중 우는 종다리를 들으시고
어느 한 봄언덕에 멈춰서신 순간인듯
바라볼수록 깊은 생각 가슴에 젖어와라

장군님 바라보시는 머나먼 한곳
어머님의 그윽한 눈길도 머물러

나라 찾고 회령에도 가보실 날 그리시니
조국으로 날아가는 새무리를 보시는가
흘러가는 구름우에 그 마음을 얹으시는가

산설고 물설은 타향에 와서
달래 캐던 봄밭이 못건디게 그리우서
고향가자 조르시던 그 마음...
장군님 따라 조국으로 가시는 길
총잡고 맞으신 봄 몇몇해이신가.

고향있고 맞는 봄은 봄이 아니니
짓밟힌 조국땅에 꽃인들 피라만
티없이 맑은 웃음 짓고계심은

삼천리에 자유종을 땡땡 울리며
장군님따라 개선하실 그날을 그리시리라

아, 해마다 봄은 와도 풀리지 않는
압제의 서리발에 얼어붙은 조국강토를
인민의 기쁨으로 다 녹이실
겨레의 봄, 인생의 꽃이 피는 봄
준엄한 날에도 그 봄을 내다보시며
그리도 만면에 함뻑 지으시는 웃음이여

봄향기 풍기는 그 웃음
눈보라 비람속에서도 지우신적 없이
장군님 이끄시는 그 한길 따라
원쑤치며 수만리길 달려오신 어머니

쉽없이 찍으신 그 발자욱마다에
세월의 장설은 녹아내리고
해방의 봄을 맞은 광복의 그날에
푸른 들 푸른 하늘을 향해
그날의 그 웃음을 그대로 지으셨으니

정녕 봄은 어디에 있었는가
눈보라 울부짖는 밀림의 우등불가에서도
원쑤치며 산악을 넘은 행군길에서도
마음속엔 파릇파릇 움트는 새봄이 있어
기나긴 10여성상 흐리신적 없으신
어머님의 티없는 그 웃음속엔 있었구나

남겨놓고 가신 길에서

아무렇게 휘뿌린 비방울조차
금강산에 떨어지면 구슬이 되는듯
연주담 물결은 아롱다롱 구으는데
그 절경에 취해서 내 멈춰서는가

아, 단풍이 꽃잎처럼 내리던 가을날
어서 가자, 폭포소리 들려온다.
아드님의 손목을 잡으시고
장군님따라 오르시던 어머니
문득 걸음 멈추시고
시계를 들여다보신곳은 그 어데냐

어서 오르시라 꽃들로 반겨웃고
절벽도 길을 내며 비켜서있건만
백두밀림의 그 시간이 되신듯
장군님 점심차비 하시려
오르시던 발걸음 돌려세우신곳이여!

아, 첩첩산악 눈보라 만리를 헤치시며
혁명 위해 걸으신 길은 그리도 길었건만
어찌다 찾아오신 금강의 하루
지척인 구룡연에도 가닿으실수 없도록
휴식의 길은 그리도 짧았던가.

후날 틈을 내서 와보겠다 하신
그날을 못잊어 차마 못잊어
기다리는데 흰바위도 길목에 서있고
내물도 마중가듯 계곡을 뛰어내리는데
우리만을 이렇게 내세워주시고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신 길

한자욱 또 한자욱
깊은 생각에 잠겨 오르니
땅속 천길에도 그 진동이 미칠듯
하늘에서 내리쬐는 구룡폭포!
내 그만 감격에 목메여 소리침은
물의 제일경을 노래하고싶어선가.

못보면 한이라는 이 절경 앞에 두고
장군님 모시는 일에 빈구석 생길세라
오르시던 걸음을 선뜻 돌려세우신
어머님의 그 마음 그 뜻이 하도 높아
《아!》 참을길 없는 걱정을 터치노라

한평생 걸으신 머나먼 수만리
자신을 위해선 한자욱도 아니 걸으시고
오직 장군님만을 위하신 어머니
그 자욱이 여기 오솔길에 새겨져있고
그 정성이 만이천봉이우에 얹혀져있거니

아, 내 금강산에 부치꽃은 첫 노래는
어머님을 우러러 읊고싶은 노래
그 티없이 깨끗한 마음
그 불같이 뜨거운 충성
여기 산천에 깊이 배여있어

물은 그리도 수정같이 맑고
단풍은 그리도 불처럼 타오르니
그래서 금강산은 세계의 명산이라고...

끝없는 사랑을 안으시고

최준경

해방의 감격으로 들끓던
이 나라의 거리와 방방곡곡에
바뀌는 계절을 알려주듯
송이송이 첫눈이 내리는데

여기 고즈적한 해방산기슭
눈꽃 날리는 언덕길에
저물도록 서계시는 김정숙어머님
수도의 하늘너머 먼먼 장백의 산야로
해빛보다 따사로운 마음을 엮으시여라

푸른가지에 단풍이 물들고
단풍잎에 다 흰눈이 쌓이도록
아직도 다 찾지 못한 유자녀들 생각,
꽃을 봐도 별을 봐도 그립던 그 생각이
이날따라 깊어져 더욱 깊어져
가슴가득 차오르는 어머니의 간절함이여!

문득 더듬으면
못잊을 향일의 렬사들
광복의 한길에 피흘리고 숨질 때
아들딸의 미래를 부탁하던 그 간절한 말이
뽕안 눈발속에 쟁쟁히 젖어오고

또다시 더듬으면
그 언젠가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찾지 못한 유자녀들 생각에
드셨던 수저마저 놓으시던 그 조반상이
삼삼히 어려와 다시 어려와-

아, 정원의 소슬바람소리에도
자주자주 창문을 여시던 낮과 밤을 이어
오늘은 언덕길에 몸도 마음도 고이신 어머니

그 마음은 벌써 그 몇번
배고파 우는 아기를

젖품에 불러주는 친어머니같이
내가에서 뛰노는 철부지들을
저녁상에 불러들이는 친부모같이
불원천리 이국의 황토길로 달리셨던가

팔을 벌리고 서계시면
눈속에 떨고있을 그 어느 투사의 아들딸이
금방 달려와 안길것만 같아
흰눈 소리없이 버선목을 덮어도
선뜻 자리를 뜨지 못하시는 어머니 마음이여

달포전에 손수 지명까지 적어
대원들을 떠나보내시던 그 은정으로
고아들의 머리우에 평평 내릴
차디찬 눈도 다 불러 맞아주시듯
아 만리타향끝까지
사랑의 봄무지개를 꺾가시는 어머니 마음이여

불보다 뜨거워라
피바다 만리 혈전만리길에
부모들이 못다주고간 애무의 정을
승고한 의리로 꽃피워
산만큼 바다만큼 안겨주고싶으시여
저물도록 기다리시는 마음
구름넘어 달려가시는 마음
구만리 하늘가의 눈송이도 다 녹이시리니

오, 하늘땅을 합쳐도
천만 어머니품을 합쳐도 못비길 사랑
그 넓고 자애로운 은정의 요람으로
이제 밭벗은 더벅머리 유자녀들이
사랑의 봄무지개를 타고 들어서리라
어머니의 영원한 축복속에 안겨
만시름을 놓고
천만복을 다 안고
혁명의 피줄기를 역세계 이어가리라.

어머님의 고향길

홍현양

내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어린시절 맨발로 뛰어다니던
해방된 고향의 뜨거운 먼지길에
아득한 추억속에 아물거리건만
어머님의 사랑은 잊을수 없구나

술문을 높이 세웠던

내 고향

내 조국의 거리와 마을들이여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피나리보짐을 지고 떠나갔던 사람들
저마다 제 고향 제 집 주소를 적어두고 찾아들 때
나도 내 집 내 고향을 찾은 몸

한그루 살구나무

내 고향집 프락에서

백두의 만리광야

초연속을 헤쳐오신

김정숙어머님을 맞던 그날

나는 알리 없었구나

어머님께서만은 정든 고향을

찾지 못하시였음을...

나는 알리 없었구나

어머님께서 도리깨를 드시고

콩마당질을 함께 하시며

새 조국 건설의 봄노래를 심어주실 때

사랑하는 언니와 조카와 동생과의 상봉만은

아직도 먼 후날로 미루고계셨음을...

고향으로 가시는 길은

천리던가 만리던가

밀림의 우등불가

사향가속에 그려보시던 정든 산천

꿈속에도 못이던 오산덕의 백살구향기

다시 돌아오시는 길은

눈보라와 혈전의 고개넘어 또 고개

아, 그리도 보고싶고

그리도 밟고싶던 고향이건만

해방된 조국땅

사람들 저마다 제 고향 제 집을 찾고

사람들 저마다 부모처자를 만나

감격의 눈물 지을 때

어머님께서만은 그리운 고향길이

상봉의 그 기쁨속에 없었구나

얼마나 좋았으랴

어머님께서 오시였던 제사공장

하얀 김 서리는 기대앞에

사랑하는 언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어머님께서 오르시던 혁명학원의 언덕길로

귀여운 조카애가 웃으며 달려나왔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 땅우에 받들어 꽃피우시려

어머님께서만은

그토록 그리운 고향길을

천만사람의 심장속에

더 먼저 이어놓으셨구나

어머님께서만은

그토록 보고싶던 일가친척들의 모습을

해방된 인민의 웃음속에서

더 먼저 보셨구나

아, 세월이 흘러

내 머리에 흰서리가 내릴수록

못잊을 어머님의 고향길이 가슴속에 있어

해방된 그날

내 주소를 적어두고 찾아온 고향땅에

고향향기가 이처럼 목메이고

그날에 들어선 내 집 창가에

락원의 불빛이 꺼질줄 모르누나

부령의 갈림길

임성영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기억도 삭막해진다고 한다. 허나 그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더욱 생생하게 살아 오르는 숭고한 추억이 있다.

부령의 갈림길!-

얼마전 나는 답사차로 함경북도안의 혁명사적지, 전적지들을 돌아보면서 부령에 다녀온 일이 있다.

달리는 배스의 차창으로는 풍년든 낱알향기가 싱그럽게 실려들었고 높고낮은 산발들에 빨강제 물든 단풍이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왔다.

청진에서 떠난 우리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 회령의 유명한 백살구며 오산덕의 진달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김동무는 이번까지 회령에 갔다오면 세번째로 다녀온다고 손가락까지 꼽아가며 자랑을 퍼놓았다.

곧게 뻗은 신작로를 따라 한동안 기세좋게 달리던 배스는 부령역을 가까이하면서 속도를 늦추더니 마침내 가볍게 멈춰섰다.

《부령의 갈림길이다!》 차창밖을 내다보던 김동무가 소리쳤다.

순간 깊어지는 생각속에 나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해방의 기쁨 온 강산에 설레이고 새 조국 건설의 장엄한 진군이 시작되던 1945년 12월 14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고향 회령을 지척에 바라보시며 부령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신 력사의 갈림길이 바로 예가 아닌가. 어디서나 볼수 있는 수수한 갈림길이건만 나에게는 레사롭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방금전까지 배스안에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자못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며 김정숙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나지막한 언덕의 비문 앞으로 모여섰다.

해설원처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청진지구에서 정력적인 정치활동을 벌리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드시고 이 갈림길을 지나시여 부령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시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타고오신 목탄차를 여기 갈림길에 세우시고 무산령너머 고향의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잠시 깊은 감회에 잠기시였다. 동행한 항일투사들은 여기에서 지척인 고향집부터 다녀오시자고 김정숙동지에게 거듭 간절한 청을 올렸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리신듯 움직일 줄 모르시였다.

그것이 어찌 투사들의 심정뿐이었으랴.

어린시절 아름답게 피어난 살구꽃, 진달래꽃 사이사이를 누비시며 꽃놀이와 그네놀이도 하시고 부모님을 도와 이삭주이를 하시던 오산덕, 가난이도 피눈물 뿌리며 두만강을 건너가는 류랑민들의 행렬을 바라보시며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시던 오산덕, 그 오산덕을 생각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것이였다.

망양나루터의 모래불에 작은 짚신자국 남기시며 정든 고향을 떠나가실 때 어리신 마음에도 슬픔을 금치 못하시며 원쑤들이 없는 해방된 그날, 그리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굳은 맹세 다지셨던 김정숙동지가 아니시었던가.

귀기울이면 기슭을 치는 두만강의 여울물소리도 들려올듯 오산덕에 만발한 백살구꽃향기가 풍겨올듯...

정녕 꿈결에도 잊지 못하시던 고향 회령이시였다. 장군님 모시고 산에서 투쟁하실 때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고향을 생각하시었고 밀림속영지에서 유난히 밝은 달을 바라볼 때

면 고향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조약들 하나 하나가 눈앞에 삼삼하시여 잠못 이루신 밤이 그 몇밤이었던가.

밀영의 봄날이면 대원들에게 내 고향은 백살구 만발하는 아름다운곳이라고 것처럼 추억의 감회도 깊으시었고 조국진군의 그날에는 되풀령의 높은 령마루에 오르시여 회령은 어느쪽인가고 물으시며 장군님의 손길따라 백두산너머 저 멀리를 한없는 그리움에 차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

이윽고 김정숙동지께서는 투사들의 간청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나라가 해방되었어도 아직 우리 인민의 생활이 어렵고 할일이 많은데 어찌 고향부터 찾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새 조국 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공장복구에 떨쳐나선 노동자동무들부터 만나봅시다.》

아, 얼마나 가슴뜨거운 말씀이신가!

어린시절 두만강을 건느시며 눈물속에 바라보시던 그리운 고향땅도 지척에 있고 철길과 자동차길도 회령으로 나란히 뻗어있건만 위대한 장군님 받드시는 충성의 길 이어가시며 여기 갈림길에 서계시던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영상이 송엄하게 떠오른다.

항일의 그날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대원들을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묶어세우시던 그 신념, 그 의지로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고 성벽이 되시여 장군님을 보위하신 우리의 김정숙동지!

새 조국 건설의 그날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호위전사로, 만경대의 갈림길 지나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하신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신 김정숙동지이시였기에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 회령을 지척에 두시고도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부령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시지 않았던가.

불꺼진 전기로, 재가루만 훑날리는 공장복구장에 이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노동자들의 힘하게 터갈라진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다시 그들을 도와 밀차에 버력을 실어나르기도 하시고 동판도 맞들어올리시며 공장복구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고 규소철을 비롯한 합금철을 많이 생산하여 새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이 크나큰 믿음, 뜨거운 사랑에 고무된 로동자들은 김정숙동지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불씨로 열흘만에 카바이드를 뽑고 뒤이어 규소철을 생산해 내고야말았다.

더듬어 생각할수록 그날의 감격속에 파도쳐오고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에 눈굽이 젖어들게 하는 이 력사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누구도 선듯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충성의 한마음 고스란히 바쳐오신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념원 활짝 꽃핀 이 땅에서 행복에 겨우면 겨울수록, 기쁨이 넘치면 넘칠수록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가슴속에 사무쳐오는것이기때문이라.

참으로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성의 귀감이시였으며 우리모두에게 혁명을 보위하는 모범을 남겨주신 열렬한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였다. 하기에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충성의 그 이름 더 찬연히 빛나고있는것이다.

문득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두만강기슭에 꽃들은 피고
그리움은 가슴속에 넘쳐납니다

.....

갈림길저쪽에서 소년단원들이 소고대를 앞세우고 렬을 맞춰 씩씩하게 노래부르며 걸어오고 있었다. 학생답사대렬이다. 교복에 다림발을 세워 산뜻하게 차려입은 소년단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주체의 이 강산에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는 우리모두의 마음 충성의 꽃으로 만발하여 저렇듯 날마다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것이 아닌가.

아! 김정숙동지! 그이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받들며 어떻게 충성으로 모셔야 하는가를 빛나는 모범으로 가르쳐주시며 영원히 우리들을 충성의 위업으로 불러주신다.

력사의 땅, 부령의 갈림길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 어려있는 만경대의 갈림길과 더불어 길이길이 빛나라!

백두산에서

로응렬

비구름 순간에 흩어지더니
소낙비개인 백두산정에
신비롭구나
눈이 부시도록 해빛이 쏟아진다

장군봉에 무지개가 걸리고
천리수해에 천만구슬이 반짝인다
눈보라 비바람 속에 굴함없어
승엄함이 상징으로만 알았더니
아니구나 백두산아
너는 깨끗함의 정화로 솟았구나

투사들의 신념 티없이 맑아
그것이 어린 풀 한포기 돌 한덩이도
천만년 전할 소중한것이어서
너는 잠시도 쉽없이 눈비로 씻어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펼쳐보이는것인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미래를 안은 투사들의 마음에는 그늘이 없었다고
그래서 너는 천지의 푸른 물마저
구름의 숨으로 말끔히 닦아
빛나는 태양아래 반들어올리는것인가

그렇구나 백두산아
혁명의 한길에 천백번 쓰러졌어도
투사들은 임무를 먼저 생각하며 일어났더라
사형장으로 나가는 최후순간에도
너를 우러러 그들은
웃음 지으며 떳떳이 걸어갔더라

아, 티없이 맑은 충성의 마음은
세상의 소중한것중에서도 가장 소중한것이거니
그것을 지켜 백두산아
너는 사시장철 눈비속에 사는것이여라!

종소리

림종근

은은히 장엄히 울리어오는
인민대학습당의 시계종소리
어디서 어디서 울려오는가
대리석기둥들이 길길이 일어서고
은보석 무리들이 황홀경을 이룬
어느 방 어느 홀에서인가

사색의 심연속에
과학의 대문을 열어가는 로박사도
배움의 계단을 뚫아오르듯
탐구의 책장을 번져가는 대학생도
혁명의 진리를 익혀가는 외국의 벗도
승엄한 생각속에 머리를 들거니

창문너머 저 멀리
대동강기슭의 주체사상탑
봉화의 첫 불씨가 타오른 백두밀림-
뜨겁게 넘치는 수령님 사랑속에
조국의 미래가 꽃피나던 아동단학교
태양의 행성들이 자라던 군정학습의 밀영
혁명의 그 귀틀집에서인가

수령님 우러러
온 나라의 뜨거움이 달려오는속에
연필문제가 첫 의정에 올랐던
력사의 잊지 못할 그 회의장에서인가
돌격선의 전사들을 학원으로 불러주신
수령님의 그 사랑에 종소리도 목메이던

백송리의 그 트랙에서인가

아! 어버이 우리 수령님
불길속에서도 빈터우에서도
학습을 공민의 첫 의무로 정해주시고
사람들을 나라의 기둥으로 안아키우셨거니
위대한 그 품속에서
조국은 빈궁과 락후를 털어버리고
번영과 문명의 상상봉에 올라섰거니

종소리 종소리
생각많은 종소리-
무리등이 웃고 대리석기둥들이 일어선
어느 방 어느 홀에서 울리는게 아니구나
찬란한 력사의 갈피갈피에
천겹만겹으로 꼭 차 흐르는
어버이 그 사랑의 바다에서 들리누나

들려오누나
지난날 너무도 못살고 못배운 인민

누구나 마음껏 배워 잘살게 하시려
이렇게 세계의 하늘 높이
인류 문명의 대전당
인민대학습당까지 세워주신 수령님
그 크나큰 사랑의 품에서 울려오누나

그래서 저 시계종소리
이리도 은은하고 장엄한가
그래서 로박사도 대학생도 외국의 벗도
저리도 설레이는 가슴 진정 못하고
감격에 목메이는가

아! 천만의 심장을 하나로 흔들며
공산주의 새날로 힘있게 부르는
위대한 사랑의 종소리 종소리
울려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충성의 별무리로 키워내며
울려라 주체의 진리로 세계를 깨우쳐
자주화의 새 봄을 지구우에 불러오며-

밤은 깊어도 외 1 편

리 석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진행한 협의회 참가하고
평양에서 돌아온 날 저녁
당비서동무 집으로 청하였네
《혁신》쟁 우리들을

광산기사로 일한다는 맏아들 생남하였을가
재등너머 출가한 둘째 딸
첫나들이 나왔을가
저마다 궁금하여 한마디한마디

우리만 온줄 알았더니
지배인, 기사장동무도 왔구나
저기 《전진》쟁 욕심쟁이 친구들도 왔네구려
아니 로천쟁 돌격대도 왔으니
온 탄광이 여기에 다 모였구나

저마다 억측과 승벽내기로 방안이 떠갈듯
호탕한 웃음판 벌어졌는데

어인 일인가 우리 당비서동무
보기만 해도 취기가 살살 감도는
평양술, 창광술...
잔마다 넘쳐나게 부어놓으니

그 언젠가 《전진》쟁 저 친구
소대장 결혼식에 갔다
옆에서들 추어주는통에
한잔두잔 받아마시다가 입쟁시간 지키지 못한
일로

엄하게 타이르던 당비서동무
분기상금 타던 날
선술집 찾아가던 박아바이를 나무라며
일깨워주던 일
옛그제 같은데
오늘은 웬일인가
모두들 들라고...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탄부들이 수고한다고
친히 이 술을 보내주시었소-
-아버이수령님께서... ?!

아, 평생을 사랑만 받아오면서도
수령님께 기쁨 한번 드리지 못한 우리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술을 받다니
.....

밤은 깊어도
감격에 목메여
고마움에 눈물이 가리워
서로서로 잔을 들넘 잇은듯

흐느낌소리만이 방안에 한가득

아,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날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사랑
천백번 갇고갇은들 어이 다 갇으랴!

수령님께서 언제어디서나 보실수 있게
우리 석탄산 높이높이 쌓아올리세나
어서 들라고 잔을 권하는 당비서동무의 말
우리 석탄산을 높이높이 쌓아올리세나
아, 그 말만이 담벽같은 탄부의 가슴
더 더욱 뜨겁게 하는구나

그 마음들에 받들려

(광부들과의 방송야회에서)

온 장내를 뒤흔드는 박수를 받으며
그대들은 연단에 나선다
랑만에 넘친 얼굴들과 얼굴들...
볼수록 미더운 모습들에서
들끓는 막장을 그대로 본다

소박하고 웅심깊은 목소리
그대로 충성의 발파소리런듯
깊어져가는 막장이
언제나 첫 출발선이 되며
하루에도 수십번 우뢰를 터치고
갱막장을 떠날수 없었다는 뜨거운 마음들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앞에서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맹세다질 때
뜨거운 눈물 흘린것은 고속도소대장만이 아니었
다
광차운전공, 압축기운전공의
미더운 불에도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실패인들 그 열마였으랴
우리 당중앙이 안기여준 대담과 담력으로
대차식이동압축기를
막장에 그대로 통채로 옮겨놓았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

쏟아지는 석수를 막아
서슴없이 담력이 되고 지붕이 되던
저 마음들이 노을로 되고
어머니조국의 기쁨이 되여
은빛궤도우로 끝없이 끝없이 실려가는것이구나

아, 수령님과 우리 당중앙에 기쁨을 올린
광부의 그 마음 그 자세
우리를 충성의 위훈으로 불러주는구나
그래선 온 조국이 광부 그대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는구나

노래에 대한 추억

(한 교원의 어린시절)

류정옥

나는 노래시간이면 자주 지적을 받곤하였다. 배워주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여러가지 장난에 팔려있었던것이다.

그 시기 나에게 있어 고무총이며 못, 지남석, 칼 같은것은 더없이 귀중한 《보물》이었으며 《재산》들이었다.

노래공부시간이면 그것들이 나의 흥미를 《독점》하곤하여 문제가 생기곤했다.

그날도 나는 고무총때문에 《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긴 참때때문이기도 하였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미루나무 한그루가 눈에 들어오곤했다.

해방직후 마을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짓고 기념으로 떠다 옮겨심은 나무였다. 바람결에 살랑거리는 잎새소리가 교실안으로 들어왔다. 우듬지에는 새들이 날아와 재잘거렸다. 고것들은 고무총을 가진 나를 못견디게 유혹하였다. 한방이면 영악없이 알아볼수 있을것 같아 빨리 휴식종소리가 나기를 기다렸지만 아이들이 와 밀려나갔을 때는 벌써 새들은 멀리 달아나버리곤하여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날 나는 선생님의 풍금소리를 귀밖으로 흘려보내며 어떻게 하면 조것들을 한번 맞쳐볼수 있을가 하는데만 열중하던 나머지 책상밑에서 빈고무총을 겨누고 한쪽눈을 지그시 감았다.

별안간 풍금소리가 푹 멎었다.

나는 얼핏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나는 황급히 고무총을 바지주머니에 쑤셔넣었다.

《영호학생!》

선생님의 엄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다음소절을 혼자 불러보세요.》

나는 엉거주춤 일어섰으나 입은 열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독창》에 뽑혔다고 말하였다. 아이들은 마치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듯이 술렁거리며 나를 주시하였다. 나는 노래에도 자신이 없었지만 마치 이 세상에서 노래가 푹 제일인것처럼 《까다롭게》 구는 그 《인상나쁜》 선생님에 대한 불만에 더욱 입을 뽕했다.

《어서 불러보세요.》

《전 음감이 둔해서 안됩니다.》

나는 통명스럽게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음감이란게 무엇이예요?》

《…………》

나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했다.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음감이 둔한 자유주의가수》란 말을 들었던것 같은 생각이 들뿐이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저 그렇습니다.》

나의 이 애매한 대답에 송이선생은 웃고말았다. 엄격하려고 애썼지만 그 고운 눈이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벌공부로 《나머지공부생》이 되는것만은 레외로 되지 않았다.

송이선생은 칠판에 가사를 써놓고 밑줄을 그어가며 그 뜻을 풀어주었고 익혀주었다.

백두산 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빠꾸기 빠꾸빠꾸

아 장군님 주신 땅

…………

《우리 나라에 먼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의 또 할아버지때부터 풀지 못하던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실컷 농사를 지어보는것이였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에게 단 한치의 땅도 주지 못했어요.

<발갈이노래>는 **김일성** 장군님으로부터 그 크나큰 소원이었던 땅을 받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다함없는 기쁨과 행복을 담고있어요.》

…………

노래때문에 《나머지공부》를 시킨다는 일은 희귀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나는 그때 그 모든것을 송이선생이 나에게 주는 《벌》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겼었다.

그것이 해방된 조국땅에 펼쳐진 새 생활의 귀중함과 아름다운 노래의 진실한 힘을 어린 나의 녀속에 새겨주려는 교육자의 깨끗한 량심이며 그 말씀을 지키려는 성실성이라는것을 나는 알지 못했었다.

나는 원래부터 나의 학급담임이며 우리 학교에서 누구보다 노래를 잘 가르치는 송이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해방후 내가 인민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우리 학교에 왔다. 그때 그는 까만 목세루 치마저고리를 입고있었으며 얼굴색이 맑고 속눈썹이 긴 눈이 무척 아름다운 단발머리 교원이었다.

나에게 있어 그 인상은 해방전 우리 마을에서만 하나뿐이었던 양조장집 딸을 연상케 했었다.

그는 베치마적삼에 짚신을 끌고 해종일 피약벌에서 시달리는 우리 누나같은 처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포도넝쿨아래서 소설책을 보든가 풍금이나 치군하였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우리 누나를 생각하며 그녀자를 무척 밍살스럽게 보았던것이다.

송이선생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의 또 한가지리유는 노래공부시간을 장난질로 대한다고 《벌공부》를 시키기때문이었다.

그날 나는 기분없이 집으로 돌아가고있었다. 납작한 책보를 잔등에 엮걸머지고 긴 회초리로 길가의 풀실을 후려치며 걸었다.

문득 뒤에서 발걸음소리가 났다. 사뿐사뿐 다가오는 잿은 걸음이었다. 무심중 돌아보던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송이선생님이었던것이다. 나는 고개를 외로들고 길을 비켜섰다. 그가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렸다. 이 길을 따라 조금 더 가면 그의 하숙집이 있었다.

한데 그는 지나가지 않았다. 나와 가지런히 서게 되자 네 어깨에 한손을 얹어 가까이 당기며 같이 걷자고 하였다.

뜻밖의 일에 나는 몸을 오웅 그리며 빠져나오려고 하였다. 그럴수록 그는 더 살뜰하게 껴당겼다. 땀도 배고 먼지도 오른 나의 무명적삼 어깨에 스스럼없이 손을 얹은 그가 이상스러워 흘끔 쳐다보기까지 하였다.

그의 입가엔 방시레 웃음이 어렸다. 마치 제깁에 뿌루통해서 뒤트는 동생을 대하는 누나들처럼.

나는 그의 그러한 표정을 처음 보는것 같았다. 교단에 선 그는 언제나 위엄있고 엄격한 선생으로만 보였던것이다.

《영호는 커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나는 그때 장래에 대해 생각해본 일도 없었고 또 꼭 해보고싶은 일도 딱히 없었다. 허지만 음악가나 음악선생 같은건 될수 없으며 되지도 않으리란것만은 명백했었다. 그것도 실은 일종의 반발심에서 생긴 결심이였을것이다. 그래서 불쑥 한다는 소리가 《전 노래 같은건... 안될것 같습니다.》 하였다.

선생은 허리를 꼬부리며 재미있게 웃었다.

《호호... 누가 뭐 음악을 꼭 하래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나머지공부까지 시키는가?

좁은 오솔길에는 먼지오른 나의 넓적신과 발등에 끈달린 날씬한 구두가 나란히 놓이군하였다.

《영호, 노래란 그저 흥이 날 때나 부르는것이 아니예요. 노래는 곧 영호가 살고있는 이 땅이며 이 생활이예요. 봄에는 밭갈이노래가 있고, 가을에는 풍년의 노래가 있으며 노래는 이 세상의 모든것을 담고있어요.》

나는 선생님의 말을 다는 리해해줄수 없었지만 어찌선지 그가 보기와는 달리 껍 친절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우리는 산기슭을 따라 구불구불 휘여간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해빛은 따뜻하였다. 별안간 숲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오-호-휘휘잇!》

송이선생은 그 누군가를 찾듯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휘파람 새입니다.》 《휘파람새!》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귀를 기울였다.

《저건 무슨 새소리에요?》

《메추라기입니다.》

《저건?》

《피꼬립니다.》

《피꼬리가 저렇게 울어요?》

《피꼬린 열두가지 소리를 낸답니다.》

나는 으쓱해서 알고있는 새소리들에 대해 신이 나서 엮어댔다.

《선생님,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들어보십시오. 우리 마을엔 말하는 새가 있습니다.》

《말하는 새라니요?》

《한 옛날에 못된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며느리에게 쪼고만 쌀꼭박을 주었기때문에 늘 며느리밥은 모자랬대요. 그 며느리는 끝내 굶어서 죽었는데 그 혼이 쪽박새가 됐대요. 그래서 새벽에 밥지을때 쪼이면 지붕우를 날아돌며 운대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하는것만 같아요. <쪽박 바꿔주 쪽박 바꿔주.> 하고말이예요.》

송이선생님은 내 말을 처음 듣는듯이 흥미있게 귀를 기울이며 미소짓고있었다.

《영호 어떻게 그런걸 알고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서 옛이야기를 들은후 늘 새소리에 귀기울려 들었습니다.》

기쁨어린 눈길로 나를 내려다보던 선생님은 뜻밖의 말을 하였다.

《영호는 결코 노래를 모르는게 아니예요.》

나는 의문을 담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선생님은 내 어깨를 다독이며 평퍼짐한 들판을 이윽히 바라볼뿐이었다.

후치질이 한창인 강냉이밭에서는 소방울소리가 해빛이 쟁글쟁글 떠도는 들판우로 구울려퍼졌다.

마치 명랑한 종지기가 애기종을 치듯이 그 소리는 자유롭고 유쾌하였다.

호박꽃이 노랑게 맺힌 울바자들레 터발들에는 보라빛 감자꽃이 나비들을 불러들이고 산기슭에서는 가벼운 바람이 술술을 흔들었다. 그소리는 개울들이 쇠쇠 사뭇치는것 같기도 하고 샘물이 주절주절 흐르는것 같기도 했다.

《영호 목이 마른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보니 정말 나는 막 달려가 배를 땅에 넘적 붙이고 벌떡벌떡 마시고싶은 생각이 다 들었다.

풀메뚜기가 발등을 간지럽히며 보리밭으로 뛰어들었다. 러질듯이 영글어가는 보리이삭이 휘청거렸다.

《감자 찌는 냄새가 나는것 같기도 하고 구수한 보리밥 냄새가 풍길것 같기도 해요,》라는 선생님의 말에 나는 코를 벌름거리보았지만 그런 냄새는 없었다.

나는 선생님을 새로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송이선생님도 감자와 보리밥으로 살아온 사람인가 부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째선지 그런 생각은 나를 무척 기쁘게 하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쇠쇠 사뭇치는것 같기도 하고 돌돌 흐르는 시내물소리 같기도 한 숲의 설레임소리가 들관으로 지나갔다. 이삭이 영글어가는 보리밭위로 뽀얀 은빛 파도가 굽실거리며 밀려갔다.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것을 기억한다.

이것이 노래일까?... 이것이 음악이란것이 아닐까...

송이선생님에게 노래가 무척 많았다. 나에게 《김일성장군의 노래》며 《애국가》를 배워준 선생도 그였고 재미있고 활동적인 민요곡들로부터 새조국 건설에 대한 수많은 노래를 배워준이도 그였다.

그는 낮에는 학교에서, 밤이면 성인학교들에 노래를 안고 찾아다녔다.

저녁에는 저녁대로 우리 학생들을 가창대로 불러냈다.

문맹퇴치때의 일이다. 나는 이 일에도 말썽이었다. 기분에 따라 드문히 꺾어먹곤하였다. 그러던 나의 《보물》들과 《재산》들이 죄다 책상위에 올라앉았다. 나의 운전에 따라 요술방망이 같은 저 남석은 칼과 못, 펜촉들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갔다.

나에게는 그것이 마치 우리 가창대 대렬처럼 생각되어 저절로 중얼중얼 노래가 나왔다.

...앞선 님은 이끌어서 뒤선 님은 따라서서...

아이들이 와 몰려왔다. 그들은 나의 책상을 둘러싸고 저마다 《운전》해보겠다고 싱갱이였다.

갑자기 쉬쉬 하며 교실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교탁앞에 서계셨던것이다.

아이들은 쩍짜게 제자리로 물러가고 나는 《재산》들을 재빨리 감춰버렸다.

나는 선생님의 부름에 엉거주춤 일어섰다. 선량하고 친절하듯싶으면서도 어딘가 《자유》를 구속하는듯한 위엄과 엄격성이 숨어있는 선생님의 눈길이 두려웠다. 뭔가 따질듯싶었다.

나는 책상모서리에 손톱금을 그으며 그의 충고를 기다렸다. 헌데 뜻밖의 말이 들렸다.

《영호네 어머니는 글을 아세요?》

나는 영문을 알수 없어 멍해있다가 그 뜻을 미처 생각해보지도 않고 레사롭게 대답했다.

《편지 같은것도 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호학생은 책상우에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부터 문맹퇴치를 선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열성이 좀 부족해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키득거렸다. 그제서야 나는 질문의 뜻을 알아차렸다.

나는 키드득대는 아이들을 흘겨보았다.

(저네 부모들은 얼마나 잘 안다구.)

《까막눈으로 살던 우리 부모들이 글을 배우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이예요. 영호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자리에 누우려던 어머니도 공책을 끼고 나설거예요. 노래라는것은 다만 부드럽고 아름다운 강정만을 주는것이 아니예요.

위대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총탄 한방은 원쑤 한놈의 심장을 뚫을수 있지만 노래 한곡은 총탄이 미치지 못하는것에서 수백만 사람의 심장을 울려주는 훌륭한 무기라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날저녁 우리 어머니는 또 성인학교에 안가실 차비였다.

나는 어느때 없이 일찌기 가창대에 나갔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이는 쪽쪽 우리 집 마당으로 데려왔다.

《너희들 오늘 내가 욕먹을 때 웃은 값으루 우리 집 문맹퇴치를 책임져야 해.》

나는 울려메였다. 물론 선생님의 말을 깊이 리해한것은 아니다. 그 누구에 대한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종의 분풀이였다.

어쨌든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다.

글장님 된 애달픔을 한탄만 하지 말고.

.....

우리 집 싸리바자를 둘러싸고 련이어 불려댔다. 부른다기보다는 룡절반, 웃음절반을 섞어가며 신이 나서 웨쳐댔다.

돼물 웅배기를 들고나오던 어머니가 눈이 둥그레졌다.

《엄마가 성인학교에 가기전엔 물러가지 않을테예요.》

어머니는 어이없어 웃으시였다.

《아유 저너석들을 어찌나?!》

성인학교라면 무엇이든 구실이 많던 어머니가 일찌감치 뒤문으로 나가시는걸 보고 나는 흐뭇해서 서있었다. 이때 누군가 지켜보는듯하여 문득 돌아보았다. 송이선생님이 내옆에 서있었다.

가창대가 무슨 장난질인줄 아는가고 또 꾸중을 듣지나 않겠나 해서 그의 눈치만 살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선생의 눈길은 웃음을 숨기지 못하였다.

어제선지 그후부터 나는 매일밤 가창대에 나갔다.

가창대 대렬 맨앞에는 늘 송이선생님이 서있었다.

대렬 선두에 선 선생님의 모습은 뚜렷하였다.

우스름저녁이나 달밝은 밤에 그의 어깨에서 흘날리는 단발머리가 나에게 마치 대렬의 기발처럼 생각되기도 하였다.

.....

일하고난 틈을 타서 배우고 또 배우자
앞선 님은 이끌어서 뒤선 님은 따라서서

.....

선생님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판차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노래에 발맞추어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기운차게 굴러가는 기차바퀴 같다고도 생각하였다.

이것도 모두다 장군님의 덕이라네

.....

우리 대렬을 옆에서 바라본다면 꼭 그럴것만 같았다.

×

노래공부시간이었다.

송이선생님은 《발같이 노래》 3절을 배워주었다.

민주의 새봄엔 만풍년 불러불러

장군님 은덕에 천만년 보답하세

.....

나는 처음 얼마동안 똑바로 앉아서 열심히 따라불렀다.

노래가 두세번 반복되자 나는 차츰 지루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전전시간들에 배운 1절과 2절을 처음부터 다시 부르게 하였다.

백두산 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는새 창밖으로 쏠렸다.

미루나무에 앉은 새들이 눈알을 되룩거리며 나를 들여다보고있었다.

살랑거리는 나무잎도 재잘거리는 새도 나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노래부르는것 같았다.

창문은 열려있었다. 내옆에 앉은 애도 내 눈길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엔 내 옆구리를 찌르며 고무총을 꺼내라고 소근거렸다. 그러자 앞의 책상에서도, 옆의 책상에도 나를 돌아보았다.

별안간 풍금소리와 함께 선창을 부르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푹 멎었다.

선생님의 눈길과 부딪친 나는 그만 고래를 떨구고말았다. 말없이 지켜보는 그 눈길이 말할수 없는 서글픔을 담고있는것만 같이 생각되었기때문였다.

틀림없이 또 《독창》을 시킬것이였다. 부르기 싫더라도, 학급의 웃음거리가 된대도 이번엔 마지막까지 성의껏 잘 부르리라 마음먹고 나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개를 들지 못한채 《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뒤였다.

《영호학생 앉으세요.》

뜻밖에도 그 목소리는 조용하였다.

나는 말귀를 못알아들은 사람처럼 선생님을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선생님은 어느새 풍금에서 물러나 교탁앞에 서계시였다.

《어서 앉아요》

나는 얼떠름해서 도로 자리에 앉았다. 《독창》을 시키지 않는 일이 놀라왔다. 저녁에 《나머지공부》도 시킬 기색이 아니였다.

《오늘 노래공부는 이만 하겠어요. 그대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여러 입들에서 야-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뜻밖의 《선물》이였다. 모두들 인차 조용해지며 선생님의 입만 지켜보았다.

그날 선생님은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싸우신 전설같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중에도 그때 무척 흥미있게 들은것은 간삼봉 전투의 《호박대가리》 이야기며 일제놈들이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잤나.》 하고 한탄했다는 부후물전투 이야기였다.

어린 가슴들을 신비롭게 올려주는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에 심취되고있을때 맨앞에 앉은 한 학생이 문득 일어났다.

《선생님은 장군님을 뵈은적이 있습니까?》

교실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장군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있는 선생님이였기에 꼭 비웠으리라 기대의 눈길들이 그를 주시하였다.

《비웁지 못했어요.》

실망어린 눈동자들이 오고갔다.

《하지만 우리모두는 장군님의 품에서 살고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학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농사짓는 땅도 우리가 마시는 맑은 공기도 다 장군님께서 주셨어요.》

선생님은 마치 노래라도 부르는듯 밝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장군님께서 백두산줄기줄기와 압록강 굽이굽이에서 피흘려 싸우셨어요.》

아쉽게 휴식종이 울렸다.

나는 얼마간 송이선생님과 헤어지게 되었다.

전쟁이 일어났던것이다. 전선으로 통하는 신작로를 낀 우리 마을은 폭격이 심했다. 학교가 무너지고 불타버렸다.

나와 친했던 미루나무가 천정이 무너져내리고 벽체만 남아있는 우리 교실을 쓸쓸히 지켜보며 외롭게 서있었다.

다시는 공부를 해볼것 가지 않은 슬픈 생각이 들었다.

폭격때문에 늘 불안속에 있던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책보를 들려 외가집으로 쫓아보냈다.

외가집 동네는 산과 산이 거의 맞붙다싶이하여 하늘의 너비가 골짜기를 흐르는 개울만 하다고들 하는 외진 산골이였다.

외가집에서의 일과는 따분하였다. 할머니는 멀리서 비행기소리만 들려도 감자음에 가두어넣고 몇시간이건 움쩍을 못하게 하였다.

그토록 나의 흥미를 끌던 지남철 《기차》 놀이도 재미없었고 고무총사격도 무의미했다. 그것들을 다 외사촌동생에게 주고말았다. 불현듯 지루하던 그 음악시간이 그리워지기도 하였다. 때로는 송이선생님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듯하였다 귀를 도사려보기도 하였다. 노래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마을이였다.

숲의 설레임도 있고 새들도 우짖었지만 송이선생님을 따라 오솔길을 걸을 때처럼 신이 나지도 않았고 그것이 노래처럼 생각되지도 않았다.

나는 그때 그것이 무슨 감정이었던가를 후날에 가서야 알았다.

내가 송이선생님을 무척 그리워했으며 그의 노래를 몹시 듣고싶어했다는것을, 노래의 힘, 그것은 생활의 생기였고 젊이였으며 기차와도 같은것이라는걸 나는 소년시절이 끝나는 때에야 알았다...

외가집에서 따분한 생활이 흘러가던 어느 하루 지리교과서를 뒤지다가 조선지도를 보게 된 나는 더더욱 그대로 견딜수 없다는 충동을 받았다.

우리 학교 미루나무결에는 송이선생님이 크게 그려붙인 조선지도가 있었다. 우리들은 그 지도에 인민군대의 진격로를 따라 마분지로 만든 죄꼬만 공화국기발을 꽃아나갔다.

송이선생님이 발기한것이다. 그 기수로 되는 아이는 크나큰 영광이나 지닌것 같았다. 마치 자기 자신이 그 도시 해방전투에 참가하여 공화국기를 추켜들고 달려가는 기분인듯 싶었다.

선생님은 그날 공부를 제일 잘한 학생에게 그런 권한과 기쁨이 차례지게 했었다. 나는 아직 한번도 그런 기쁨을 가지지 못했었다. 이렇게 감자음에만 박혀있다면 한번도 기발을 꽃아보지 못한채 전쟁이 끝나고말것만 같았다.

다음날 나는 할머니 몰래 도망치다싶이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는 우리 집 뒤산골짜기에 반토굴을 짓고 움겨졌다. 늙은 참나무와 소나무들로 자연위장된 창문들이 겨우 하늘을 뚫고 쳐다볼수 있는 교실들이였다.

미루나무옆에 있던 조선지도는 여기 참나무결에 붙어있었다. 기발을 꽃을 자리는 겨우 손바닥만큼 남아있었다. 몇시간만 더 진격하면 남해끝까지 죄다 공화국기가 날릴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전쟁이라는 불구름이 하늘땅을 뒤덮고 학교를 날려버렸지만 송이선생님의 교수안만은 애초에 건드리지 못하였다.

《썩썩기》가 풀술을 훑으며 돌아치는 아츠러운 소리가 귀속을 긁어댈 때도 선생님의 목소리는 멎지 않았다.

《...》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국어교과서를 펼쳐든 선생님은 송진내풍기는 투박한 책상사이를 천천히 오가며 읽어주었고 우리는 따라 읽었다.

《넙고푸른 들에는 오탁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명승의 나라》...

먼 폭음에도 통나무 새짚으로 흙이 부실부실 떨어지는 교실 천정에 단발머리가 닿을것만 같던 선생님의 모습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추억된다.

나는 그때 내가 사는 나라 내 고향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했다. 그 어느 나라에 가도 다 따사로운 햇빛과 맑은 공기가 있고 숲이 설레이고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지며 내가 좋아하는 온갖 새들이 있을줄 알았다. 명절때나 생일때면 떡그릇이 오가고 밥 한술이라도 나누어먹어

야 직성이 풀리는 화목하고 인정많은 이웃들이 있는것으로 알았다.

세상에는 놀랄만큼 별스러운 나라들이 많드라는것을 나는 그 국어시간에 송이선생에게서 처음으로 알았다. 가도가도 나무 한그루 없는 메마른 나라, 무더위나라, 강추위나라, 습기로 가득찬 안개의 나라, 인간이 야수로 되어 남의 나라를 략탈하고 침략하는 나라들이 있다는것이다.

《…그 침략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살륙하고 략탈을 감행하고 있어요. 허나 놈들은 참패를 면치 못할거예요. 우리에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십니다.》

그날 우리 마을은 어느때없이 심한 폭격을 당했다.

나는 그날을 지금도 가슴아프게 또 인상깊게 추억하고있지만 앞으로도 잊지 못할것이다.

폭격에 송이선생님이 부상을 입고 읍병원으로 실려갔다. 마을 한복판에 있던 집들이 또 여러채가 날아갔으며 마을의 큰 밀천이고 재산이었던 소가 세마리나 죽어넘어졌다. 그중에는 우리 집 암소도 있었다.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 외양간에서 끌어내올 때면 선량하고 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곤하던 우리 집의 정든 《식구》였다. 밭을 갈고 벼단을 실어들였고 애국미를 심고 머나먼 도에까지 다녀온 소였다.

아버지, 어미는 손맥이 풀려 쓸쓸히 주저앉았고 온 마을이 불안과 실망에 잠겼다.

어둑어둑 황혼이 깃들자 온 마을이 더욱 슬픔에 잠긴것만 같이 나는 생각되었다. 그것은 울적한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드는 어둠이 온다는 그 자체만이 아닌듯싶었다. 래일부터는 송이선생님을 볼수 없으리라는 그것때문이었을지 모른다.

그때 누가 맨 먼저 생각해냈던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학급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가보자고 모두 모여 나왔었다.

한데 우리가 마을 어귀도 채 벗어나지 못하였을 때 선생님이 우리앞으로 마주오고있었다. 그는 봉대를 감은 왼쪽다리를 잘숙거렸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둘러쌌다.

그는 울상을 짓고있는 우리들을 둘러보며 밝게 웃었다.

《탄알이 조금 스쳤을뿐이에요.》

《………》

우리는 선생님이 걸을수 있다는데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그가 몹시 힘들게 걸어온다는것을 모르지 않았기에 웃는 얼굴들은 없었다. 도리어

몇몇 처녀애들의 눈가에는 이슬이 대롱대롱 맺혔다.

선생님은 애정어린 눈길로 우리를 다시 둘러보며 말했다.

《학생들, 우리 노래를 부르자요.》

《?!…》

나는 선생님의 말이 리해되지 않았다.

마을에 온통 안정이 깨지고 불안과 《슬픔》이 떠도는데 노래를 부르다니?!…

《우리가 이렇게 침울해있으면 미국놈들이 좋아해요.》

선생님의 눈길은 나에게 와서 멎었다.

《영호학생, 노래를 먼저 떼세요.》

나는 당황하였다. 한번도 선창을 떼본 일이란 없었다. 그러나 어쩔선지 마치 노래시험장에라도 선것처럼 엄숙해지면서 꼭 노래를 불러야만 될것같았다. 허지만 무슨 노래를 떼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무엇인가 속삭이는듯싶은 선생님의 눈길과 마주 치는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발갈이노래》에 대한 생각이였다.

《…우리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때부터 풀지 못하는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어느《나머지공부》시간에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뒤, 그로부터 얼마후 나는 송이선생님의 부모들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 필생의 소원이였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채 일찌기 가버렸다는것을 알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발갈이노래》를 좋아한다는것도 알았다.

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싶었다.

백두산 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

우리의 노래는 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산열을 따라 울려갔다.

대렬은 천천히 움직였다. 다리를 저는 선생님이 맨앞에 섰기때문이다. 행진곡이 아니여서 발이 잘 맞지는 않았지만 노래소리는 쉼없이

여기저기 반토굴 출입문이 열리고 조무래기 동생들이 바라나와 손벽을 치며 해해거렸다. 뒤이어 어머니들이 물동이를 이고 샘물터로 나갔고 아버지들과 아버지들은 서로 찾고 떠들며 민주선전실로 밀려갔다.

선생님은 어느새 내곁에 다가와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호는 정말 노래를 잘 알아요.》

우리는 더욱 신이 났다.

………

민주의 새봄에 만풍년 불려불려
장군님 은덕에 천만년 보답하세

마을엔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나싶게 생기와
활기가 되살아났다.

아-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충성의 한마음 발같이 하세

그날밤 농맹회의에서 돌아온 어머니의 얼굴은
낮에보다 썩 젊어진것 같았다.

《송이선생님이 역시 훌륭한분이구나. 너희들
노래소릴 들으니 썰렁하던 가슴에 온기가 돌구
아무것도 잃어버린게 없는것 같더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른처럼 상대해서 이야기
한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그날밤 선생님이 어째서 《영호는 노래를
잘불렀다》고 하지 않고 《노래를 잘 안다》고 했
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것은 선생님이 나에게 준 두번째 칭찬이었다.
언젠가 들길을 걷던 날 첫번째 칭찬도 그러했다.

나는 그 말을 세월이 썩 흘러간 뒤에야 깨달았
다.

귀중한 우리의 생활을 사랑하고 지켜가려는 선
생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맞혔기때문에 그가
몹시 기뻐한것이였을거라고.

그때가 아마도 노래란 흥겨울 때나 부르는 오
락이 아니란걸 이해했을 때일것이다.

조선지도의 기발은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나는 끝내 기발을 쫓아보지 못한채 다시 외가집
으로 가게 되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
된것이다. 몇달이 지났다.

노랑고 빨간 락엽이 깔린 고개길을 넘어갔던
나는 새하얀 눈을 밟으며 마을로 돌아왔다. 송이
선생님은 없었다. 그의 노래소리도,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도 들을수 없었다.

나는 마을사람들에게서 송이선생님에 대한 마
지막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교파서와 학적부며 책들을 뒤울안에 묻고 하
숙집 마당으로 돌아서던 선생님은 《치안대》놈을
앞세운 미군장교놈과 맞다들었다.

《치안대》놈이 장교를 돌아보며 뭔가 일러바쳤
다.

《이 녀자입니다.》

장교놈은 흉물스러운 표정으로 선생님을 훑어
보았다.

《치한대》놈이 또 지절댔다.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노래를 꽤 부른다지?》

《그렇습지요!》

일순간 겁에 질렸던 선생님은 놈들을 외면하여
고개를 돌려버렸다.

《겁낼건 없소. 우린 선생을 체포하러 오진 않
았소. 선생이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한가지 부탁
하러 왔소.》

송이선생님은 당황해지려는 마음을 솟구치는
증오심으로 눌렀다.

《전 아무런 부탁도 들을수 없다는걸 선언해
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나 단호하였다.

《아하, 미군 어른들의 요구에 불복하는건 좋지
않다는걸 명심하는게 좋겠소.》

그날 놈들에게 끌려간 선생님은 다음날 무너지
다 남은 교실에 갇히었다.

천정이 무너져내리고 벽체만 남아있는 영호네
교실이였다. 아침마다 《학생들 안녕하세요.》하
고 답례하며 선생님이 자신있게 올라서던 교단이
흙먼지와 기와장조각들 속에 반나마 묻혀있고
깨여진 풍금건반들이 널려있는 교실이였다.

선생님은 마치 배개를 베듯이 그 교단 한귀퉁
이에 머리를 박고있었다.

희고 맑은 얼굴에는 피가 말라붙고 늘 칼날같
이 다림발이 서있던 치마주름은 마구 꾸겨지고
흙투성이가 된채 선생님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있
었다.

널판자를 가로세로 질러박은 창문틈사이로 들
여다보고있는 아이들의 애타는 눈동자를 선생님
은 느끼지 못했다.

아이들은 저쪽 출입문에 서있는 보초놈의 눈을
피해 밥چه기를 들고 왔다. 초조하고 안타까와난
애들은 귀속말로 선생님을 불려도 보았지만 소
용이 없었다. 그들은 할수없이 주먹밥을 창문 틈
사리로 들여던졌다. 밥몽치는 선생님의 손 가까
이에 떨어졌다. 허나 선생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그때 외가집에 갔던것을 오래도록 후회하
였다. 그날 송이선생님이 좋아하는 《발같이노
래》를 불렀다면 그는 틀림없이 정신을 차렸을것
만 같이 생각되었다.

나의 노래를 들은 선생님은 무척 기뻐하셨을것
이고 나는 기쁨이런 선생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았을것이다.

선생님이 정신을 차린것은 아이들이 보초놈의
순찰에 몸을 피한 뒤였다.

그는 밥چه기를 썬 종이에서 학급아이들의 낮익
은 글자를 알아보고 기쁨에 목이 메였다. 틀린
글자를 고쳐주며 자기가 점수를 매겼던 국어시험
지였다.

그는 꺼실꺼실해진 입술을 옥물며 몸을 일으켜
허둥지둥 창문으로 다가왔다. 피흐른 맑은 얼굴

과 아름다운 눈이 널판자 사이를 헤매며 아이들을 찾았다.

허나 창밖은 텅빈 운동장과 교실을 묵묵히 지켜보는 미루나무뿐이었다. ...

선생님은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고 무서웠으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깨끗하고 성실한 량심과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찬 심장이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통분한 일인가!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의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오주주 미여지는것 같았다. 내가 그때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지금도 상상할수 없다.

하긴 나 역시 속수무책이었을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생님을 그놈들의 손에 그렇게 혼자 남겨두지는 않았을것만 같은 그 생각이 나를 오래동안 괴롭혔었다.

그날저녁 놈들은 끝내 우리 교실 창문앞 미루나무밑에서 송이선생님을 학살하였다는것이다.

나는 선생님이 빨찌산 연락원이었거나 지하공작원이었을거라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의 최후직전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는 나의 사상을 뒤집어놓았다.

...어두워지는 조각하늘이 보이는 판자사이로 아이들을 찾아 밖을 살피던 선생님은 철커덕 열리는 출입문 소리에 흠칫 놀랐다. 그러나 돌아다보지 않았다. 놈들이 왔음을 육감으로 알았다.

《치안대》놈들이 미국놈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라는것이였다.

악에 받치고 초조해난 놈들은 강박도 하고 사정도 했다.

《많이도 요구하지 않소. 한곡이면 되오.》

《.....》

선생님은 여전히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원한다면 이 일을 마을사람들앞에 영원히 비밀로 붙여주겠소.》

송이선생님은 몸을 흠칫 떨며 웅송그렸다.

혹시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남을지 몰라도 자기 량심에는 비밀이 있을수 없다. 그 량심이 두려워서만도 아니다.

가증스럽고 철면피한 침략자들앞에 끌려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치스럽고 역스러웠다. 가슴속에 깊이깊이 간직한 귀중한 사랑이 어지러워지는 것만 같아 심장이 터질것만 같은 선생님이었다.

그의 아름다운 눈과 얼굴전체에 그 피로움과 고통이 한가득 차고 넘쳤다. ...

나는 눈덮인 미루나무앞에 서있다. 잎떨어진 가지엔 참새 한마리가 앉았다. 깃을 추세우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선생님의 최후를 목격한 새가 아닐가?... 나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새일지도 모른다.

별안간 선생님의 맑고 부드러운 노래소리가 울린듯만싶어 얼핏 돌아보았다. 널판자가 가로질린 빈 교실이 있을뿐이다.

군대군대 눈이 녹은 밀나무밑에는 검붉은 락엽이 드러났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선생님의 붉은 피가 스며든것만 같았다.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나는 영웅들의 비문앞에서처럼 모자를 벗고 오래도록 머리숙여 추모하였다.

거기서 나의 소년시절은 끝났다.

×

송이선생님은 노래를 위하여 살았고 귀중한 생 활속에 간직된 아름다운 노래를 지켰던것이다.

.....

영광의 날엔 이길을 가고 준엄한 날엔 탄 길 가라

.....

이 노래와 함께 행진해가는 나의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볼 때면 중년이 된 지금도 나는 나의 어린시절과 함께 잊을수 없는 아름다운 인상과 수많은 추억들을 남겨준 송이선생님을 자주 회상한다.

행복한 날에도 준엄한 날에도 오직 하나의 신념을 지킨 사람이였다고 가슴뜨겁게...

단조장의 메아리

김련화

1

방금전 회의에서 돌아온 문형준은 큼직한 머리를 한손으로 피이고 신중한 표정으로 부직장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굵직한 뼈마디들로 하여 찍쳐보이는 형준이와는 달리 녀자처럼 단정하게 생긴 젊은 부직장장이 전하는 소식들은 반가운 것들이었다.

직장적인 월계획을 닷새나 앞당겨 끝냈으며 력사적인 함흥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여러 함마들에서 새롭게 형단조화를 결의해나섰다고 한다. 또한 5톤함마기중기운전공처nerg 기계설계사업소 기사와 결혼식을 했고 3톤함마기능공 지남일이 공장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기술과로 소환되었다고 한다.

형준은 길쭉한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은채 맛스레 담배를 태웠다. 그런데 부직장장은 이야기를 멈추고 형준의 얼굴을 흘깃 쳐다보더니 몰래 한숨을 쉬면서 한쪽눈을 가늘게 쪼프렸다. 자못 심각해진 그의 살눈썹이 바르르 떨고있었다. 30년 가까운 세월 단조를 해오면서 예리해질대로 예리해진 형준의 눈이 그것을 스칠리 없었다. 형준은 불시에 마음이 불안스러워졌다. 그는 묻는 눈길로 부직장장을 건너다보았다. 부직장장은 담배한대를 다 태울 때까지 말이 없었다. 방안 공기는 저으기 무거워졌다. 벽너머 단조장에서 함마소리만이 더욱 요란스레 들려왔다. 장지가락으로 함마의 타격물통에 맞춰 책상을 또닥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형준은 언뜻 짙이는데가 있었다. 그래 먼저 물었다.

《강성길이 하고있던 114번축형단조가 아직 성공을 보지못한 모양이구만.》

《그렇습니다. 시험작업이라도 해봤다면 모르겠는데 성길인 아예 그 혁신안을 포기해버린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형준은 술진 눈썹이 화살처럼 우로 치켜올라갔다.

《금방 기사검정시험에 응시한 자기로서는 능력에 부치다는겁니다. 검정시험을 끝내고 기사가 된다음 다시 해보겠다는겁니다.》

부직장장의 허거운 말이였다.

《윤희가 성길이의 그런 립장을 지지합니까?》

형준은 긴장한 눈초리로 부직장을 건너다 봤다. 부직장장은 난처한듯 눈길을 내리깔았다.

《윤희가 지지할리 있습니까? 현대 문제는 성길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자 윤희가 그에게서 멀어져버린것 같습니다. 요즈음 윤희는 성길리와 마주서는것조차 피하면서 그 잘 부르던 노래도 그만두고 입을 꼭 다문채 새침해서 얼굴에 서리를 돈치고 다니는데 말을 붙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윤희가 이렇게 나오자 성길인 또 그대로 울퉁해서 수리반으로 넘겨달라고 졸라대면서 손에 영일을 붙이지 못하고있습니다.》

《음-》

형준의 술진 눈썹이 굼틀거렸다. 널직한 이마에 한줄기의 주름살이 깊이 패웠다. 그는 두어모 금밖에 빨지 않은 담배를 꼭 눌러버렸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윤희로 말하면 군대에서 제대되어 함마앞에 선 형준에게 첫날부터 단조집개잡는 법을 배워준 이름있는 기능공의 딸이었다. 윤희 아버지와 형준은 한때 총각시절에 합숙의 한호실에서 지냈으며 결혼후에는 로동자문화주택마을에서 서로 이웃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스스럼 없는 사이로 되었다.

술하에 딸자식이 없는 형준은 윤희를 어릴적부터 친딸 맞잡이로 사랑해왔다. 윤희 역시 누구보다 자기 집에 많이 드나드는 형준을 각별히 따랐다.

윤희는 단조직장장을 하던 아버지가 재작년에 형준에게 직장장사업을 인계하고 도경제지도위원회로 소환되어간 뒤에도 정든 일터를 떠나려하지 않았다. 자기가 다니고있는 공장대학을 중도에서 포기할수 없다는 그의 지향을 꺾을수도 없었지만 일 잘하고 노래 잘불러 피꼴새로 불리우는 직장의 보배덩이를 놓아주기 아쉬워 형준이도 굳이 마다하지 않았었다. 이런 남다른 사연으로 형준은 합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직장에 눌러앉은 윤희에게 친딸 못지 않게 관심을 돌려왔으며 이즈음에는 그의 장래까지도 은근히 마음을 써온터이다.

(한데 성길리와와의 사이가 소원해졌단말이지...)

형준은 피롭게 중얼거렸다.

그가 함마운정공으로 첫손에 드는 윤희와 군대에서 제대된지 1년밖에 안되지만 보조공들속에서 가장 일습씨가 걸차기로 소문난 성길리의 사이가 단순하지 않다는것을 눈치챈지는 오래였다.

인제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

형준은 무거운 걸음으로 창가에 다가가 가열로의 불빛속에 드러난 국화꽃을 내다보았다. 문득 일년전 이런 가을날 우연히 현장에서 띄여본 성길을 처음 만날 때 광경이 선히 떠올랐다.

그날도 윤희네는 다른 함마들에서보다 먼저 한 차례의 버림작업을 끝내고 다음 소재가 가열로에서 폭 익을 때까지 잠시 선풍기앞에서 땀을 들이고있었다. 그때 후릿한 키에 어깨가 실락한 청년이 그들곁으로 왔다. 방금 군대에서 제대되어 새로 공장에 들어와 로동안전교양을 받고있던 강성길이었다. 윤희는 반갑게 웃으며 그에게 단조장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다. 성길은 함마소리 요란한 단조장을 휘휘 둘러보다가 언짢은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이 뜻밖인듯 윤희의 낯빛이 새초롬해졌다. 그러한 윤희의 속마음을 짐작한듯 성길은 빙그레 웃으며 《그래 동문 이 일터가 마음에 드오?》 하고 반문했다. 윤희는 깔끔한 눈초리로 성길을 훑어지게 쏘아보다가 경멸에 찬 어조로 땀싸게 쏘아붙였다.

《그래요, 전 나의 일터를 사랑해요. 맘에 안들거든 여기서 썩 사라지세요.》

그러자 성길은 큰소리로 껄껄 웃었다. 그리고 반죽좋게 대꾸했다.

《허허...사라지라...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미 여기에 배치장까지 받아쥐고 왔는데 호락호락 물러설상심소?》

《일터가 마음에 안든다면서요?》

《난 일터가 마음에 안든다고 한게 아니라 일하는 본새가 마음에 안든다고 한거요. 처녀동무, 그렇게 땅벌처럼 폭폭 쏘지만 말고 한번 대답해보오. 그래 동문 단조공들이 아직도 힘들게 일하는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오?》

이야기가 심중해지자 윤희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청년을 결눈질로 훑쳐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청년은 모루우에 올려놓은 쇠덩이를 헐치않게 다루고있는 단조공들을 한동안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등중학교시절 이 기계공장에 견학왔을 그때만 해도 나 역시 쇠덩이를 드다루는 이 일터에 매혹되었더랬소. 그러나 모든 단조작업을 형단조화할데 대한 함흥전원회의 결정에 접하였을 때 나는 그런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졌소. 아니오, 난 결코 이런 식으로 단조작업을 하진 않겠소.》

작렬하는 쇠덩이의 붉은 빛이 질게 배인 성길이의 두눈동자는 불길처럼 황황 타오르고있었다.

《알겠어요. 전 동무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있는지... 아까 일을 용서해줘요.》

윤희는 깊은 존경이 담긴 눈으로 성길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허허, 내심정을 리해해주어 무척 기쁘요. 우리 함께 손잡고 본때있게 일해보지요.》

성길은 시원스레 웃으며 윤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형준이도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었다.

윤희와 성길이의 교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의 룰동적인 타격에 맞추어 하나로 숨쉬고 움직여야 하는 단조작업속에서, 퇴근후 함께 공장대학으로,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서 더 깊어졌고 더욱 굳어져갔다. 그것은 형준을 무척 기쁘게 했다. 형준이에게 성길이의 114번축형단조화착안상을 이야기한것도 바로 윤희였다.

직장이 말고있는 유색금속 150만톤고지 점령을 위한 대상설비들중에서 기본을 이루는 114번축을 형단조화하는것은 자유단조때보다 단조속도를 여섯배까지 높일수 있고 자재를 30%나 절약하며 제품가공속도도 네배로 높일수 있어 계획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게 했지만 로동조건을 개선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지는 혁신안이었다.

《이것을 성길이가 하겠단말이지? 아직 한개 함마를 맡으리만큼 단조기능이 높지 못하고 또 금방 기사검정시험에 응시한 그가 꽤 해낼수 있을까?》

형준이부터 미덥지 않은 표정을 짓고 머리를 기웃거리자 윤희는 정찬 눈길로 그를 곧바로 올려다보았다.

《직장장동지, 그 동문 해낼거예요. 리상이 높고 열정도 강하고 탐구심도 깊고... 남들처럼 5~6년씩 대학과정을 거쳐서가 아니라 검정시험으로 3년동안에 기사가 되겠다고 달라붙은것만 봐도 알수있지 않아요. 높은 기술과 깊은 지식을 요하는 114번축형단조화를 완성시키면 그 동문 2년안으로 기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올해 공장대학졸업반인 윤희와 함께 기사자격증을 타게 되겠는걸, 한데 윤희는 성길이에 대해 어떻게 그처럼 잘 아나?》

형준이 웃으며 능청스레 던진 말에 윤희는 담박 귀밑이 단풍잎처럼 새빨개져 고개를 푹 숙여 버렸다.

《아이참 아저씨두... 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쩔바를 몰라하는 윤희를 바라보며 형준은 정확하게 사람을 보아낼줄 아는 그가 대견스러워 껄껄 웃었다. 성길이가 기사들도 달라붙기 어려워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114번축형단조를 대담하게 시도하고 그처럼 완강하게 밀고나가는데는 윤희의 살뜰한 고무와 지지가 안받침되어있다는 것을 형준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을 위해서도 꼭 혁신안이 완성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회의떠나기전까지 각별한 관심을 두어 적극 밀어주었다. 그런데 성길이가 혁신안

을 포기하고 윤희가 그에게서 멀어졌다니 형준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윤희를 만나 모든 것을 다시 알아보리라 생각했다. 그래 막 밖으로 나가려는데 벌칙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강성길이었다. 형준은 문가에 우뚝 멈춰섰다.

《제기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똑한 표정으로 내뱉다 싶어하는 성길이의 말이었으나 풀기는 없었다. 근육이 울근불근하며 무쇠덩이처럼 억세어 보이던 몸매는 속끓은 자루처럼 후줄근해졌다. 형준은 첫순간에 벌써 부직장장이 하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와 의자에 앉았다.

《수리반으로 보내달라는 거겠지?》

형준의 침착한 말에 성길이 어깨를 흠칫하더니 머리를 깊이 숙였다.

형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만약 여직껏 남다른 애정을 기울여온 이들 두 젊은이들의 관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개성이 서로 다른 직장안의 수백명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단합시킬 수 있겠는가, 실망하고 주저앉은 이 청년을 다시 일으켜세워 그의 창조적 지혜를 꽃피워주기 위해서도 이들의 관계를 무심히 대할 수 없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노동자들과의 사업이 직장장의 첫째가는 사업이라고 늘 간곡히 교시하시지 않았었던가!

형준은 깊은 생각 끝에 성길이가 아직은 한개 합마를 담당하여 신속정확하게 제품을 단조해내리만큼 기능이 높지는 못하지만 대담하게 윤희가 운전하는 3톤합마기대공으로 옮겨놓을 것을 결심했다.

손과 발뿐 아니라 눈짓, 머리짓 한번으로 마음속과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합마기대공과 운전공으로 일하게 된다면 서로서로 더 깊이 상대방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자, 예 와서 앉으라구.》

형준은 그때까지 똑 번치고 서있는 성길이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은 후 통계원을 시켜 윤희를 사무실로 불렀다.

윤희는 새침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형준은 성길이를 하여 당하고있는 수치를 도고한 표정으로 가리우려고 하는 윤희의 심중이 헤아려졌다. 둘이서는 자기를 보고 벌스레 더 똑해지는 성길이를 대하자 윤희의 태도는 더 뻔뻔해졌다. 그는 성길에게서 퍼그나 사이를 둔 의자에 앉았다. 성길은 팬스레 앉았던 의자를 왁살스레 앞으로 끄당기면서 고개를 외로 틀었다.

자기에게서 물러가버린 처녀앞에서 허세를 부려보는 성길이를 보느라니 형준은 마음이 서글퍼지기까지 했다. 쌀쌀하고 도고한 윤희와 똑한 성

길이를 하여 방안의 공기는 못서리 내린 늦가을처럼 썰렁했다.

《윤희를 부른 건 다름아니라 래일부터 소환되어 간 지일남동무대신 강성길동무가 3톤합마기대공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형준은 한껏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말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느껴진 모양 윤희가 언뜻 숙였던 얼굴을 들었다. 형준이의 웅심 깊은 시선에 부딪친 윤희는 하려던 말을 삼키는 듯 약간 벌렸던 입술을 망율이 지도록 꼭 다물고 눈길을 아래로 깔아버렸다.

수리반이 아니라 대형합마기대공으로 일해야 한다는 직장장의 말에 잠시 아연해진 표정을 짓고있던 성길이 얼핏 윤희에게 시선을 던졌다. 처녀의 기색을 보자 성길은 화가 나는지 통명스레 《반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듣던바보다 더 강렬한 두사람의 반발적인 태도는 형준이로 하여금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형준은 윤희와 성길이가 나간 후에 최근 과학기술자들을 앞에 종고 밤길도록 앉아있었다.

2

아침모임을 끝낸 형준은 현장으로 나왔다.

합마들이 거세차게 쇳공거리고 하얗게 익은 쇳덩어리의 단냄새가 공간을 채우는 단조장은 불도가니처럼 들끓고있었다. 공중에선 천정기들이 보조공의 신호에 따라 연해연방 가열로에 소재를 집어넣기도 하고 꺼내어 모루우에 올려놓기도 하면서 미끄러져 다닌다. 가열로의 불빛을 받아 얼굴이 검붉어보이는 단조공들은 마치도 규칙적인 타격에 맞추어 쇳덩어리를 이쪽저쪽으로 밀고당기고 뒤집어놓기도 하면서 걸차게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귀에 익고 은연중 몸에 배이기까지한 합마소리를 듣자 형준은 금시 어깨며 팔과 머리가 저절로 규칙적이면서도 탄력있게 움직여졌다.

가슴이 벅차지면서 한껏 흥분되었다. 한시바삐 일에 몸을 잠그고싶었다. 그는 힘찬 걸음으로 3톤합마를 향해 걸어갔다.

순간 그는 단조장의 소란한 소음속에서 불규칙적으로 울리는 3톤합마의 타격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영굴어져 뒤죽박죽이 되더니 마지막에는 《땅-》 하고 버락치듯 울리고나서 똑 떨어 버렸다. 형준은 예감으로 3톤합마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뛰어갔다.

아니다를가 방금전까지 모루우에서 두드리던 것이 분명한 114번축소재가 땅바닥에 곤두박힌채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있었다. 빛갈을 보니 모루우에 다시 올려놓고 두드려대기는 벌써 늦었다. 숨이죽어 피피해진 합마결의 여기저기에는 보조공들이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었다.

윤희는 얼빠진 표정으로 땅에 떨어진 소재를 내려다보는 성길이를 경멸에 찬 눈길로 쏘아보다가 형준이가 나타나자 꾀꾀한 자세로 마주 걸어들었다.

《직장장동지, 절 다른 함마로 보내주세요.》

윤희는 새침한 표정으로 성길에게 말했다.

《호흡이 맞지 않아 함마운전을 못하겠어요.》

파랗게 질린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었다.

《...?》

형준은 묵직한 눈으로 윤희의 두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지금 윤희가 얼마나 성길이를하여 수치감에 휩싸여있으며 그를 기능공으로 배치한 자기를 원망하고있는가를 똑똑히 느꼈다.

순간 성길이라도 단조기에서 휙 뛰어내리더니 《내하나 이 함마를 떠나면 될게 아니오. 나도 동무와 손발이 맞지 않아 예서는 일 못하겠소.》 하고 한마디 내뱉고는 단조장으로 드나드는 문을 향해 씩 달려갔다.

《성길이!》

형준은 쩌한 음성으로 불렀다. 그 웨침은 단조장의 요란한 소음을 단번에 짓눌러버렸다. 성길은 뒤통수를 얻어맞은듯 비출하더니 출입문대를 손으로 거머잡고 그대로 못박혀버렸다.

《돌아오게.》

조용한 음성이었다. 성길이의 널직한 잔등이 부르르 떨렸다. 형준은 윤희의 머리가 아래로 푹 수그러지는것을 보았다. 보조공들도 자리에서 벌떡 벌떡 일어났다. 형준은 윤희의 어깨에 한손을 가볍게 얹었다.

《윤희, 운전변을 잡거라, 어서!》

그리고는 머리를 돌려 성길이를 향해 말끝을 맺었다.

《성길이, 소재가 가열로안에서 지나치게 익은 것 같구만, 어서 모루우에 올려놓자구, 쇠는 단김에 두드려야 한다네, 버림작업을 끝낸 쇠덩이에 불을 붙여야 진짜 담배맛을 볼게 아닌가...》

그는 크고 넓적한 손에 집계를 억세게 틀어잡으며 성길이의 잔등을 톹 쳤다. 모두 묵묵히 다시 일손을 잡았다. 그들은 가열로에서 다른 114번축소재를 꺼내어 모루우에 놓았다. 하얗게 익은 소재는 보기만 해도 마음을 흥거롭게 했다.

형준은 두눈에 즐겁고도 유쾌한 빛을 담고 성길이를 보았다. 성길은 씩하고 황소숨을 들이키며 그를 힐끔 바라보더니 힘있게 단조기의 운전변을 잡아당겨 소재의 머리부분을 기계손으로 째물었다. 그리고는 윤희를 향해 머리를 끄떡했다. 기대공의 신호에 따라 육중한 마치의 첫타격이 소재에 가해졌다. 이리하여 민첩성과 대담성, 완강성을 요하는 긴장한 단조작업이 시작되었다.

형준은 온몸을 함마의 박자에 맞춰 날렵하고도 툄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맵시있게 집계로 소재를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며 뒤집고 세우기도 했

다. 그는 예리한 눈길로 소재의 형타바꿈을 가늠하다가 필요한 수처에 이를 때면 남보다 한순간 먼저 집계를 땀으로써 성길에게 다음공정으로 넘어갈데 대하여 알려주기도 하고 성길이가 미처

그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면 긴장한 눈초리로 조작공정을 지켜보는 윤희를 향해 얼핏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그의 세련된 일숨씨로 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매끈한 축이 시뵐질게 달아오른채로 땅바닥에 떨어질 때면 단조공들의 얼굴은 기쁨과 환희로 빛났다. 그 회수가 많아질수록 서리발이 돌던 윤희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눈동자는 불꽃처럼 반짝이었다. 그 속에서 보조공, 운전공에게 보내는 성길이의 머리신호는 점점 확신에 차져갔고 두눈도 이글거리는 쇠덩이처럼 황황 타올랐다. 형준은 그 눈동자 속에서 자책과 번민, 그리고 다시 번디디고 일어서는 성길이의 마음속 모태김을 찾아보았다. 그것은 형준의 마음의 가볍게 해주었다. 인제 윤희의 사심없는 지지와 방조가 안받침된다면 성길은 전보다 더욱 완강하고 무서운 기세로 자기의 리상을 향해 돌진하리라느것을 형준은 믿어의심치 않았다. 그리하여 직장장사업을 맡은지 몇년만에 형준은 처음으로 일찌기 퇴근길에 오른 윤희와 함께 공장을 나섰다.

두사람은 백사장이 펼쳐진 바다가쪽으로 나란히 걸어갔다. 달이 밝았다.

《오늘 성길이가 본때있게 해제졌지.》

형준은 쏟아진 달빛이 굵기는 파도를 타고 일렁이는 바다에 황홀한 눈길을 던진 윤희의 기색을 살피며 물었다.

《거야 직장장동지가 신호를 고스란히 전달해주었기때문인걸요.》

윤희의 시답지 않은 대답이었다. 형준은 윤희의 예민한 관찰력과 감각적인 판단에 감탄했다. 그런 눈썰미와 일숨씨를 가졌으니 성길이를 나무람할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 섭섭도 했다. 윤희가 보다 웅심깊은 마음으로 성길이를 관찰했더라면 그의 눈빛과 표정을 보고서도 입밖에 내어 말하지 않은 마음속의 새로운 결심을 심장으로 감득해냈을것이기때문이었다. 형준은 결음을 멈추고 달빛속에 드러난

윤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웅글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윤희는 것처럼 높이 봤던 성길이의 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리상이 아무리 높은들 무엇해요. 그것을 실천하려는 완강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니 그 리상은 공중루각에 지나지 않잖나요.》

윤희의 원망어린 대답이었다. 형준은 안타까움과 노여움이 짙게 배인 그의 대답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윤희 역시 성길이가 훌륭한 인간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고있다는것을 강하

게 느꼈기때문이었다. 그래 가슴속 깊은곳에서 우리 나오는 진지하고 심중한 어조로 물었다.

《네 견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걸음 더 들어가보자, 너는 신심을 잃고 고민하는 성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이런 랑패가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말이다.》

윤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진정이 넘친 직장장의 목소리가 가슴에 와 부딪친 모양이었다.

《윤희, 넌 그를 사랑하지?》

《……》

윤희는 머리를 다소곳한채 숨소리 하나없이 걷고있다. 유보도길 여기저기에 흐트러진 들국화꽃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다. 모진 바람이 몰아쳐도 태양은 자기의 따사로운 빛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아름답고 향기진한 꽃을 피워놓은것이다.

《오늘밤 윤희에게 내 일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처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려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 아직 윤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한해전이었다. 우리 공장 기술부에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처녀기사가 배치되어왔었다. 생김새는 말할것도 없고 기술이 높고 성미 또한 너성다워 대번에 온 공장청년들의 인기를 한몸에 집중시키였다. 그리하여 술한 총각들이 그 처녀를 사모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한달이 흐르고 두달이 지나도 그 처녀의 사랑을 쟁취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제는 사랑을 고백한 설계실의 어느 기사가 도서실에 앉아있는 처녀한테 영화관으로 가자고 청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오늘은 또 성에 있는 미끈한 지도원이 공장에 내려왔다 올라가서 처녀의 미모에 대한 찬사로 엮어진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소문만이 자자할뿐이었지.

그때 단조직장에 <단조장의 표범>이라고 불리우는 단조공청년이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단조집계를 잡은지 어언 10년이 지난 그는 직장적으로 첫손에 드는 단조공이었다. 그의 이름은 중앙신문들과 방송에 났었고 위훈이 소개될 때마다 청년은 처녀들로부터 편정이 담긴 편지도 받곤했었다. 그리하여 한껏 자기를 과신하고있던 청년은 퇴짜를 맞는 청년들을 조소하며 자기만은 결코 거절당하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처녀를 찾아갔었다. 하긴 그 역시 자기 직장을 담당한 그 처녀기사에게 마음 끌리기는 처녀가 현장을 료해하러 처음 단조장에 나타났던 그때부터였지, 하지만 청년은 오산했다. 역시 사랑은 쇠덩어리가 아니어서 마음먹은대로 단조해낼수 없었다. 처녀는 청년에게 탐구심이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그 이튿날로 온 공장에 <단조장의 표범>이 보기 좋게 통뿔을 먹었다는 소문이 짹 돌았다. 단조공 청년은 창피하고 고통스러웠다. 모욕을 준 처녀를 잊으려고 애를 쓸수록 그처럼 자기의 마음을 끌어당긴 깊이를 알수 없는 그윽한 눈동자며 단

조장바닥에 펼쳐놓은 도면을 짚어가며 기술적인 문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전에 울리고 눈에 삼삼한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리하여 더 참을수 없게 된 청년은 처녀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공장에 갈것을 제기하고 합숙에 들어박혀 숙제 자리에서 일어나지조차 않았다.

공장과 울타리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는 합숙이어서 합마소리는 그곳까지 울려왔다. 청년은 처녀의 다정한 속삭임과도 같은 그소리를 가슴설게 들으며 자기 로동의 첫자욱이 새겨지고 위훈이 창조된 공장을 떠나는게 서글피 생각되어 꿈초가 재털이를 넘쳐나게 담배를 태웠다. 창가에 저녁어스름이 깃들자 그 감정은 더욱 강해졌다. 청년은 외로움과 쓸쓸함에 못이겨 그만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몸부림쳤다. 그때 조용히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청년은 거친 목소리로 누가 와서 거치장스럽게 구는가고 푸접없이 내쏘았다. 문이 열렸다. 거기엔 처녀기사가 서있었다.

청년이 제일 좋아하는 연하늘색의 조선옷을 산뜻하게 입고 한손에는 보에 싼 꾸레미를 들고...

그 이슬머금은 들국화처럼 청초한 모습은 그윽한 향수내와 어울려 청년의 가슴을 육중한 마치처럼 드세차게 때렸다. 청년은 눈이 시어 처녀를 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눈길을 떨구며 언뜻 마주 걸려있는 거울을 들여다보니 마구 형클어진 머리카락, 덩수룩한 입수염과 앞자락이 꾸겨진 옷으로 주체가 꼰발견인 자기의 모양이 비쳐졌다.

청년은 창피했다. 처녀는 걸어들어와 침대옆의 원탁에다 보파리를 놓고 보자기를 풀었다. 순간 청년은 다시 한번 세찬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벌써 손에서 쥘버린지 오래된 고급중학교 교과서들이었다.

<전 동무가 그렇게 자존심 없는 남자인줄은 몰랐어요. 탐구심이 없다고 거절한 처녀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시작했어야 할게 안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힘겨운 고열로동을 그대로 후대들에게 넘겨주겠나요, 전 동무에게 그런 리상이 없는게 섭섭했어요. 전 동무가 그런 높은 리상을 지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의 세계를 탐구하고 또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랬어요.>

심장을 그러쥐는 그 다정하고도 준절한 음성은 청년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석처럼 강렬하게 처녀에게로 끌리게 했다. 허나 청년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가보아 거칠게 내쏘았다.

<그따위 교과서나 들고다니면서 공부못했다고 속보지 마오. 나도 사랑을 구걸할만큼 너절한 인간은 아니오. 가오, 가란말이요!>

그러자 처녀는 방긋 웃었다.

<그래요, 가겠어요. 마음놓고 가겠어요.>

윤희야, 그 청년은 처녀가 나가자 교과서를 그리안고 뜨거운것을 쏟고야말았다.

처녀가 남기고 간 웃음은 번민속에서 모태기던 청년을 일으켜 세웠다. 청년은 교과서를 펼쳤다.

그 책에 써여져있는 부호들과 공식들, 그리고 길고 긴 방정식들이 더 높은곳으로 이끌어주는 처녀의 강렬한 눈빛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느껴졌다.

순간 청년은 그리도 진절머리나고 지어 무섭게 보이기까지 했던 학과목들이 명료하고 알기 쉬워졌었다. 그때부터 청년과 처녀는 하루일이 끝난 뒤면 함께 검정시험준비를 했었다. 청년은 1년후에 최우등으로 준기사자격을 받고 또 5년후에는 공장대학을 마쳐 어엿한 기사가 되었다. 이렇게 직심스레 지식을 탐구해가는 청년의 결에는 언제나 그 처녀기사가 있었다. 그들은 공장대학 입학시험을 성과적으로 치른 뒤에 결혼했던 것이다.

윤희야, 그 처녀기사가 바로 너의 어머니였다. 그 사랑의 힘이 없었더라면 너의 아버지는 오늘 처럼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신임을 받는 일군으로 되지 못했을런지도 모른다. 참된 사랑이란 바로 이런것이 아니겠느냐...》

세찬 파도는 거치른 갈기를 날리며 쉬임없이 기슭으로 밀려온다. 허나 백사장은 그지 없이 부드러운 자기의 품에 파도를 안아 조용히 달래여 준다. 어머니가 장난세찬 자기의 아들을 자애로운 음성으로 살뜰히 달래주듯, 너인이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테설곳은 사나이를 애무해주듯...

윤희는 두손을 부르짖어 심장우에 얹었다. 바다를 향해 두팔을 벌리고 《어머니-》 하고 웨치고싶었다. 무한한 바다, 부드러운 백사장, 향기로운 한떨기의 꽃송이가 새롭게 보여졌다. 아득히 흘러 지난 부모들의 사랑을 값높은 추억으로 간직해준 직장장의 뜨거운 심장앞에 깊이 머리가 숙여졌다. 백사장우에 크고작은 두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찍혀졌다.

3

형준은 린접근에 있는 광산기계공장으로 떠나는 윤희를 시외빠스역까지 배래워주려고 함께 합숙을 나섰다.

얼마전에 도에 회의갔던 형준은 114번축과 비슷한 축의 형탄조를 완성했다는것을 중학교동창생으로서 그 공장기사장으로 일하고있는 친구에게서 알게 된것이다.

형준이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자 윤희는 자진하여 그 공장에 가보겠노라고 했다. 윤희의 그 청은 형준을 기쁘게 했다.

그는 심각한 고뇌로 하여 퍼그나 못쓰게 된 윤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의 내면세계가 번민과 고충속에서 더 깊어지고 폭넓어져감을 느꼈다. 설명없이도 성길이가 누구보다 높이 내세운 자신

의 목표를 점령할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윤희의 심정이 리해되었다. 그리하여 형준은 오르면서 시오리, 내리면서 이십리 되는 매봉산을 넘어야 하는 험한 길에 서슴없이 윤희를 떠나보내는것이였다.

사흘동안 내내 흐려있던 하늘에서는 눈꽃이 날리기 시작했다. 도면을 떠올 제도용기들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꼭 틀어진채 생각깊은 표정으로 걷고있던 윤희는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다.

《직장장동지, 인젠 들어가 보세요, 직장장동지도 몸을 좀 돌보세요.》

형준은 가슴이 몽클해졌다. 퍼그나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살뜰한 목소리였다. 그 음성에서 깊어지고 풍부해진 감정과 정신세계가 감득되었다. 그 느낌은 눈을 맞으며 먼길을 가야 할 윤희를 두고 근심하던 형준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눈은 더욱 평평 쏟아졌다. 형준은 한순간 이런 날에 연약한 처녀를 떠나보내는것이 가슴 아팠다. 자기가 갔다올가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난 네가 길을 떠나주어 무척 기쁘다.》

형준은 한없이 깊은 애정이 스민 손길로 윤희의 어깨를 쓸어주었다. 불시에 윤희의 눈에 맑은것이 펴 피어올랐다.

《아저씨, 용서해주세요.》

뜨겁게 속삭인 윤희는 눈물을 보이지 않음으로 휙 돌아서서 총총걸음으로 걸어갔다. 자리잡혀가는 흰눈우에 그의 조그마한 발자국이 또렷이 찍혀졌다. 형준은 이 길을 떠나보내는 자기의 마음을 리해한 윤희의 뒤모습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며 그가 하나의 점이 되었다가 대기속에 녹아래릴때까지 그자리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휴식날을 리용하여 설비들의 현존상태를 료해해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하고있던 형준은 공장으로 왔다. 휴식날이어서 조용할줄 알았던 공장에서는 젊은 축들에 눈오는것도 아랑곳 않고 배구며 룡구경기를 하느라고 법석 끓고있었다. 형준은 문득 자기의 젊은 시절이 회상되었다. 중앙공격수로 유명한 윤희 아버지와 문지기로 이름날리던 자기를 두고 사람들은 공장축구팀의 마치고 모루라고들 불렀다. 뿔만 보면 발이 근질거리던 자기들처럼 저 젊은이들도 주체할길 없는 열기를 가지고서는 눈이 온다고 해서 방안에만 불박혀있기 바쁠거라고 생각하며 형준은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띠웠다. 그가 여러번 눈더듬으로 찾아보았어도 룡구라면 쪽을 못쓰는 성길은 그들속에 없었다. 형준은 새롭게 결의를 다진 성길이가 이 휴식날에도 도서관에 불박혀 기술도서들과 씨름하고있을지 않을까 추측하며 윤희가 돌아오면 함께 찾아가 진지한 토론을 하리라 걱정했다.

단조장에 들어선 형준은 출입문어귀의 40짜리 작은 함마로부터 시작하여 중형, 대형함마들로 옮겨가며 피스톤과 현추, 타격추, 특히는 웃모루와 아래모루의 닳음상태를 검사하고 간간스레 검사하고 수첩에 적어넣었다.

형준이 성길이네 3톤함마의 검사를 마치고 잠시 서서 이제 114번축형단조가 완성되면 당당한 기사들로 자라나 대상설비생산에서 더욱 큰몫을 담당해나갈 성길이와 윤희의 모습을 그려보며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짓고있는데 넓은 작업장 한쪽 구석에 자리잡고있는 공구창고쪽에서 예리한 쇠붙이소리가 났다. 형준은 의아한 생각으로 급히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쇠살장을 둘러친 공구창고안에는 뜻밖에도 성길이가 긴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형타지구들을 골똥히 들여다보느라고 곁에 사람이 온줄도 모르고있었다. 공구창고안의 여기저기 형타지구들 곁에는 보풀이 인 두터운 기술책들이며 도면들이 펼쳐져있었다. 형준이는 며칠전 윤희에게 준 책이 여기에 펼쳐져있는것을 보고 빙그레 웃음지었다. 비록 고민으로하여 축은 갓어도 새로운 결심을 품고 이처럼 아글타글하는 성길이의 모습을 보는게 형준은 기뻐했다.

《성길이가 이리 나오라구.》

성길이가 와플 놀라며 벌떡 뛰쳐 일어났다. 그는 휴식날엔 절대로 현장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엄하게 다짐하던 형준의 말이 첫순간에 생각난듯 못내 당황한 표정이었다.

《운동장에선 룡구경기가 한창이더군.》

형준은 고급담배를 꺼내여 성길이에게 주면서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도 방금전까지 한바탕 달려다녔습니다.》

《이마에 땀이 내뻐걸 보아 그렇다고 믿어야지 허허허...》

형준이 어깨를 툭 치며 꺾걸 옷자 성길이도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쓸며 시무룩히 웃었다.

《난 자네가 꼭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씩씩하게 걸어가리라고 믿었네, 그래 이 책은 윤희가 주던가?》

《아니 ? 저 어제 저녁에 함숙에 돌아와 보니 있기에...》

성길이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형준이를 쳐다보았다.

형준이 땅바닥에 펼쳐놓은 그렸다 지웠다하여 보풀이 인 도면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다.

《그래 무슨 해결책이라도 찾은 모양이지.》

《책을 보니 좀 생각되는 점이 있어 다시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 잔뜩 벌려놓지 않았습니까?》

성길이의 못내 안타까운 어조였다. 하지만 그 어조에는 락망의 빛이 없었다. 형준은 그것이 대견스러웠다.

《령너머 광산기계공장에선 114번축과 비슷한 축의 형단조를 성공시켰다더군.》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가보겠습니다.》

성길이가 흥분하며 두어모금밖에 빨지 않은 담배를 쇠덩이에 꼭 눌러 불을 켰다.

《그곳으로는 벌써 사람이 떠났네.》

《그래요?- 누가 갔습니까?》

《자네 생각엔 누구겠 갔나?》

형준이 능청스러운 눈빛으로 성길을 건너다보았다. 잠시 머리를 기웃거리던 성길이의 두눈동자가 번쩍 빛을 뿜었다.

《누군지 알겠습니까. 직장장동지.》

나지막한 그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채광창너머에선 함박눈이 날리고있었다. 한동안 묵직한 눈길로 그것을 바라보던 성길이가 고뇌에 찬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직장장동지, 전 윤희동무앞에 면목이 없습시다. 그 동무가 저를 경멸하는것이 응답하지요, 아마 그가 것처럼 저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전 영원히 자신의 리상을 포기해버렸을수도 있었을것입니다.》

성길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혐오스러운지 커다란 주먹으로 철덩이를 내려쳤다.

《스스로 자기의 결함을 깨닫고 다시 번디디고 일어선다는게 용이한 일이 아니지, 하지만 바로 그런 완강성과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보다 큰 일을 할수 있네, 바로 이런 로동계급에 의해 형단조화를 실현하고 또 <80년대속도>도 창조될게 아닌가?! 윤희는 바로 자네가 그런 사람으로 되길 바라고있단말일세.》

형준은 인제야 스스로 윤희의 심정을 리해한 성길이에게 간곡한 어조로 그루를 박아 이야기해주었다. 성길은 깊은 존경이 담긴 눈길로 형준을 쳐다보며 힘있게 머리를 끄덕이었다.

접수에서 광산기계공장에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알렸다. 형준은 윤희에게서 온 전화함을 짐작했다. 그래 성길이에게 걸음이 빠른 자네가 먼저 가보라고 이르고는 천천히 뒤를 따라갔다. 그가 접수실에 이르니 전화를 받던 성길이의 얼굴이 붉어져 송수화기를 내밀었다. 송수화기에서는 《성길동무, 성길동무... 왜 전화를 안받아요? 아이 참...》 하는 너자의 속상해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윤희동무에게서 온 전합니다. 직장장동지를 찾는것 같은데...》

성길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넬 찾는구만.》

형준은 부러 정색해서 툭 잘라 말했다. 성길은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큰숨을 내쉬고는 단호한 태도로 송수화기를 귀에 가져다대고 큰소리로 웨쳤다.

《자꾸 이름만 부르지 말고 어서 용건을 이야기 하오.》

《저- 다르게 아니라 여기와서 형단조형타지구를 보니 도면이나 떠가지고 가서는 잘 납득이 될 것 같지 않군요,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게 낫다지 않아요. 우리 공장에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편에 형타지구를 싣고가겠어요.》

《형타지구를 싣고오겠다고?!...》

성길은 놀라부르짖으며 송수화기를 입에 바투 가져다댔다. 진공판이 징-징-울렸다.

《그래요, 직장장동진 이쪽 기사장동진에게 114번축형단조화에 간곡히 말해두었다더군요. 모두들 얼마나 우리의 혁신안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는지...전 생각이 깊어져요.》

윤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있었다. 성길은 가슴속에 치미는 뜨거운것으로하여 아무말도 못했다. 울대빼만 움썼했다. 전화는 끊어졌으나 성길은 커다란 두손으로 송수화기를 움켜쥔채 한동안 그대로 서있었다.

《윤희가 온다지? 갑자기 내린 눈으로 매봉산령길이 막히지 않았는지 모르겠군, 우리 마중가볼가?》

형준이 성길의 어깨에 한손을 올려놓으며 따뜻한 어조로 물었다.

《직장장동진!》

숫구쳐오르는 뜨거운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성길은 형준이 어깨에 얼굴을 박았다. 널직한 잔등이 세차게 오르내렸다.

《눈발이 더 세차지는데 어서 가보자구.》

형준은 성길의 어깨를 한팔로 그러안고 밖으로 나왔다. 주먹같은 흰 눈송이들이 아득한 창공을 메우고있었다. 눈은 내리면서 스스로 녹아 진득 진득했다. 진눈까비는 얼굴이며 옷에 달라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았다. 두사람은 30리되는 매봉산령마루까지 두어시간에 대어왔다. 밤이였으나 산과 들을 덮은 눈으로하여 사방은 흰했다.

그들이 방금 령마루에 올라섰을 때였다. 아래쪽에서 쟁쟁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려왔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조금 꺾어주세요. 됐어요.》

두줄기의 불빛이 눈우를 짝 비쳤다. 차가 령길에 올라섰던것이다. 그러자 자동차의 밝은 불빛속에 윤희의 모습이 환히 드러났다. 눈을 맞으며 얼마나 걸어왔는지 온몸은 그냥 두렵게 눈을 뒤집어 썼다. 단단히 끈을 죄여 신은 신발과 꼭 줄라맨 아래도리는 젖었다. 얼어들어서 와삭와삭 소리가 난다. 등뒤 넘긴 길다란 머리수건끝이 신호기발처럼 펄펄 날린다. 눈발을 헤치며 앞장에 서서 자동차를 미끄럽고 가파로운 산고개우로 이끌어온 처녀의 모습은 대기속에 부각된 한점의 관화같았다.

형준은 가슴속에서 왈각 숫구치는 뜨거운것을 주체할수 없었다. 갓 걸음마를 배우던 그 시절,

넘어졌다가도 자기의 타이름을 알아듣고는 앙증스러운 꺾꼬만 발로 힘차게 땅을 번디디고 제힘으로 일어나 쟁쟁하게 웃으며 두손빌린 품안으로 달려들던 그때처럼 윤희를 마냥 한가슴에 겨안아주고 싶었다.

(윤희야 고맙다. 깊고 열렬하고 사심없는 무한한 애정을 지닌 너성으로 키우고싶은 내 심정을 이해하고 그런 처녀로 되기 위해 힘쓰는 너를 나는 더 깊이 사랑한다.)

형준은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며 윤희에게로 걸어갔다. 직장장을 알아본 윤희는 막 달려와 형준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왜 이 눈길에 떠났느냐?》

형준은 윤희의 어깨며 머리수건우에 무득히 쌓인 눈을 털어주었다.

《참을수 없었어요. 한시바삐 114번축형단조화를 완성하고싶었어요.》

《너와 한마음이기에 성길이기도 오지 않았니.》

그제야 형준의 뒤에 서있는 성길이를 본 윤희는 그를 향해 방긋 웃어보였다.

고민으로하여 훌쩍해진, 더우기 상큼해진 코날, 반반한 이마에 잡힌 가느다란 한줄기의 주름살...

단조장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그때 보다, 아니 함께 기쁨에 넘쳐 114번축형단조화를 추진시켜나가던 그때보다는 엄청나게 생신함과 용모의 아름다움이 덜된 윤희였다. 하지만 울창한 수림속의 호수처럼 촉촉한 속눈썹에 둘러싸여있는 두눈동자만은 더욱 끝모르게 깊어지고 그윽해졌다. 그눈동자에는 전에는 느낄수 없었던 없었던 해빛처럼 따뜻한 애정이 가득차있었다.

그 눈동자는 살뜰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성길동무, 용서 해줘요.》

자석처럼 더욱더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윤희의 모습을 황홀해서 바라보는 성길이의 두손은 모두 우에 놓여진 달아오른 쇠덩이처럼 이글거리며 화답하고있었다.

《윤희, 내 한생을 바쳐 윤희가 바라는데로 사회와 인민을 위한 더 큰일을 해낼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겠소.》

아직 114번축형단조화의 완성은 앞에 있었다.

그러나 형준은 깊고 열렬하고 사심없는 무한한 애정을 지닌 윤희가 곁에 있는한 성길은 기어이 114번축형단조화를 성공시켜 당이 것처럼 바라는 함흥전원회의결정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빛을 더해주리라는것을 굳게 믿었다. 어찌 그뿐이라 그 형단조화를 통해 더 높은 과학의 봉우리로 톱아오른 성길이가 검정시험을 훌륭하게 치르고 윤희와 한날한시에 당당한 기사가 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실로 훌륭하게 사랑할줄 아는 사람만이 값높은것을 창조할줄아는것이 아닌가...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명대사의 심오한 탐구

-예술영화 《월미도》를 중심으로-

김용부

참다운 조국이란 무엇이며 그 조국을 지켜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뜻깊은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고있는 예술영화 《월미도》는 사람들에게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워주고 혁명적인생관의 참다운 진리를 값높이 깨우쳐주는 혁명투쟁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이 영화가 이처럼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를 거둘 수 있는것은 명대사창조에 관한 당중앙의 방침을 훌륭히 구현한 결과이다.

예술영화 《월미도》의 무게있는 종자,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 인상깊고 특색있는 성격형상생활의 풍부성과 다양성은 창작가가 탐구한 명대사에 의하여 훌륭히 담보되고있다.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과 대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적예술은 반드시 높은 사상성을 가져야 하며 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로 서 복무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이 창조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어야 할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으로부터 필수적으로 흘러나오는 본성적요구이다.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 이것은 인간과 그의 생활속에서 어떤 사상적알맹이를 잡아쥐였으며 어떤 문제를 심각한 인간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어떤 해답을 주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정책적으로 의의있고 예술적으로 특색있는 종자의 선택, 심각한 인간문제의 제기,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와 혁명투쟁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심오한 사상의 설정으로 작품의 철학적깊이가 다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상적내용은 예술적 형식, 다시말하여 풍부한 형상수단의 도움을 받을 때만이 예술적진리로 확증될수 있으며 깊은 정서적감화력으로 사람들을 숭고한 사랑의 세계에로 이끌어갈수 있다.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대사는 실로 중요한 역할을 논다.

문학작품의 사상적내용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지는데 인물들의 성격형상은 주로 대사에 의하여 강조된다.

따라서 대사를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어떤 높이에 올려세우는가 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뜻이 깊은 명대사로 작품의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을 확고히 보장한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영화에는 가렬한 첫 전투에서 적구축함 2척, 대소함정 6척을 격침,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는 하였으나 2문의 포와 중대의 반수를 잃은 아픔으로 모태기고있을 때 중대를 찾아온 대대장이 주인공에게 하는 대사가 있다.

대대장은 전쟁전에 본 어떤 외국책에는 아득한 옛적부터 선조들이 살아오던곳, 아버지의 뼈가 묻힌 고향산천, 들판에서 종달새가 우짖는 곳 그 정든 고향산천이 바로 조국이라고 씌여져있더라 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선조들도 아득한 옛적부터 이 땅에서 살았고 그때도 종달새는. 울었소.

하지만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기전에야 그게 무슨 의의가 있었단말이요?

난 그 종달새가 우짖는곳에서 왜놈의 채찍밑에 뼈가 휘도록 고역살이를 했소.

동무도 그랬지? 그러니 우리에게 조국이란 무엇이겠소? 조국이란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오... 난 그렇게 생각하오...

그러니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한목숨 바친다는 것이 무엇이겠소.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다는 말이 아니겠소.

태운이! 우리 비록 몸은 장군님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장군님을 호위하는 심정으로 이 섬을 사수하자구.》

예술영화 《월미도》는 이 절절한 호소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을 핵으로 하여 예술적형상의 나래를 펼치고있다.

영화는 이 대사를 통하여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조국이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고있으며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다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하여 한

목숨바치는것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절절하게 해명해주고있다.

이 하나의 대사에는 작품의 사상적내용이 집약적으로 담겨져있다. 관중들은 이 대사를 통하여 작품에 심어진 뜻깊은 종자와 심각한 문제성, 심오한 사상적진리를 깊이있게 파악하고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 귀중한 양식으로 뜨겁게 받아들인다.

여기에 바로 이 대사가 명대사로 될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 영화의 대사가 거둔 성과의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해 바치는 생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인간은 어떤 사람들을 영원히 잊지않고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깊이있게 해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적인생관의 참다운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는것이다.

결사의 순간 중대장 태운이가 당분조장 민국아바이에게 하는 대사는 실로 많은것을 시사하여준다.

《아바이, 전 생을 떠난다고 해도 아쉬운것이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는것보다 그 행복을 이룩하는데 바쳐진 생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유감스러운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조국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할수 있거든요...》

이 짙막한 대사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삶,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바친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영생하는 삶이라는 숭고한 사상이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다시말하여 아직 인류전쟁사가 알지 못하고있는 것처럼 가렬한 결전에서 5만대군의 적을 상대로 한개 중대의 인민군해안포병들이 발휘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숭고한 자기희생성과 혁명적라관주의의 원천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싸우는 병사들,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영웅전사들에게는 죽음이란 없으며 설사 몸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가장 빛나는 영생의 삶으로 된다는 그러한 혁명적수령관, 혁명적인생관에 있었다.

조국과 인민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며 영원히 잊지 않는다.

《중대장동무를 일생토록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가슴속에는 항상 중대장동무에 대한 생각뿐이라고 하면서 만약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대장의 애인이 열렬히, 그리고 절절히 호소한이 말속에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영웅전사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우리 조국의 약속, 우리 인민의 진심이 깃들어있다.

예술영화 《월미도》의 대사는 이처럼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집약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혁명적수령관과 혁명적인생관을 바로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물론 영화의 사상주제적내용은 어디까지나 작품의 전반적인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져야 한다.

이야기줄거리발전의 일정한 계기에 주어진 대사로 하더라도 아무런 경우나 다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반영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고립적으로 주어진 대사,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주어지지 못한 대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한다.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심오하게 담고있는 대사는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맞게 그리고 일정한 계기와 작품의 극적정황에 맞게 주어질 때 가능하다.

우에서 이미 실례를 든바와 같이 작품의 종자를 해명하는 대대장의 대사는 우리 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주인공의 열렬한 호소에서, 기뢰를 안고 적합을 맞받아나가는 최석준의 절절한 부탁에서 보충되고 심화되어 사상적내용의 깊이와 폭을 확고히 보장하였으며 생경한 논리가 아니라 형상으로 안겨오게 하였다.

월미도영웅전사들의 혁명적인생관을 대변하는 중대장의 대사도 무전수 영옥이를 떠나보내면서 누가 죽는다고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하여 싸운다는 대사 등 여러 대사를 형상적으로 반복심화시킴으로써 그 사상적내용의 폭과 깊이를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작품의 핵을 담고있는 대사를 작품의 어느 대목에 얹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로 설정될수있다.

생활의 논리, 성격발전의 논리에 따라 처음에 주고 그것을 심화시켜갈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전체를 깔아오다가 절정부분에서 쓸수도 있다. 이 영화의 경우 작품의 종자를 규정해주는 대사는 처음에 주어지고있으며 혁명적인생관을 깨우쳐주는 대사는 절정부분에서 주고있다.

생활의 논리,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가장 적절한 대목에서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규정지어주는 대사를 줌으로써 작품의 예술적효과성을 더욱 높이고있는데 이 작품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있다.

이와 같이 예술영화 《월미도》는 대사의 본질적기능에 맞게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심오하게 드러내는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예술적형상의 풍부성과 대사

문학예술작품의 모든 대사는 형상적인 대사로 되어야 한다.

형상적인 대사란 산인간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사, 생활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는 대사를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산 인간의 성격과 생활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보여줌으로써 작품에서 보는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산 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려보게 하는것을 말한다.

인간과 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보여 주어야 할 우리의 문학에서 형상적인 대사의 강조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

더구나 전쟁주제의 작품에서 생활적인 대사를 훌륭히 탐구하는것은 전사-인간들의 과학적인 생활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성격적이며 생활적인 대사를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전쟁주제의 영화에서 산인간을 그리며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그럴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였다.

무엇보다먼저 이 영화는 성격적인 대사를 특색있게 탐구함으로써 인상깊은 성격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성격창조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는 대사이다. 물론 등장인물의 행동, 작가의 주정도로 등 일련의 형상요소들도 성격을 그려내는 좋은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대사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와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드러내지는 못하며 대사처럼 그렇게 인상깊게 성격의 개성적특질들을 그려내지 못한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대사형상을 통하여 조국을 찾아주시고 참다운 인생을 마련하여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한목숨바쳐 옹위하려는 인민군영웅 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일반화하여 깊이있게 보여주면서도 단순한 군상이 아니라 각이한 개성을 가진 산 인간들의 특색있는 성격을 훌륭히 강조하고있다.

월미도의 중대장 리태운은 무게있는 지휘관이 다.

피눈물로 얼룩진 인생행로가 그에게 거치른 성격을 주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가슴속에는 좀처럼 쉽게 헤쳐보이지 않는 뜨거운 사랑과 인정이 가득고여 있다. 영화의 대사는 이러한 그의 성격을 훌륭히 살리고 있다.

월미도방위전사들의 운명이 확정된 시각, 언제나 그 웃는 얼굴에서 전사들의 당적량심을 비쳐보며 티하나 묻지 않은 그 청아한 목소리에서 사랑하는 부모처자들을 그려보던 영옥이를 떠나보내면서 하는 그의 대사는 무뚝뚝하면서도 인정깊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보인다.

《무전기가 없는 무전수가 누구에게 필요하단말이요. 가오!》

.....

《우리 자기들의 복수를 남에게 부탁하지 않소.》

.....

《누가 죽는다고 했소? 누가? 이 월미도에는 그걸 바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소. 우리는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싸운단말이요... 빨리 가오. 난 바쁘오!》

그는 바쁘지 않았다.

다만 바위가 부서지고 모래가 타는 이 가렬치절한 격전장에서 나어진 무전수처녀를 무사히 돌려보내어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싶어서였다.

런락병 윤식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제 살붙이처럼 아끼던 윤식이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가슴아픈 리별의 순간에도 다정한 말 한마디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태운의 가슴속에는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끝없이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이처럼 과묵하면서도 응심깊은 중대장의 성격을 영화대사는 훌륭히 살리고있다.

취사원 종섭의 인상깊은 성격도 특색있는 대사를 통하여 잘 그려내고있다.

《일없어, 영옥이, 이다음에 우리 고향마을에 가보라구. 노래에서 나오는것처럼 강기슭에 있는 마을이야... 지금쯤 아마 벼가울이 시작되었을걸세. 강아래쪽으로 우리 집 논벌이 있네. 장군님께서 머슴군이었던 이 김종섭에게 주신 땅이라네... 내 백번 죽어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는건 아네만 그래도 성의만은 다하려고 했네, 우리집 마누라도 알거야...》

최후의 순간 종섭이가 영옥이에게 하는 이대사는 비록 현란한 문구로 차있지 않지만 농민다운 텅텅한 그 말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그의 성격은 농민다운 성실성과 천연스러운 익살로도 특징적이다.

포차운전수 웅벽이를 구슬리는 대사와 바다기슭에서 영옥이를 처음 만났을 때 던지는 대사 그리고 제 목청이 아주 좋다며 중대합창단에서 한

뭣 단단히 한다고 너스레를 떠는 대사들은 그의 개성적성격을 인상깊게 드러내고있다.

이외 무전수 영옥이의 발랄한 성격도, 당분조장 민국이의 듄직하고 무게있는 성격도 그에 맞는 적절한 대사들을 통하여 훌륭히 창조되고있다.

이처럼 예술영화 《월미도》는 인상깊고 특색있는 대사로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성격을 훌륭히 그 성격을 훌륭히 그려냄으로써 전쟁주제의 작품에서 흔히 나타날수 있는 성격형상의 류형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산 인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렸다는데 그의 특출한 성과의 하나가 있다.

이 영화가 거둔 성과는 또한 생활적인 대사를 진지하게 탐구함으로써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풍부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다면적으로 그려낸 풍부한 생활장면들과 생활일화, 생활세부들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러나 생활적인 대사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활적인 대사는 작품에 현실 그대로의 진실성을 부여해주며 흥미를 돋구어준다.

실생활과 유리된 까다롭고 론리적인 대사는 생활의 진실성을 가리우며 예술적흥미를 저하시킨다.

아무리 좋은 생활장면, 좋은 생활세부들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고받는 대사가 비생활적이라면 그러한 장면들은 독자들에게 아무런 예술적감흥도 주지 못한다.

생활적인 대사의 탐구, 이것은 창작가들이 생활의 진지한 연구와 함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탐구분야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생활적인 대사탐구에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노래가 참 좋구만. 우리 애 얼굴이 선히 떠오른단말이야. 젠장 그 애앞에 부끄럽지 않아야겠는데.》

이것은 노래를 배우면서 하는 취사원아바이의 대사다.

우리가 생활속에 흔히 들을수 있으며 아무런 격식도 없이 텅텅하게 울리는 이 대사속에 조국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이처럼 가렬한 월미도의 격전장에서 벌어지는 생활의 줄기찬 흐름, 불로써도 다스릴수 없고 폭탄으로써도 멈춰세울수 없는 영웅전사들의 락천적인 생활은 생활적인 대사의 적극적인 리용으로 더욱 이채를 띤다.

이외에도 포탄과 폭탄이 작렬하는 섬익측의 바다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윤식이와 나누는 대사, 50년동안 전쟁에서 이겼다는 5성장군 맥아더가 인민군 한 중위에게 3일동안 되게 얻어맞아 《두뺨이 얼얼》할것이라는 민국아바이의 대사, 이 모든 대사들은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형상성의 높이로서 대사창조의 극치를 이룬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술영화 《월미도》의 대사들은 그의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형상의 풍부성으로 하여 예술적대사형상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으며 모든 창작가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주고있다.

모든 창작가들은 명대사창조에 관한 당중앙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며 그것을 절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민언어의 귀중한 채부속에서 더 좋고 알기 쉬운 문화어를 탐색하여 문학작품창작에 훌륭히 활용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가사

구룡연아 전해다오

조성래

구름우의 비로봉아 옥류동 맑은 물아
아 어머님 오르시던 천하절승 그 어디냐
장군님 모시고 오신 그날에
환호성 높이 울린 구룡폭포 여기로다

이골저골 울리며 내리는 폭포소리
어머님의 그 정성 노래불러 전하는가

장군님의 안녕 위해 발걸음 돌리신
못잇을 그 영상 별처럼 안겨오네

천길폭포 바라보니 그 뜻이 높고높아
어머님을 우러르는 이내 마음 불타네
걸음마다 장군님께 바치신 충성
구룡연아 전해다오 길이 전해다오

락원사람들

변홍영

그대들을 보면 그 누구나
10명 당원들을 생각하리라
그대들을 만나면 몇마디에
10명 당원들의 이야기부터 들으리라

그대가 주철공이건 선반공이건
그대가 기사이건 노동자이건
그대들은 락원사람
10명 당원들이 걸어간 구내길우에
나란히 한 자욱을 새겨가나니

쇠물이 한창 끓고있는 용선로앞에서
나역시 처음 만난 젊은 주철공에게
10명 당원들의 이야기를 물었다
모래를 빚고있는 나 어린 주형공처녀가
혹시 그들의 딸이 아닌가 해서
그의 모습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수천가지 강철음향이 차흐르는
휘넓은 가공직장 기대앞에서
나의 물음에 귀기울이던 직장장도
또 한대 새로 무어낸 굴착기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던 청년작업반장도
생각깊은 눈길을 들며 이야기했다

준엄했던 그날에 락원의 심정을
아니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을
아버이수령님께 말씀올렸던
그 너당원은 우리곁에 없어도
그들은 있다고
저 사품치는 쇠물속에, 굴착기의 거창한 위용속
에
10명 당원들의 맹세는 불타고있다고

나는 후더워오는 마음속에
그 누구를 만나도 들을수 있는
락원의 한결같은 이야기를 새겼다
어제도 오늘도 또 래일도
락원의 꺼질줄 모르는 숨결과 함께
궁지높이 울릴 그 숭엄한 목소리를 나는 들었다

-설사 우리가
10명 당원들과 한세포당원이 아니였고

그들의 아들딸이 아니라 해서
섭섭해마시고

우리는 락원사람
락원사람 그모두가
10명 당원들이랍니다

오, 락원사람, 락원사람
이 이름은
10명 당원들이 넘겨준
계급의 고귀한 칭호던가

다만 락원땅에 산다는
그것만이 아닌,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저 용선로의 쇠물처럼 티없고 열렬하던
10명 당원들의 그 숭고한 정신에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찾은 사람들

세월은 넘어 세대를 이어
그들의 심장에서
이 이름은 자랑차게 울린다
10명 당원들이 지켜섰던
그날의 용선로에서 쇠물로 사품치고

오, 그때문에 그때문에
우리 수령님
당은 항상 락원을 잊지 않는다고
그토록 과분한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락원을 찾으면 힘이 생긴다고
그토록 크나큰 사람으로
그대들을 안아주시는것 아니냐

락원사람, 락원사람
내 오늘 이 이름을 다시 새기며
뜨거운 생각에 잠겨
락원의 구내길을 걸어가나니 .
그대가 주형공이건 조립공이건
그대가 당일군이건 후방일군이건
그대들은 이하나의 이름으로
언제나 10명당원들과 함께 사는구나
아버이수령님앞에 영원히
10명당원들의 모습으로 서있구나

고구려화공

정은섭

1

밤은 깊었다. 잠든 화공들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화공 가무리는 피곤과 추위에 지친 몸을 벽에 반쯤 기대인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문너머 펼쳐진 밤하늘에 시선을 던졌다. 야밤의 이불마차는 (북두칠성)벌써 저쪽 하늘로 기울어지고 이그러진 달만이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었다.

가무리는 가슴이 조여드는것을 느끼며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걸로 다가섰다.

밖은 한결 청신해보였으나 쌀쌀한 늦가을바람이 살을 에이는듯싶었다. 수리를 시작한 궁전별체가 달빛속에 웅장한 자태를 히끄무레하게 드러냈는데 합각지붕의 골조들이 거대한 짐승의 록골처럼 바라보였다.

갑자기 궁실수리장 저쪽에서 화광이 하늘로 뻗어났다. 불길은 회오리바람처럼 솟구쳐 휘파람소리를 내며 바로 달빛까지 올라갔고 거기에서 날리는 불티들이 파수병들이 서성거리는 성벽너머로 사라져갔다. 이어 짙막한 웅침소리가 들리고 바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커다란 치미가 보였으며 궁전의 정원에 빼곡이 서있는 앙상한 나무들이 선명하게 드러 났다.

밤은 깊어도 궁실수리는 계속되고있는것이다.

가무리는 조용한 궁성 저쪽, 궁실수리로 밤을 지새우는 수리장과는 인연이 없는듯싶은 동궁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바로 저게, 공주가 거처하는 동궁에는 시녀인 그의 련인 아량이 있는것이다.

거기를 바라보노라면 아량의 모습이 환히 떠오르고 무엇보다도 리별이요, 눈물이요 하는것들이 있는것일가. 그리고 준비귀천이란 과연 하늘이 정해준것일가, 나에겐 아량을 저 동궁에서 이 광활한 땅으로 건져낼 힘이 정말 없단말인가 하는 생각들이 가슴이 미여지도록 안겨오는것이였다.

《가무리, 차네 잠을 이루지 못하는군.》

그는 등뒤에서 들려오는 근심스러운 목소리에 창문가에서 물러났다.

주름잡힌 얼굴에 코밑으로 수염을 갈라붙인 로 화공 무은이 맞은편 벽에 등을 기대고앉아 술진 눈섭밑으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가무리는 그의 앞에 조용히 다가서며 무릎을 꿇고앉았다.

《잠이 안와요. 성벽너머 저 궁실안에 아량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난 벌써 고향을 떠나 여기서 두번째 가을을...》

무은이를 바라보는 가무리의 두눈은 금시 물을 부어 끼버린 솟등걸처럼 눈물에 젖어 가물거렸다

무은은 가무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듯 그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고향과 련인을 떠나있으면 언제나 그리운 법이지.》하고 무은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리움속에서만 살아서는 안되지. 그리움을 이겨내고 사랑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돼야 해.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로 화공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가무리의 눈은 번뜩이었으나 그것은 잠시일뿐 가슴속에 얹어진 크나큰 고통으로 하며 곧 꺼져버리고말았다.

가무리는 2년전, 바로 375년에 여기 고구려의 수도로 끌려 왔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이 사는 오탁한 마을에서, 불타는 태양과 고요한 달빛에서, 설레이는 오탁과 들에 피여난 한떨기와 꽃에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를 느낄줄아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가무리는 장차 이름있는 화공이 되리라는 남다른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날, 가무리는 경당의 선생인 무은에게 자기의 그림을 내놓았다.

무은은 그림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직 서투르긴 했으나 소년의 그림에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었고 주마와 같은 슬기로운 고구려사람들의 기백이 보였으며 실생활이 느껴졌고 지어 환상까지 나래치고있었다.

무은은 가무리의 그림들중에서 한장을 골라냈다. 그것은 발을 가는 황소를 그린것이였다.

나어린 화공은 벌써 선을 살려 쓸줄 알았다. 단숨에 그어내린 굵고 진한 선들과 가늘고 연한 선들은 날땅을 갈아번지는 황소의 역센 기상을 잘 살려내고있었다.

소의 부릅뜬 두눈과 활처럼 휘여든 잔등, 땅을 박차고 보습을 끄는 역센 발은 굵고 진한 선으로 그려내렸고 나머지부분들은 가늘고 연한 선으로 처리하였다. 지어 금방 갈아번진 놀땅도 황소의 역센 힘에 놀래여 번져진듯싶은 감까지 주었다.

가무리는 무은의 손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선과 색채, 명암을 대상에 맞게 어떻게

리용하며 또 화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가무리는 《기운생동》의 요구를 그림에 나타낼수있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그 모든것에서 억센 힘과 진취성, 부드러움을 창조하여 아직 그것을 미처 포착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는것을 어렵잖이나마 느끼게되었다.

3년이 지난 여름, 가무리가 아버지와 함께 무술훈련에 갔다왔을 때 무은은 떠날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스승은 궁실화공이 되어 고구려의 수도로 가게 되었던것이다.

가무리는 오른팔을 잃은것 같았다. 락심한 그를 이끌고 문밖으로 나선 무은은 버드나무밑으로 걸어갔다. 그는 해별에 탄 가무리의 얼굴을 이윽도록 지켜보며 그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술퍼말아. 너도 이제는 제발로 걸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붓을 쓰는 법은 그만하면 될듯한데 이제 고구려의 정신을 붓에 담은줄 알아야 하느니라.

무술훈련을 끝나치고 돌아오면 나는 너를 데리고 왕골령밑의 사물못가기슭에 있는 폐허에로 가려고 했다. 그 폐허의 벽면에는 아직도 두폭의 벽화가 있지 그 벽화에 내 말하고저 하는 뜻이 깃들어있으니 깊이 따라배워 재간을 늘이거라. 꼭 쓸데가 있을것이다.》

가무리는 오래동안 소술한 가을바람에 흰수염을 흔들리는 스승의 근엄한 얼굴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갑자기 방안이 밝아졌다. 가무리의 생각은 끊어졌다. 궁실수리장에서 화광이 또 하늘로 솟구치고있었다.

잠시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던 가무리는 머리를 들어 무은을 쳐다보며 생각난듯 물었다.

《궁실화공관리인이 무엇때문에 나를 찾았을가요?》

《글쎄 고유가 무슨 일을 맡기자고 불렀겠지.》

《전번과 같은 그런 일을 맡긴다면... 아, 그때를 생각하면...》

가무리는 말끝을 맺지 못한채 몸을 떨었다.

《제왕과 복은 오는 문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불러들이는것이야, 범의 굴에 들어갔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방도가 난다는 말이 있지. 래일엔 시간을 어기지 말고 고유한테 가야 하네. 그러니 어서 눈을 붙이게. 저것 보라구. 밤하늘의 삼형제가 퍼그나 서쪽하늘로 갔구만.》 그는 제자리에 돌아와서 누웠다. 그러나 잠들지 못했다.

가무리는 나무베개에 머리를 기대고는 창문너머 밤하늘에 반짝이는 푸르스름한 별들이며 성벽너머로 사라지군하는 불티들이며 달빛에 점차 진하게 푸른 빛으로 물들었다가는 서서히 씻기우는 구름장들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면 눈앞의 모든것은 점점 흐려지고 그대신에 고향의 정든 땅과 광활한 초원, 버드나무 설레이는 마을과 수정같은 청류과의 흐름, 울창한 숲-벌써 두해동안 보지 못한 고향의 눈익은 광경이 못견디게 가슴을 조이며 서서히 펼쳐지는것이였다.

그의 심장은 또다시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화공생활과 파수와 관리들의 엄하고 사나운 눈초리밑에서 놀리우고 감추어졌던 지난날의 추억이 일시에 떠올랐다.

...가무리는 사냥경기장으로 말을 재촉하였다.

통이 좁은 바지에 코가 도드라진 목달린 가죽신을 신은 가무리는 넓은 천으로 발목우에서 무릎아래까지 감싸고 끈으로 동이였다. 무늬없는 밤색으로 만든 소매통이 좁은 저고리허리에는 가죽띠가 둘러매여있었는데 왼쪽에 솟돌을 차고 오른쪽에 칼을 찼다.

별에 탄 감실감실한 얼굴에 새꼬리 두개를 꽂아서 곱게 장식한 절풍을 머리에 쓴 가무리의 젊음에 넘치는 모습은 실로 림름하였다.

날씨는 맑았다. 무연한 벌은 볼수록 풍만하였다. 찰갑빛물결이 유유히 굽이치는 청류하의 흐름을 사이에 두고 이쪽 질땅에는 조발이 청색대양을 이루었고 저쪽 산기슭을 따라 펼쳐진 낱망은 천자만홍이 점점으로 흩어진 초원이였다.

모든것이 생생하게 빛나고 대기는 벌새들의 저저금소리로 가득하였으며 환히 띄운 하늘에는 태양이 한마리가 아래를 굽어보며 꼬리뼈를 파들파들 떨고있었다.

사냥경기를 하게 된 시간이 아직 반날해도 남아있는 이른아침, 초원을 지난 가무리는 버드나무가 우거진 청류하의 기슭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그는 오늘 경기를 하기전 이 호젓한 시간을 아량의 모습을 그리기로 그와 약속했던것이다.

실실이 늘어진 록옥주갈은 버드나무가지들은 기슭에 밀려드는 잔물결속에 잠겨 춤추듯 흔들거렸고 가볍게 일렁이는 은빛수면우에는 해빛이 자글자글 뿔었다. 부드럽고 신선한 바람이 청류하의 물결을 스치며 랑새들의 울음소리를 실어왔다.

가무리는 버드나무가지사이로 강웃녘을 살피기 시작했다. 한동안 강흐름조차 멈춘듯싶은 숨막힐 긴장이 서리였다.

이윽고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가슴은 사뭇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문득 등성이우에 아량의 모습이 나타났다. 가무리는 길게 숨을 내뿔었다.

처녀는 밤색 말에 몸을 붙이고있었다. 통이 좁은 저고리를 입고 연록색의 띠를 꼭 졸라맨 처녀의 옆구리에는 화살과 명적을 가득 채운 전통이 달라붙었고 맥궁의 줍피와 활꼬리를 련결한 구리고리는 어찌나 탁달을 냈는지 눈이 부시게 반짝거렸다. 말이 네굽을 옮길 때마다 등자에 건 자

그마한 빨간 가죽신을 신은 발이 춤추듯 흔들거렸는데 어느 모로 보나 균형이 잡히고 탄력이 넘쳐났다.

가무리는 버들숲에서 아량을 마중하러 달려나왔다.

말에서 가볍게 뛰어내린 처녀는 가무리앞에 멈춰섰다. 윤기도는 까만 머리카락이 처녀의 반듯한 이마주변에서 팔락이고 살며시 내리간 영채도는 두눈에는 반가움과 부끄러움이 어물려있었다.

가무리는 처녀앞에 한발자국 다가섰다. 아량은 살그머니 그에게서 물러났다.

가무리는 정찬 눈으로 처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고마워.》

《아이참, 어서 그러요.》

아량은 재빨리 활과 전통을 벗어놓고 강녘의 바위우에 올라섰다. 바위밑으로는 청류하의 푸른 물결이 굽이치고 구름 한점 없는 쪽빛 하늘이 처녀의 뒤에 끝없이 펼쳐졌다.

가무리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지그시 누르며 종이를 펼쳐들고 붓을 쥐었다. 한동안 종이우에서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얼마나 기다리던 날인가. 것처럼 종이우에 아량의 모습을 담고싶었으나 재간을 한탄하며 섣불리 결심을 내리지 못한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오늘은...

가무리는 이 오늘을 위해 남다른 우정속에서 쌓아온 아량과 자신의 지난날이 있은듯싶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듯싶었다.

생각하면 세월이란 저 청류하의 흐름처럼 빨랐다.

소꿉시절이 흘러간 이 기슭에서 그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것은 5년전이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다같이 훌륭한 무사였다. 7년 전, 아량의 아버지는 나라에서 벌리는 무술경기에서 일등을 하여 장수가 되었다. 그리하여 아량은 아버지를 따라 고구려의 수도로 떠나갔다. 리별의 안타까움과 서글픔, 눈물이 청류하에 실려갔다.

신미년(371년) 10일에 바다 건너 왜까지 끌어들여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던 근초고(백제왕)와 패하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그때 아량의 아버지는 선봉장으로 이름은 날렸으나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 2년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부모들의 가슴속에 갇들어있는 원한을 미처 알길 없었던 그들은 다시 만난것을 얼마나 기뻐했던가.

가무리는 처녀를 바라보았다. 아량은 물결치듯 오르내리는 가슴우에 손을 얹고 그에게 미소를 던졌다.

가무리는 몸의 선을 따라 차분히 드리운 옷자락과 팔기빛도는 가름한 얼굴에서, 방긋이 열린 발그스름한 입술과 영채도는 까만 눈동자에서,

한송이의 하얀 들꽃이 꽃혀있는 윤기도는 까만 머리와 버들가지를 만지작거리는 손에서 강하고도 열렬한 미를 보면서 인생의 문턱처럼 생각되던 그 철없는 시절을 다시금 읽는것이였다.

가무리의 불꽃튀는 두눈은 아량에게서 재빨리 종이우로 그리고 다시 처녀의 얼굴으로 옮겨갔다. 이제는 손도 떨리지 않았다. 종이우에는 가늘고 굵은 선들과 점들이 나타나고 이윽고 처녀의 룬박이 자리잡았다.

가무리는 온 정력을 눈과 붓끝을 모아 아량의 모습을 종이우에 담으려고 서둘렀다.

그는 처녀의 모든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만 보여서 그 어느 하나도 빼놓을가봐 두려웠던것이다.

시간이 흘러갔다. 바위우에 앉아있는 처녀의 두어깨는 늘어지고 머리에 꽂은 흰꽃은 시들어갔다.

가무리는 붓을 놓고 그림에서 물러섰다. 드디어 아량의 모습이 종이우에 담겨지고 그의 소원은 이룩된것이다. 그러나 가무리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온몸을 떨었다.

그림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바위우에 앉아있는 아량의 얼굴과 비슷한 하나의 종이장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아량의 아름다움이 빠진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처럼 아름답고 생기에 넘치는 처녀가 바위우에 앉아있는데 그림은 생명이 없는 한갓 종이장에 불과하단 말인가. 밤낮으로 익혀온 재간과 아량의 아름다움이 한데 어울려 훌륭한 그림을 낳게 되리라고 지금껏 생각해온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는 눈앞이 아찔해왔다. 자신에 대한 환멸이 피를 끓게 했다.

당황한 처녀는 바위우에서 내려섰다. 그는 재빨리 그림을 보고 가무리의 앞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죄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수리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난, 그 마음을 다 알아요.》

가무리는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쓸쓸하게 그러나 진정이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량, 나를 용서하오. 난...》

그는 비로소 자기의 재간이 아직 어리고 살아 숨쉬는 아량을 그리려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며 한갓 아름다움에만 매혹된 마음과 눈을 가지고는 안된다는것을 어렵듯이나마 깨달았던것이다.

이때 그의 귀전에는 떠나던 날 남기고간 스승의 부탁이 울려왔다. (폐허에서 남은 그림)

자신에 대한 환멸과 함께 불현듯 떠오른 욕망은 가무리의 어린 가슴을 불태웠다.

(그래 오늘 꼭 찾아가 보리라.)

멀리서 말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말우에 올라 사냥경기장으로 달려갔다.

사냥경기장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넓은 들에는 기치창집이 번뜩이고 말발굽소리가 요란하였다. 이윽고 대각소리가 울렸다. 사위는 갑자기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마을별로 모여서서 단을 세운 천막가에 시선을 던졌다.

드디어 언덕 저쪽에 가벼운 타고대가 담고를 두드리며 나타나고 뒤이어 화려한 수레가 보이였다. 가무리는 그것이 지방장관이며 군사지휘관인 태수의 행차라는것을 알았다. 수레에서 내린 태수가 시중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단우에 올랐다. 그러자 사냥경기를 알리는 북소리가 누리를 진감하고 단옆에 정렬한 열명의 젊은이들이 부는 대각과 쌍구대각의 힘있고 기백에 찬 소리가 멀리 벌판에 울려 퍼졌다. 그 여운이 사라지기도전에 두명의 대고수가 마당가운데로 나왔다.

《둥!-》

고수가 북을 쳤다. 그러자 단봉형의 창을 들어 쥔 무사가 달려나왔다. 그는 창을 머리위에 올렸다내렸다 하면서 재빠르고 가벼운 동작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높아지고 그의 발장단과 아울러 창을 쥔 손놀림도 빨라졌다.

무사의 힘있고 룰동적인 동작을 바라보는 가무리의 마음은 즐거워지고 온몸에 힘이 부쩍부쩍 솟는것 같았다.

무사는 발로 땅을 구르고 창을 번개같이 놀리면서 고수의 주위를 빙빙 돌았다. 무사의 씩씩하고 북장단에 잘 어울리는 힘있는 창춤은 그대로 적과의 싸움에서 용맹떨치는 고구려병사의 역센 기상을 보여주어주고있었다.

고수의 주위를 돌던 무사는 걸음을 멈추면서 창을 쥔 손과 함께 다른 한손을 머리위에 높이 들고 열광적으로 흔들었다. 순간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30명의 남녀들이 한꺼번에 앞으로 뛰어나왔다. 료를 지은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승리의 환희를 보여주는 춤이었다.

가무리는 그속에 아량이 끼여있는것을 보았다.

처녀의 날씬한 몸매시와 우아한 춤동작은 창을 쥔 무사의 역세고 힘있는 춤동작과 대조되면서 비할데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무리의 마음을 그려잡았다.

가무리는 더 참을수 없어 출판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처녀옆에 끼여들지는 않았다. 될수록 그의 곁에 있고싶어하는 지신을 처녀에게 보여주는것이 너무나도 쑥스러웠던것이다. 그러면서도 가무리는 아량에게 눈길이 쏠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자기 심장의 두리에 장벽을 쌓으려고 애썼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처녀앞에서 침착하기에 힘썼다. 그것은 그가 아량에게 품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소중한 여기기때문이였으리라. 그리하여 가무리는

남과 같이 춤동작에 열중하면서 환희에 흠뻑이기는 자신을 처녀에게 보여줄수 있었다.

경무와 연무가 끝나고 제자리에 돌아온 가무리는 사냥경기에 나설 준비에 서둘렀다.

출발을 알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가무리는 절풍을 벗어 마을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곧 말등에 날아올라 약간 몸을 굽히고 숲속으로 달려갔다.

남먼저 곰 한마리를 잡은 가무리는 말에서 내려 자기의 로획물앞에 다가섰다. 그것은 보기 드문 커다란 곰이었다. 만족한 가무리는 아마의 땀을 씻고 사위를 휘둘러 살렸다.

(폐허가 어디일가?)

가무리의 생각은 또다시 머리에 인박힌 스승의 부락에로 내려쳤다.

가무리는 말을 달려 수림속을 지쳐들어갔다. 얼마나 달렸는지 인적없는 수림속엔 야릇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순간 그는 자그마한 물도랑을 건너 수풀이 무성하고 키높은 나무들이 듦성듬성한 골안에 커다란 건물의 폐허가 있는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에는 무언이 들려주던 잊지 못할 이야기가 삼삼히 떠오르고 골안의 뒤에 높이 솟은 령이 왕골령이며 방금 건너신 실도랑이 사물뫼로 흘러드는 개울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사냥도 잊어버리고 폐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기념는 풀을 헤치고 깨어진 기와장을 타고 넘으면서 걸어가던 가무리는 반나마 무너진 방에서 벽면에 그린 한쪽의 그림을 발견하였다. 모서리가 부서져내린 커다란 벽에는 격전장면의 대화폭이 펼쳐져있었다. 세월의 눈비속에도 색하나 변하지 않은데로...

그 수를 세어볼수 없는 정도로 많은 아군의 기병과 보병들, 그와 맞서고있는 거의 배나 되는 적병들, 창과 창, 칼과. 칼의 맞부딪침소리가 금시 들려오는듯싶은 그림에는 꺾을수 없는 고구려군사의 힘이 보였으며 살아 움직이는듯한 생동성이 부여되어있었다.

놀라운것은 대화폭의 중심에 그려진 고구려군사가 타고있는 세필의 말이였다. 그런데 그 세필의 말중에서 가운데것은 흰색으로, 나머지 두필은 분홍색과 초록빛으로 채색되어있었다. 아직 이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는 분홍빛 말과 초록색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화공은 대담하게 색채의 허구를 쓴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화폭의 분위기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찾아낸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비록 옛것이라도 배워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이처럼 호랑하게 그려가던 화공의 붓이 여기에서 검은 자욱을 남긴채 멈춰지고 적장의 머리의 투구우에는 붉은 술대신 창끝의 예리한 타격으로 남겨진듯한 깊은 상처자욱이 보일뿐이다.

어이하여 이 세상을 놀래울 결작이 이처럼 폐물로 되어 초야에 묻힌단말인가. 여기에 그 무슨 깊은 사연이 담겼을가...

가무리는 화공의 기교에 찬탄과 함께 빛을 보지 못한 그림에 한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폐허의 다른 벽면에서 또하나의 그림을 찾아냈다. 그림은 하늘을 날고있는 녀인을 형상한 것이었다.

기쁨이 넘쳐흐르는듯 가벼운 미소를 띤 녀인의 상반신은 약간 추켜들려있었다. 흐르는듯한 몸의 물동에 맞게 꽃줄기와 날개를 펼쳐이며 끝없는 하늘을 향해 파도쳐 날아가는 녀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가무리를 황홀케 했다.

불그스름한 얼굴에 가는 눈과 눈썹, 빨간 입술, 그리고 조화된 녀인의 미를 투명한 나래옷으로 전달하고있는 화공의 솜씨는 얼마나 훌륭한가.

어찌보면 아량을 련상시키는 얼굴, 끝모르는 하늘을 날며 풍만하고 수려한 강산을 바라보는 희열로 하여 부풀어오른 가슴, 기쁨이 그대로 피어난듯싶은 녀인의 가슴에 없어진 꽃줄기, 몸을 휘감은 얇은 옷과 날개의 가벼운 흐름까지 연하고 부드러운 색으로 보여준 그림은 경탄을 금할 수 없게 했다.

가무리는 그림이 그리진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은 화면이 굳기전에 그리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었다. 화공은 그림의 견고성과 화면이 다르면서 이루어지는 특유한 빛갈에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자면 화공에게는 화면이 마르는 짧은 시간밖에 차례지지 않는다. 순간이 하루맛 잡이로 느껴지는 짧은 시간. 더우기 그림을 그릴 때처럼 그렇게도 많은것을 꿈꾸는 화공에게 있어서 이 순간의 시간과 감정을 무엇으로 바꾸었을까.

또 이 원화에 그려진 대상자는 누구였을까. 어떤 녀인이 화공의 붓끝으로 하여 여기로 옮겨왔을까.

련인일까, 아니면 귀여운 딸일까. 혹시 어느 마을의 평범한 녀인일까.

그가 누구이든 고구려의 녀인일 것이다.

실로 고구려녀성의 아름다움과 행복에로의 지향을 그대로 아로 새긴듯한, 수려한 고구려의 산천이 그대로 변한듯한 그림... 그런데 자신은 왜서 여직껏 이것을 몰랐을까.

가무리는 바로 스승이 그림에 깃든 화공의 녀를 배우라고, 그것이 없이는 붓을 칠수도, 재간도 한갓 견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심장속에 깊이 새겨두도록 이 폐허에 찾아가라고 한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생각은 아량에게로 번져갔다. 아량의 모습이 녀인대신 그의 눈앞에 산모습으로 떠오르면서 자신에 대한 환멸로 피가 끓던 줌전의 일이 다시금 밝혀왔다.

(아, 나도 저 그림을 그린 화공의 마음으로 아량을 종이우에 옮겨볼수 있을가.)

그는 그림을 보면서 자리를 뜨지 못했다.

멀리서 말음소리가 들려왔다. 가무리는 그림에 정신이 팔려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떠나기 아쉬운듯 또 한번 그림은 보고나서 말있는곳으로 뛰어갔다. 그의 옆으로 술한 짐승을 잡은 사냥꾼들이 질풍같이 달려갔다.

가무리는 눈앞이 아뜩해졌다. 그는 숲속을 정신없이 헤매었다. 그러나 한마리의 짐승도 눈에 띄우지 않았다.

말머리를 돌린 가무리는 머리를 찌히고 한숨을 내뿜었다.

흰구름이 뚱뚱 떠가는 하늘에는 그를 희롱하듯 수리개 한마리가 유유히 떠돌고있었다.

문득 그의 머리에는 저놈의 수리개를 잡아 바치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낼수 없는 기발한 생각이였다.

그는 전통에서 활을 뽑아 시위에 걸고 거리를 가늠해보았다. 수리개는 이 무슨, 부질없는 짓을 하느냐는듯 빙그르르 원을 그리다가 먹이를 찾아 아래로 내려쫓았다. 순간 가무리는 살을 날렸다. 수리개는 그의 발앞에 떨어졌다.

그날부터 가무리는 그림그리기에 달라붙었다. 섭섭히 바라보던 아량의 수심깊은 얼굴에 기쁨의 홍조가 불타오를것을 눈앞에 그리며 가무리는 붓을 날려갔다. 일각이 삼추같은 그리움도 참고 견디며 래일은 꼭 노을비긴 청류하기슭에게 그섬 섬옥수에게 꼭 쥐여주고 또 그처럼 하고싶던 사랑의 고백도 하리라고 다짐하면서...

그러나 가무리의 그 아름다운 꿈은 한낱 꿈으로 영원히 깨여지고말았다. 그와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 가무리는 궁실수리에 모자라는 화공을 징집하여 보내라는 임금의 임령을 받은 태수에게 끌려갔고 거기서 남부의 육살이에게로, 그리고 나중에는 고구려의 고구려의 수도로 끌려 왔던 것이다.

고향을 떠나던 날 술한 마을사람들이 둘러싼 그속에서 가무리는 자기의 뜨거운 마음이 아로새겨진 그림죽자를 호느끼는 아량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는 아량의 두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맹세다지듯 말했다.

《내 꼭 돌아오겠소.》

가무리는 아량의 두손을 놓고 수레우에 올랐다. 수레는 천천히 자리를 떴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수레는 점점 멀어져가고 처녀의 모습은 작아졌다.

《가무리!-》

처녀는 불꽃이 한껏 어우러진 들판에 그만 실신한듯 쓰러지고말았다. 그바람에 푸른 잔디밑에 펼쳐진 그림은 불어온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허허벌판에 구울렸다...

《아랑!-》

가무리는 몸을 번쩍 일으키며 손을 내밀었다. 순간 두벅두벅거리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오고 이어 창문가에 나타난 파수의 무표정한 얼굴이 모든 과거를 현실로 덮어버렸다.

가무리는 손을 내리우며 부지중 외마디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궁전수리에 끌려온, 아찔한 성벽으로 둘러싼 이 음침한 방에 갇힌 한갓 화공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만 가슴이 와그르르 무너져 내리는것만 같았다.

2

가무리는 아침 기상을 알리는 요란한 북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 안개가 서린듯 눈앞이 뿌옇하고 머리가 뻗하였다.

그는 새벽추위에 몸을 웅송그리며 실눈을 짓고 환히 밝아진 창문이며 서까래가 드러난 천정이며 벌써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무언을 불안스럽게 바라보았다. 불현듯 가슴을 짓누르는 알지 못할 그 어떤 위협이 가까이에서 뻗도는듯하였다.

밖에서 말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가무리는 궁실화공관리인 고유가 자기를 찾았다는 그것이 마음속에 불안한 자아냈다는것을 깨달았다.

《고유가 벌써 사람을 보냈네.》

무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에게 알려주었다.

가무리는 천천히 좁다란 출구로 향하였다. 하늘에는 까마귀날개같은 구름이 한벌 쪽 깔렸고 앙상한 나무밑에 널린 락엽들이 싸늘한 바람에 보들보들 떨고있었다.

그는 뒤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오자 걸음을 멈추었다. 무은이 곁으로 다가왔다.

《듣자니 휘수가 왜놈까지 끌어들여 국경에 술한 군대를 은밀히 모아들인다고 하네.》

무은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곧 사신을 보내겠다고 한하는데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모르네. 아무래도 자네를 찾는 고유의 행동이 심상치 않네.》

《고유? 어떻게 할가요?》

《정신만 잃지 않으면 지옥에 간헛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네.》

무은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결심한듯 가무리의 두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유의 매력에 이야기했다.

고유는 계루부(고구려에 있는 5부의 하나)의 고씨가문에서 태어났다. 사유의 집정때에 나라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다. 이것은 외부에서 닳은 벼슬에 있으면서 출세와 향락만 노리던 고유에게 있어서 더없는 기회였다.

그는 임금앞에 나서서 이 어려운 고비를 한몫 바쳐 풀어보겠노라고 두손을 모아쥐고 맹세를 했다.

순간이 급한 때여서 임금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고유는 맹활동으로 나라에 조성되었던 어려운 고비를 요행 무사히 넘겼다. 그리하여 고유는 임금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가 것처럼 노리던 출세와 향락의 길은 열려졌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고유는 임금에게 아침하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재산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으리으리한 집도 새로 짓고 밤마다 주연을 베풀면서 부화타락속에 세월을 보내는 그를 꾸짖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거짓말을 하여 때버리는 무서운 일도 고유는 손쉽게 해냈다.

371년 왜까지 끌어들여 고구려땅을 노리던 근초고와의 두번째 교전이 있었다. 이때 고유는 상가집개처럼 구멍수만 찾고 전장에서 비겁하게 뒤끝목 처세술만 쓴것으로 하여 고구려군사는 패하에서 실책을 당하게 되었다.

고유는 패하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운 선봉장의 한사람인 아랑 아버지의 군복을 벗기고 쫓아보냄으로써 발뺌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적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있던 임금은 고유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았다.

외부에 있던 고유의 친척이 사유집정때의 일을 두고 침이 마르게 칭찬하면서 손이 닳도록 빌었다.

임금은 노여움이 컸으나 오랜 생각끝에 그를 관대히 용서해주었다. 그리하여 고유는 외부에서 쫓겨나 궁실화공관리인이 되었던것이다...

가무리의 두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아랑의 아버지가 군복을 벗기우고 초야에 묻힌것도 더우기 아무런 죄도없는 아랑마저 시너로 끌려오게 한 고유의 죄책은 그를 몸서리치게 했다.

고유의 집은 키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있었다.

백성을 쥐락펴락하던 고구려의 통치자들은 백성들과 떨어져 자기들의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누가 감히 들어오거나 엇볼수 없게 해자를 파고 아찔하게 높은 성벽을 쌓았으며 집주위에는 두텁고 키높은 담장을 둘렀다.

그러나 또 가무리는 건축가들과 화공들이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재능에 의거하여 귀족들의 구미에 맞게 지어놓은 이 호화찬란한 절들을 보면서 노비와 하호들에게 던지는 대가들의 위엄속에 백성들에 대한 귀족들의 두려움도 깃들어있다는것을 알았다.

고유는 대문밖에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때아닌 친절성이 오히려 그에게 불쾌감을 자아냈다.

목직한 대문안에 들어선 가무리는 기암괴석이 물우에 솟아있는 커다란 못을 지나 향내가 코를 찌르는 접대실에 안내되었다.

고유는 가무리에게 잠간 기다리라 하고는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넓은 방 안에서 홀로 서성리면 가무리는 도배한 벽에 걸려있는 한쪽의 그림앞에서 굳어져버렸다. 그것은 바로 2년전, 리별의 그 시각 그가 아량에게 준 그림이었다.

고유는 아량에 대한 사랑의 상징인 가무리의 족자마저도 자기 집으로 빼앗아왔던것이다.

흐르는듯한 몸의 물동에 맞게 꽃줄기와 날떠를 펴력이며 끝모르는 하늘을 지유로히 날고있는 아량의 모습이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그려잡았다. 마치도 그 한쪽의 그림속에서는 고향이 보이는 듯싶었고 사랑하는 아량이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오는것만 같았다.

가무리는 한걸음, 한걸음 그림앞으로 다가섰다.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 지난날의 소중한 모든것이 또다시 솟구쳐올랐다.

(아, 언제면 나도 아량과 함께 훨훨 날아 고향에 갈수 있을까.

고향집의 사립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서 아버지와 어머니며 다람쥐처럼 오르내리던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 정다운 버드나무를 감회깊게 바라볼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

단들이 만났던 청류하기슭을 아량과 함께 거닐 그날은 또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가무리의 두눈에는 눈물이 어리었다.

발자국소리가 나고 이어 시중군이 음식을 가져왔다. 난생처음 보는 진수성찬이었으나 가무리는 입에 넣고싶지 않았다. 그는 무엇때문에 고유가 찾았으며 때아닌 이 친절이 과연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풀길없는 안타까움과 한시바삐 이곳을 떠나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윽고 얼굴에 술독이 얼근히 오른 고유가 순에 족자를 쥐고 나타났다.

그는 음식을 왜 들지 않았는가고 가무리를 나무람하면서 최상에 앉았다. 고유는 가무리를 재간있는 전도유망한 화공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난 네가 그런 공주의 화상때문에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는것은 숨기지 않아. 임금께서는 대단한 만족을 표시하시었어.》

고유는 얼굴에 빙그레 웃음을 띠우며 가무리의 어깨를 두드리기까지 했다.

순간 가무리는 지금껏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던 주먹같은것이 불끈 치미는것을 느끼었다.

(피눈물을 삼키며 그런 그 공주의 화상을...)

그의 눈앞에는 공주의 화상을 그리던 가슴쓰린 추억이 삼삼히 밟혀왔다.

...가무리는 수리가 끝난 궁실의 수많은 방들, 회랑의 장식과 벽화들,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그림들을 그리는데 골려다니면서 마음속에 사무쳐오는 고향이며 아량에 대한 생각을 순간이라도 잊지 못하고있었다.

가무리의 남다른 재간, 사람들의 얼굴특징을 포착하고 그것을 그리는데서 나타나는 특기는 고유의 눈독을 끌었다.

어느날, 가무리는 고유와 함께 동궁으로 갔다. 고유는 이제 며칠후에 있게 되는 공주의 성대한 생일잔치행사를 맞이하여 그의 화상을 그리기로 결심하였다.

임금이 딸을 지극히 사랑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야심가는 공주의 화상을 그려바침으로써 잃어버린 임금의 총애를 되찾으려고 하였다. 그는 이 기발한 생기를 실현하는데 가무리를 써먹으려고 했던것이다.

갓가지 꽃과 희귀한 나무들로 꾸려진 동산과 인공못으로 둘러싸인 공주가 거처하는 동궁은 아름답고 웅장하기 그지없었다. 푸른 색을 내뿜은 록유기와들, 거대한 처미와 귀면기와 귀면관불꽃으로 치레한 합각지붕은 채석한 벽돌로 쌓은 벽과 둥글게 가공한 주춧돌우의 아름답리 기둥에 치받들려있었다.

가무리는 여러가지 형태의 루들과 정자들, 못우에 놓인 무지개다리를 지나 동궁의 첫방에 들어섰다.

화려한 휘장을 친 넓은 방에는 누런 색 두루마기에 청파로 만든 관을 쓴 관리들, 금갑옷차림의 무사들, 세쪽으로 무은 치마를 입은 시중군녀자들로 꽉 차있었다. 그는 다시 회랑을 지나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현란하고 다채로운 무늬로 장식된 방바닥과 사회가 걸려있는 벽, 갓가지 진귀한 공예품들이 놓여있는 방은 그를 어리둥절케 했다. 이 방에도 역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수 없는 사람들로 차있었다.

고유는 가무리에게 그림그릴 준비를 갖추라고 이르고는 다른 방문을 열었는데 황금귀걸이가 반짝이는 녀자의 모습이 얼핏 보였다. 한참후에 고유가 황황히 나오고 뒤이어 자지할문금으로 만든

통이 넓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녀자가 시중군들의 부축을 받으며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귀족들이 일순간에 머리를 수그렸다.

가무리는 그가 공주라는것을 깨달았다. 아직 출가전임을 말하여주는 뒤로 곱게 빗어내린 머리에는 황금머리꽃이가 꽃혔고 눈같이 하얀 목에도 황금목걸이가 걸려있었다. 시녀에게 맡긴 두팔에도 황금팔찌를 감고있었는데 통통한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여있는 작은 손에는 부채가 들리있었다.

공주는 평상에 퍼놓은 두툼한 비단이불우에 앉았다

윤기흐르는 까만 머리, 가는 검은 눈썹, 생기있는 눈동자, 밧그스름하게 익은 랑불과 오목한 코, 도톰한 입술,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어진 턱 밑의 까만 작은 김, 소녀티를 갖 벗어난 공주는

예쁘게 생겼다. 공주는 점잖은 모양을 하고있었으나 아직 소녀의 천진성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공주의 얼굴에서 대번에 특징을 잡아낸 가무리는 곧 붓을 쥐었다. 방안의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때 자그마한 타원형의 앞치마를 두른 시중군 처녀가 네발달린 런꽃무늬단지와 옥잔을 공주가 앉은 평상옆에 가져다놓고 머리를 소곳이 숙인채 분부를 기다린듯 섰다.

얼핏 그 시녀에게 눈길이 미친 가무리는 공주보다 비할바없이 아름다운 모습에 두눈이 커졌다.

순간 가무리는 너무도 이외의 일에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그는 아량이였다.

가무리는 터져나오는 소리를 내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악물었다.

(아, 아량이?! ...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데 있단말인가.)

눈알이 뿌잇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채색감에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내렸다. 이제는 그의 눈앞에서 공주의 모습은 사라져버렸다.

해빛이 자글자글 뛰놀고 랑새들의 우짖음소리를 실어오던 청류하기슭, 은빛물결이 굴실대는 바위우에 서있던 아량의 가름하고 매력있는 얼굴이 그의 마음을 부른다. 불타는듯한 까만 눈동자.

방긋이 열린 미소띤 얼굴, 하얀 들꽃이 꽃혀있는 윤기 함츠르한 머리, 버드나무가지를 친 손에서 느낀 강렬하면서도 너성다운 미가 뚜렷한 형상으로 되살아오른다. 창을 친 무사의 동작과 대조되던 아량의 날씬한 몸매시와 우아한 춤동작, 얼굴에 넘친 희열이 그의 붓끝을 이른다. 봄꽃이

한껏 어우러진 들판에 자기를 부르며 쓰러지던 모습과 회오리바람에 나뭇기던 그림이 가슴에 불씨를 떨군다.

고구려녀성의 참된 미를 지닌 아량, 단 한번이라도 마음껏 그려보고싶던 아량이였으나 공주를 그려야 하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사랑과 증오가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가무리는 누구를 그리는지도 의식하지 못한채 붓을 놀렸다. 공주의 화상을 끝마친 가무리는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왔다. 거처로 돌아온 그는 방바닥에 쓰러져 목놓아 울었다...

가무리는 불씨가 황황거리는 눈으로 고유를 쏘아보며 두손으로 상다리를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고유는 여전히 얼굴에 웃음을 담으면서 좌상에 서 일어나 그의 앞에 족자를 펼쳐놓았다.

《이 그림을 보라.》

그림이라는 말에 가무리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족자에 쏠렸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족자에는 미녀가 그려져있었다. 가슴에 얹어진 미녀의 손에는 한떨기의 꽃이 쥐여있었는데 그것은 활짝 핀 런꽃이었다. 그것을 보자 그의 마음은 또다시 아픔으로 죄어들었다.

《외부에서는 닷새안으로 미녀를 그럴 분부를 내리였다. 그림이 나라일에 크게 쓰이게 되느니 만큼 재간과 정성을 다해야 할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고유는 족자의 그림을 손으로 짚으로 말을 이었다.

《여기에 그려진 너인의 얼굴은 아름답지도 않고 친절성이 없어. 손에 쥔 런꽃이 곱기는 하지만 너인의 감정과 어울리지 않아. 난 이 그림을 버리고 새롭게 그럴것을 너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쑥발에 묻히고 때를 만나면 주저치 않고 나서는것이 사람의 일이거늘 가무리, 때를 놓치지 말고 재능을 감추지 말라.》

고유는 좌상에 가앉았다.

가무리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으며 족자에서 물러났다. 일순간 고유의 얼굴에는 표독함이 어렸다. 그는 곧 표정을 바꾸어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난 이미 너의 재능을 아느니만큼 이번 그림만 잘 그리면 너의 모든 청을 다 들어주도록 힘쓰겠다.》

가무리는 생각에 잠겼다. 다시없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제는 자신의 손에 모든 운명이, 아량의 운명까지도 달렸다는것을 그는 깨달았다.

고향에 갈수 있고 아량을 구원할수 있다면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생각한적이 그 몇번이었던가. 가무리는 고유의 청을 랑심에 걸고 생각해보았다. 아무것도 꺼리는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행운파도 같은것이였다. 그는 흥분으로 가볍게 떨리는 손에 족자를 쥐었다.

만족한 고유는 좌상에서 일어났다.

《잘 생각했다. 래일 너에게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미녀를 보내주겠다.》

가무리는 고유의 방에서 나왔다.

하늘에 깔렸던 검은 구름은 산산이 흩어지고 부신 해빛이 비치내렸다.

그는 거처로 돌아왔다. 방은 텅 비어있었다.

가무리는 방바닥에 족자를 펼쳐놓고 오래동안 그것을 뜯어보았다. 너인의 자세는 좋으나 종이에 딱 붙어 숨을 쉬는것 같지 않았다. 더우기 꽃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친것으로 하여 북받쳐오르는 소중한 감정을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림에는 화공의 뉘이 보이지 않았으며 어떤 새것도 느낄수 없었다.

어째서 화공은 선 하나, 색 하나라도 현실에서 옮겨와야 하며 사소한 선과 점의 잘못으로 전체를 망칠수 있다는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가. 그의 심장속에는 진실로 사랑하는 너인이 없었을가.

화공이 붓을 칠 때는 아직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거나 설사 여직껏 봤다고 하더라도 미처 깨닫지 못한 새로운것을 펼쳐보아야 하는것이 아닌

가. 노리는것이 없는 그림, 새것이 없는 그림은 죽음과 같은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려야 할가. 아름답고 순결하며 근면하고 정열적인 고무려녀인의 세계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새로운 착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족자를 밀어던지고 벌렁 방바닥에 누워버렸다. 창문으로 비쳐든 해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부질부질 피어올랐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가무리는 천천히 오솔길을 따라 강쪽으로 걸어갔다. 나즈막한 등성이에 올라서니 패수의(지금의 압록강)용용한 흐름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비단같은 연한 안개가 흐르는 강북편에는 고기배 몇척이 떠있다. 한척의 배는 벌써 그물을 치기 시작했다.

강 건너 저쪽, 고향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따듯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다정하게 두볼을 어루만져준다.

가무리는 물기거둔 버들숲을 헤치고 강변으로 내려섰다. 잔물결이 밀려와 햇빛을 머금은 보석같은 물방울을 발밑에 휘뿌렸다.

고향과 경계선을 이룬 패수, 고향의 맑고 유유했던 청류하의 흐름과는 다르게 험한 산악을 치받으며 사뭇쳐흐르는 성질이 급한 강이건만 그에게는 정답게만 느껴졌다.

문득 잘다란 구슬을 쏟아놓는것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으로 시선을 던진 가무리는 여려명의 처녀들이 바구니를 안고 강가로 뛰어오는 것을 보았다. 산에서 캔 약초를 씻으러 온것 같았다.

그는 얼른 나무숲속으로 들어갔다. 처녀들의 즐거움에 방해될까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처녀들은 강변의 모래톱에 빙 둘러앉아 저마끔 바구니를 앞에 놓고 누가 더 많이 약초를 캐는가고 깔깔대며 한참이나 싱갱이질을 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우승으로 결정된 모양 한 처녀를 일으켜세우고 그를 향해 손뼉을 치며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다른 처녀가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이 가을철에도 지지 않고 핀 철늦은 들국화 한송이를 꺾어왔다. 그는 꽃을 가슴에 갖다대고 상대방 처녀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진정에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처녀의 손에 그 꽃을 쥐여주었다. 처녀는 방긋 웃으며 꽃을 코밑으로 가져갔다.

기쁨으로 활짝 피어난 처녀의 얼굴과 꽃을 밑으로 가져가는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행동, 그리고 꽃을 처녀에게 안겨주던 다른 처녀의 진정에 넘치는 모습이 하나로 통일되어있었다.

가무리는 흥분을 금할수 없어 나무숲에서 뛰쳐나왔다. 처녀들은 와들 놀라며 그대로 자리에 굳어졌다.

그는 처녀들에게 미소를 던지고 정신없이 등성이우로 달려갔다.

(바로 저것이다. 저것을 그려야 하는것이다.)

이제는 고유가 보내줄 그 대상자의 얼굴과 자세에 바로 저 처녀들의 꾸밈없는 행동과 진정에 넘치는 감정을 담으면 되는것이다.

가무리는 아량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이 눈앞에 보여와 날개라도 돋힌듯 성문쪽으로 뛰쳐갔다.

그가 거처로 돌아왔을 때 무은은 고유의 족자를 보고있었다. 가무리는 그에게 고유에게서 받은 일과 약속을 이야기했다. 무은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가무리의 발견을 귀담아 들었다.

《그래 그미녀는 남에게서 꽃을 받은 모습인가, 아니면 남에게 꽃을 주는 모습인가?》

순간 가무리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붓을 칠수 없는것이다.

《걱정할건 없네. 고유가 알려주게 될테니까. 그런데 그림을 어디에 쓰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인데...》

둘은 방안을 오락가락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3

박은 석양녘의 주홍빛색채로 불타고있었다. 궁성안의 곳곳에 솟아있는 루들과 정자들이 앙상한 나무아치들속에 유난히 두드러져보였다.

가무리는 학의 날개처럼 펼쳐진 궁궐의 좌측 나래채로 갔다. 나래채를 둘러막은 담장모양의 회랑을 지나 어느 한 방으로 그는 안내되였다.

고유는 그를 방에 남겨두고 열방으로 갔다. 가무리는 문쪽으로 다가섰다. 비스듬히 열려진 문틈으로 턱밑 구레나루가 짙은 관리의 노한 얼굴이 보이고 열기핀 그의 목소리가 새여나왔다.

《그것을 사신에게 중단말이요?》

《그놈을 구슬려서 다시는 고무려를 엿보지 못하도록 하자는것이요.》

고유의 대답이였다.

《이 무슨 피이한...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왜까지 끌어들여 침략과 적대를 일삼아온놈들인데 구슬리다니. 그래 벌써 패하의 실책을 잊었소. 수복성의 승리가 꺾을수 없는 나라의 존엄을 보여주고있는데 그런짓을 하나니. 놈들에게는 오직 단호한 징벌만이 있을뿐이요.》

이것이 고무려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유일한 태도요.》

《능숙한 외교는 화를 복으로 만들수 있소. 오즈음 휘수는(백제의 근구수왕) 기세가 올랐소. 그리고 지금은 겨울인데도 눈은 오지 아니하고 때아닌 우뢰가 울며 민간에 전염병이 퍼지니 어찌 하늘이 무심타 하겠소.》

이미 외부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있으시오.》

《당치않는 소리요.》

문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조용해졌다. 가무리는 문앞에서 물러섰다.

그의 생각은 깊어졌다. 도대체 사신이란 어느 나라 사신이며 그에게 무엇을 준단말인가. 문득 그의 머리에는 휘수가 왜까지 끌어들여 국경에 술한 군사를 은밀히 모아들이고 사신을 보내겠다고 한단 무은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그 사신이란 휘수가 보낸놈이 아닐가. 그놈에게 무엇을 주어 구슬린단말인가?

방에서 나온 고유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썰룩거리며 우측벽에 있는 작은 문을 열었다.

불빛이 확 비쳐나오고 초가 타는 냄새가 풍기었다. 형상에 앉은 너인의 치마자락이 눈에 띄었다.

가무리의 가슴은 울렁거리게 시작했다. 그는 평상에 앉아있는 저 너인이 바로 붓으로 옮겨야 할 대상이라는것을 알았다.

《이리 나오너라.》

고유가 너인을 불러냈다.

치마자락 스치는 가벼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고개를 숙인 너인이 문가에 나타났다. 창문으로 비쳐든 타는듯한 한줄기의 석양이 너인의 얼굴에 떨어졌다.

순간 가무리는 깜짝 놀라며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의 앞으로 아량이 걸어오고있는것이 아닌가! 가무리는 꿈이 아닌가 싶어 두눈을 크게 떴다. 방안이 핑그르르 도는것 같기도 하고 딛고선 바닥이 한정없이 꺼져들어가는것 같기도 했다.

아량은 시선을 땅에 떨구고 두손을 맥없이 드리운채 방가운데 멈춰섰다.

《저 얼굴에 꽃을 남에게 주는 너인의 친절성을 잘 담아야 한다.》

고유는 아량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면 너는 아량과 함께 고향으로 가게 될게다. 그러나 그림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리라는것을 모르지 않을테지.》

고유는 으름장을 놓고 나가버렸다.

방안에는 가무리와 아량만이 남았다. 잠시 방안은 쥐죽은듯한 정적속에 잠겼다. 가무리는 얼어붙은듯 꼼짝하지 않고 아량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렇게도 정열에 타던 까만 눈동자는 재가 된듯 흐려져 미소가 떠날줄 모르던 명랑한 입술은 터갈라졌다. 마음의 고통이 한눈에 느껴지는 그늘진 아량의 살릿한 얼굴을 보니 수만가지 생각이 두서없이 토막토막 떠올랐다.

가무리의 귀에는 아량이 나직이 내뿜는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한숨소리는 지금껏 애타게 살아온 가지가지의 눈물겨운 사연을 알려주는것만 같았다.

(아, 아량이 저런 한숨을 얼마나 많이 지었으며 남몰래 눈물인들 또 얼마나 흘렸을가. 하루에

도그 몇번 고향과 나를 생각했을가. 지금 아량의 저가슴에는 숯덩이만 남았으리라.)

그는 죄어드는 가슴을 안고 아량의 곁으로 다가섰다.

《아량!-》

가무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량은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일순간 그의 몸은 곳곳해지고 동자가 흐려졌다. 그는 기력이 말라버린듯 옆으로 기울어졌다.

가무리는 얼른 아량을 받아안았다. 그리고는 심장이 쿵쿵 흉벽을 두드리는 넓은 가슴에 그 누구에게 빼앗기열가봐 두려워하듯 꼭 그러안았다.

이윽고 아량은 두눈을 살며시 열며 오열을 터뜨렸다.

《가무리!-》

그는 가무리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으며 더욱 세차게 흐느꼈다. 아량의 심장이 뛰는 드높은 고동소리는 가무리의 무한한 정력을 들끓게 했다.

(아량, 이제 너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어주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리라.)

가무리는 어떤 시련도, 곤란도 이겨내고 기어이 아량과 함께 고향에 가리라는 굳은 결심에 사로잡혔다.

그처럼 멀어보이고 희망이 없던 고향과 아량은 이제 눈앞에 있지 않는가.

꿈에도 못잇는 고향, 눈물로 채색감을 풀어 공주를 그려야 했던 가슴이 찢기는 그때를 잊지 않고 태양같은 열정과 땅과 같은 재간으로 그처럼 마음껏 그리고싶던 아량의 얼굴에 고향과 사랑을 담으리라.

가무리는 눈물에 젖은 아량의 얼굴을 황홀히 바라보며 뒤로 흘려내린 윤기도는 머리에 손을 가져갔다.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으니 밀려오는 기쁨에 가슴이 무르녹는다. 온몸에 날씨가 휘감기면서 하늘에 비긴 불타는 노을속으로 훨훨 날아가는듯싶다. 청류하의 은빛흐름이 보이고 고향이 펼쳐진다. 꿈아닌 현실이 그의 눈앞에 다가선 것이다.

어느덧 저녁노을도 사라지고 푸릿한 하늘에는 첫별들이 매달리기 시작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무은이 기다린듯 그를 맞았다. 무은은 초불곁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는 피로운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가 그리는 그림이 바로 휘수의 사신에게 줄것이라는것을 알아냈네. 자네가 그린 공주의 화상으로 임금님의 총애를 받은 고유는 행운을 바라면서 외부에서 벼슬을 하는 친척과 함께 쓸개빠진것을 하고있네.》

가무리는 눈앞이 아득해왔다. 지금껏 안개속에 싸인듯싶었던 모든것이 선명해졌다.

(고유는 바로 그런 놈이었구나. 그놈은 고구려대국의 존엄을 생쥐처럼 쏘아대는 너절한 인간쓰

레기였구나. 그러다면 나는 무엇인가. 교유의 한
갓 리용물이 아니었던가.)

가무리는 터지는 가슴을 부여안으며 창문결로
뛰쳐갔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창살을
틀어쥐고 몸을 떨었다.

그는 지금 교유의 약속을 지키는가 아니면 거
역하는가 하는 두길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하나의 길은 사랑하는 아량과 함께 낮이나 밤
이나 그들을 위해 열려져있을 고향의 사립문으로
가는 길이며 다른 하나의 길은 고향도, 아량도
영영 볼수 없는 무덤속으로 가는 길이다.

현실로 가까와졌던 고향과 아량앞에 아득한 장
벽이 또다시 가로놓여졌다. 그 장벽너머에서 고향
과 아량이 애타게 그를 부른다.

그는 오래동안 망설였다. 가무리는 귀중한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락심하여 창문결에서 물러났
다.

가무리는 자기의 얼굴을 묵묵히 살피보는 무슨
의 시선과 맞부딪치자 눈을 내깔았다.

무은은 심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자네의 눈에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
음을 보고싶었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구만...
가무리, 그래 자네의 붓이 투항과의 하소연으로
되어야 한단말인가? 내 언젠가 자네에게 폐허에
남겨진 벽화에 대해 말해줬더랬지. 가후 기회가
있으면 자네가 그토록 알고싶어하는 그 사연을
얘기해주려고 했네만 좀처럼 기회가 없었구
만...》

이윽고 부드러운 스승의 목소리는 가무리의 얼
어터진 마음을 이끌고 흘러버린 세월의 자취를
따라 거슬러 올랐다.

《수십년을 헤아리는 옛날 그 심산벽곡에는 세
상을 등지고 온 한 화공이 있었다네. 어디서 왔
으며 왜서 훌륭한 재간을 가지고도 부귀영화를
버리고 속세에 왔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으
나 이곳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어 고달픈 생활에 잠시나마 기쁨을 주는
그 화공을 그토록 존경하였고 그를 위해 경치중
은 터진에 정가로운 초당을 지어주었다네. 그때
로부터 인적없던 이 산간벽지도 백성들의 발자취
가 새겨졌고 저녁노을이 불타는 석양녘이면 그
화공이 애 지 중 지 하는 외 딸의 애절한
저대소리가 그윽한 벽지의 산새들을 불러들였다
네.

그러던 어느날, 산수좋은곳에서 영생불로하러
는 허황한 꿈을 꾸 교유의 애비눔이 산세종교 경
치좋은 그곳에 마음이 끌려 화공의 초당을 허물
고는 무지막지게 거기다 자기의 덩실한 별장을
지었다단말일세. 그리고는 화공을 억지로 끌어다
가 별장의 벽화를 그리게 했네.

그 화공은 할수없이 별장에 자네가 본 바로 그
벽화 두폭을 그리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림이

아직 다 그려지기도전에 오랑캐놈들이 심산벽지
에 뛰어들줄을 뉘 알았겠나.

고구려군사에게 여지없이 쫓겨 이 산골에 숨어
든놈들은 바로 그 별장을 발견하고 들이닥쳤네.
교유애비눔은 제 목숨을 살리자고 금은보화를 옆
에 낀채 도망쳐버렸고 별장에서는 화공이 자기가
그리던 벽화<고구려용사>를 끝내가고있었다네.
오랑캐들은 화공의 붓대를 꺾어버리고는 그더러
창으로 자기가 그린 고구려장수를 찍으라고 강요
했네. 자기의 위세를 보이려는 악착한짓이었지.

그러나 그 화공은 예리한 창끝을 적장의 머리
를 향해 던졌다네. 적장의 머리를 스치고 지난
창은 그림속 적장의 투구술에 꽂혔고 동시에 놈
들의 칼끝에 여지없이 찌친 화공은 것처럼 사랑
하는 딸의 모습을 아로새겨 그린 벽화<비천>을
두팔 벌려 막아선채 숨을 거두었다네.

바로 그날밤 야삼경에 별장엔 큰 불이 났네.
하늘을 찌르는듯한 불길은 방 안에서 돼지처럼 쿵
쿵 잠든 오랑캐놈들을 남김없이 삼켜버리고 고구
려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면서 오래오래 타올
랐네.

다음날 마을의 백성들이 이 별장에 찾아왔을
때 별장은 벽채만 남았고 놈들은 모두 더러운 원
귀가 되었다란말일세.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 화공이 그린 벽화만은
털끝만치도 상하지 않은채 화공의 깨끗한 마음을
알려주는듯 사람들을 반겨주었네.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던 마을사람들은 별장의
타마남은 문짝옆에 쓰러진 화공의 딸을 발견하였
네. 오랑캐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연약한
몸으로 버티고 섰다가 숨이 진 아름다운 그의
얼굴엔 그때까지도 향긋한 웃음이 어려있었다말
일세.

가무리, 이것이 바로 고구려땅을 파먹고사는
고구려의 백성이고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넋이란
말일세...》

이야기에 심취되었던 가무리는 무은의 백발을
바라보며 죄를 지은듯 머리를 떨구었다. 무은의
말마디는 그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던것이다.

《죽어도 버릴수 없는것이 나라이네. 자신의 모
든것은 다 버려도 나라만은 버릴수 없는 백성들
이 사는 땅이기에 고구려는 언제나 강대한것이네.
자 가무리, 오늘 자네 부친이 이 편지를 보내왔
더군. 어서 편지나 보자구.》

무은은 타이르듯 속삭이며 그의 앞에 초불을
가져다놓았다. 가무리는 오열을 가슴속으로 씹어
삼키며 재빨리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펼쳐들었다.
눈익은 글발들이 또렷이 안겨들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버지는 지금 평양성으로 가면서 이 글을 쓴
다. 궁성옆을 지나니 너를 만나보고싶은 생각 가
슴을 저미건만 오랑캐들이 나라를 엿보고있어 말
을 세울수 없구나. 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아

버지는 한칼에 백놈의 원수를 베일 억센 힘과 바꾸노니. 사랑하는 아들이, 네 비록 궁성에 매인 몸이지만 부모 먼저 나라를 생각하거라.

여기에 옷 한벌을 보내니 밤을 밝히며 천을 짜고 옷을 지으면서 너의 앞날을 비는 어머니를 잊지 말아라.

아랑의 아버지도 나와 함께 간다. 네 아랑을 볼수 있으면 부모앞에 효녀가 되기전에 나라앞에 렬녀가 되여야 한다는 아랑 아버지의 말을 전해다오.》

가무리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는 글자들이 그대로 살아서 뛰는듯싶었고 귀전에서는 그 이름모를 화가의 꾸밈음이 천둥소리처럼 울려오는듯했다.

편지를 켜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갈림길에서 방황한 자신의 그지없이 혐오스러웠다. 잠시나마 잊을뻔했던 나라의 존엄, 수천만 인간의 깨끗한 넋이 지켜온, 그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을 티끌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거목처럼 깊이 뿌리내렸다.

가무리는 여직껏 느껴보지 못한 고향과 아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더욱 사무치게 가슴에 안으며 나라앞에 엄숙한 맹세를 다지듯 두손을 짝 그려쥐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걸려있는 장검을 벗겨들고 칼집에서 칼을 뽑아냈다. 불빛에 칼날이 번쩍거렸다.

그러나 무은의 손이 어느사이에 그의 손을 억제해 틀어잡았다.

《이게 무슨짓인가?》

무은의 성난 목소리가 방안을 찌렁찌렁 울렸다.

《내가 할 일이 이것밖에 더 있어요?》

가무리는 성난 범인듯 무은의 손을 뿌리치고 출구쪽으로 달려갔다. 무은이 또다시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가무리를 쏘아보는 그의 짙은 눈섭말에서 불씨가 황황 일고 턱이 와들와들 떨렸다.

《고유의 청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답하겠다는건가?》

《그럼 나에게 무슨 길이 있어요?》

《휘수의 사신놈에게 고구려의 백절불굴의 정신을 보여줄 생각을 왜 못해. 한쪽의 그림으로 수십만 오락케를 물리칠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가말이야.》

가무리는 무은의 말을 깨닫고 맥없이 칼집에 칼을 꽂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무릎을 꿇고 스승의 품에 쓰러졌다. 가무리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무은은 그의 뺨에 자기의 백발을 가져다댔다. 가물거리던 초불이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두 화공의 얼굴을 환히 비쳐주었다.

가무리의 마음이 전정되자 무은은 자그마한 나무함을 가져왔다. 그는 나무함안에서 아직 한번도 써보지 않은 화필을 끄집어냈다.

《자네에게 줄것이란 이것밖에 없네.》

가무리는 두손으로 무은의 붓을 받아들였다. 스승의 뜨거운 마음이 오리오리에 숨배어있는 노르스름한 붓촉을 만져보니 부드럽기 그지없다.

그는 스승의 붓을 매만지며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고향과 아랑을 찾는 문력으로 되었고 그처럼 그리고싶었던 아랑대신에 무은의 붓으로 도대체 무엇을 그릴것인가? 또 하루에도 몇번씩 화실에 나타나 그림의 진척정형을 알아볼 고유는 어떻게 할것인가?

무은은 아랑의 모습을 그려 고유의 눈을 피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휘수의 사신에게 줄 또하나의 그림을 그리면 될것이라고 말했다. 가무리는 스승의 말에 찬동을 표시했다.

그러면 그 누가 감히 맞설수도 격을수도 없는 고구려의 존엄을 어떻게 보여줄것인가.

별의별 형상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했으나 어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무은도 그의 뒤를 따랐다.

희무스름한 하늘에는 늦겨울같은 달이 등실 떠있고 보석을 쥐여뿌린듯 별들이 총총히 박혀있다.

달빛은 밋밋한 등성이와 룡악이 희미한 산과 골짜기, 하늘과 잇닿은 대지와 굽니는 패수의 흐름 위에 모전처럼 깔려있다. 하늘과 땅, 모든곳에서 찰찰하고 신선한 공기가 생의 활기를 안고 가슴속으로 흘러 들었다.

이른 겨울의 매력에 사뭇 황홀해진 가무리는 나지막한 등성이우에 올랐다. 거기서는 달이 더 가까와보였다.

가무리는 등실한 달속에서 붓으로 그려놓은듯한 룡악을 보고 사람의 형상같다고 했다. 무은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 달에는 어머니들이 귀여운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옛이야기가 깃들어있네.》

어머니?! 가무리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실오리마다 다심한 사람이 깃들어있는 어머니가 보내준 옷이 생각났다. 그 어느 어머니인들 그렇게 뜨거운 사람을 그에게 줄수 있으랴. 자기의 젖꼭지를 물려서 애지중지 키웠고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던 어머니, 늘 전장에 나가서 살다싶이 한 아버지때문에 불뎀 술의 개미처럼 바빠 돌아갔으나 노상 얼굴에 웃음을 담고 아버지처럼 용감한 무사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던 어머니였다.

지금도 자기의 흩어진 머리를 빗으로 빗겨주면서 들려준 그 많은 옛이야기중에서도 달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그 옛날 어떤 사람이 구름을 타고 달에 올라가 천하를 굽어보았다. 그의 앞에는 비단에 수를 놓은듯한 수려한 나라가 끝없이 펼쳐져있었다. 그땅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하며 오곡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고 나무마다 열매들이 주렁지게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오랑캐들이 이 나라를 탐내어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날개돋힌 장수가 되어 한칼에 원썬들을 베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를 본 그 사람은 너무도 놀라와 하늘에 대고 저것이 어느 나라인가고 물었다. 하늘은 고구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감동된 나머지 그대로 굳어져버렸다는 것이었다.

가무리는 어머니가 그리워졌다.

떠날 때 온몸이 그대로 하나의 시선이 되어 바래우던 어머니의 얼굴에도 이제는 잔주름이 잡혔으리라.

달의 광망속에 드러난 대지를 보니 어머니의 옛이야기가 더욱 삼삼해지면서 고구려는 정말 위력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북받쳐올랐다.

다만 고유와 같은 인간들, 키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합각지붕밑의 거만하고 권세있는 귀족들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준비귀천이 없는 세상, 어머니와 아량의 얼굴에 즐거움만이 비껴있을 그런 세상은 과연 없을까.

땅을 구르는 말발굽소리가 들려오고 씩씩한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이 밤에도 변방으로 바빠 달려가는 군사들인것 같았다.

문득 가무리의 머리에는 어머니의 옛이야기,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폐허에서 본 격전장면의 대화폭이 하나의 고리로 련결되어 떠올랐다. 그것들은 다 제가꿈의 내용을 담고있었지만 거기에는 무변광대한 고구려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성스러운 고구려의 존엄이 있었으며 슬기롭고 용감하며 원썬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고구려의 기백과 투지가 있었다.

가무리의 마음은 흥분으로 끓어번졌다. 희미한 형상들이 이제는 뚜렷한 제모습을 갖추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날, 가무리는 무은에게 그림의 초안을 내놓았다.

두필의 파하마우에서 고구려의 군사가 원썬을 향하여 돌진한다. 그 맞은편에는 두명의 적들이 있는데 그들의 머리위에 고구려군사가 역세게 틀어진 창과 칼이 번쩍거린다. 말고삐를 놓쳐버린 적들의 입에서는 일제히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나온다.

불타는 노을이 고구려군사들의 뒤에 기폭처럼 비껴있고 파하마의 입에서도 불길기 내뿜는다.

적들의 뒤에는 검은 구름이 질게 깔려있다.

가무리의 마음은 긴장해졌다. 무은은 오래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젊음이 되살아난듯 싶었다.

이윽고 무은은 손으로 그림을 짚으며 입을 열었다.

《이 두명의 고구려군사의 얼굴은 잘 그려졌네. 그리고 적들의 얼굴에도 절망과 공포가 잘 나타났다. 배경처리도 좋고. 그런데...》

무은은 머리를 들고 가무리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가장 중요한것은 그림에 고구려군사의 기백은 보이지만 정신이 없는것이네.

한명의 우리 군사가 한명의 적을 죽쳐서야 그 무슨 고구려군사라고 하겠나

고구려사람은 언제나 일당백이네, 일당백!》

가무리는 할 말이 없었다. 이마에 진땀이 빠질 빠질 듯았다.

그는 실패한것이다.

4

눈같이 하얀 벽에 기대여서서 한송이의 꽃을 들고 재생한 기쁨에 넘친 아량을 대할 때마다 가무리의 마음은 피로움으로 가득차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고향이 떠오르고 아량과 함께 고향으로 가고싶은 절절한 지향이 되살아났다.

기쁨으로 활짝 피어난 아량의 얼굴, 붓끝만 안타깝게 지켜서있는 그의 가슴에 어떻게 못을 박는단말인가.

그때마다 가무리는 나약한 자신을 질책하며 부시돌처럼 버럭 화를 내곤했다.

드디어 아량의 모습은 완성되었다.

그는 종이위에 옮겨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 황홀해졌다. 자기의 꿈이 이처럼 현실적으로 생각된 때는 여적 없었다.

아량은 기뻐하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면서 오래동안 그림을 들여다 보았다.

처녀는 가무리에게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이루 형언할수 없는 감정이 어려있었다.

《이젠 고향으로 가겠지요. 난...》

처녀는 목이 멘듯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가무리는 정답게 처녀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이제는 모든것을 아량에게 고백할 때가 되었다는것을 깨닫자 가무리는 오히려 가슴속에 불같은 것이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그는 필사의 힘으로 그것을 누르며 처녀의 어깨우에서 손을 내렸다.

가무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처녀를 바라보면서 나직이 말했다.

《아량, 우리는 고향에 갈수 없게 되었소.》

처녀는 놀래면서 머리를 치며들었다.

《그럼 고유가 우리를 속였단말이에요?》

가무리는 고유의 너절한 행동과 사신의 정체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도 보여주었다.

아량은 모든것을 깨달았다. 절망에 사로잡힌 처녀는 멍하니 가무리를 쳐다보다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방구석에 뛰어가 쓰라졌다. 처녀의 등실한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렸다. 흐느낌소리가 그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가무리는 당장 처녀에게로 달려가 그의 두손을 잡아쥐고 고유의 약속대로 그림을 주고 고향으로 가자고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지심깊이 뿌리내린 거목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회랑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젠담.)

가무리는 긴장해져서 쓰러진 아량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처녀는 재빨리 일어서서 벽에 기대어섰다. 그는 머리를 들고 눈물을 닦았다.

가무리의 불타는 눈이 아량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량의 눈에서도 불꽃이 튀었다. 가무리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고마움에 꽉 차서 금시 심장이 멎어버리는것만 같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쓰러지고있는것 같이 생각되었다.

문이 벌럭 열리고 고유가 들어왔다. 그림앞으로 다가선 고유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 그는 가볍게 탄성을 내질렀다. 야심가의 눈은 기쁨으로 번쩍였다. 그림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는것이였다 그림속의 미인이 금시 그에게 꽃을 안겨주려고 달려나오는것만 같았다.

만족한 고유는 어쩔줄 몰라했다.

《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게다.》

고유는 가무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너도...》

고유는 아량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만 래일 사신에게 이 그림을 주라.

가무리도 사신을 맞는 자리에 참석하도록 준비하라. 훌륭한 화공이 고구려에 있다는것을 사신이 아는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가무리! 임금에게만 복무하는 화공이 되어 영화를 누릴 생각은 없는가?》

마음이 흡족해진 고유는 가무리를 내놓기 아쉬운듯 말했다.

《저의 힘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렵소이다.》

가무리의 비록 낮으나 분노에 젖은 목소리가 간신히 입에서 터져나왔다.

다음날, 가무리와 아량은 외부의 어느 한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다.

가무리는 이 방에서 공주가 거처하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동궁과는 전혀 다른 장식들을 보았다.

웅장한 방은 복잡하고 다양한 무늬들로 기둥과 천정기슭을 장식하였으며 천정의 중심에는 알수없는 환상적인 동물이 입으로 불길을 토하는 그림이 그려져 방안의 사람들을 위압하였다. 무늬있는 모전이 깔린 방안의 중심에는 옷칠한 커다란 원탁이 놓였는데 그것은 천정의 그림과 대칭되어있었다. 원탁의 주위에 놓인 의자들은 호피들로 씌워졌다.

방 한쪽의 기다란 탁자에는 신라, 백제, 일본의 호국들, 가야, 속신, 거란 등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진귀한 물건들이 놓였는데 술한 관리들이 서성거리고있었다.

좌우에 정교하게 부각한 무늬들이 있는 육중한 출입문열에는 각각 창을 든 갑옷차림의 두명의 파수들이 립상마냥 서있었다.

두터운 창문으로는 해빛이 겨우 스며들었다.

한참후에 좌측 출입문이 량쪽으로 쭉 갈라졌다.

고유가 재빨리 방안으로 들어오고 뒤이어 관리들이 들어왔다.

가무리는 그가운데서 키가 크고 모집이 가는 류다른 옷을 입은자가 자못 위엄이 서린 얼굴에 웃음을 담고 방안을 살피는것을 보았다.

가무리는 그가 바로 휘수가 보낸 사신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사신의 태연한 얼굴에서 접에 질린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호랑이껍질을 쓴 여우놈의 물결같은...

사신의 옆에는 외부의 관리인듯한 장대한 사람이 서있는데 고유가 무엇이라고 지킬이는것으로 보아 그의 친척인것 같았다. 그옆에는 궁궐나래채의 고유가 안내한 방에서 본 일이 있는 턱밑구레나루가 짙은 관리가 멀리서 가득한 찬으로 사신을 쏘아보며 낮을 찡그리고있었다.

고유와 외부관리는 사신을 기다란 탁자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탁자우에 놓인 진귀한 물건들을 가리키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신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나 얼굴에 허장성세하는 위엄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때 우측의 육중한 출입문이 열리고 궁중파수가 뛰어들어와 량옆에 벌려섰다. 관리들의 눈은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드디어 금빛찬란한 옷을 입은 국상이(임금의 다음 가는 벼슬이름)문무관리들과 함께 들어섰다.

방안의 관리들은 일제히 머리를 수그렸다.례의가 끝나자 관리들은 원탁앞에 빙 둘러섰다.

가무리와 아량은 고유의 부름소리를 듣고 원탁앞으로 걸어갔다. 외부의 관리는 고유에게 족자의 그림을 사신에게 보이라고 했다.

외부관리는 아량이 쥐고있는 족자를 가리키며 사신에게 말했다. 사신은 무심결에 머리를 조아렸다.

《어서 펼치라!》

뼈곡이 들어선 관리들의 시선이 일제히 원탁우에 쏠렸다.

가무리는 아량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마지막 순간이 닥쳐왔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아량을 향하여 머리를 돌렸다.

아량도 그러한 순간이 왔다는것을 깨닫고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가무리를 마주 보았다.

가무리는 가슴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마지막 눈인사를 보냈다.

아량은 더 주저하지 않고 원탁우에 족자를 짚 펼쳤다.

앞가슴을 힘있게 내밀고 억센 앞발로 땅을 차면서 날아오른 흰색 파하마우에서 아량이 장검을 비껴들었다.

그 맞은켠에 쓰러진 김정빛 말옆에서는 짓밟힌 적들의 두 장수가 절반 부러져버린 칼을 들고 넋을 잃은듯 두눈을 홑뜨고있다.

아량의 장검은 두 적장의 정수리에서 번쩍인다. 대경질색한 휘수의 사신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뒤걸음쳤다. 여직껏 어려있던 위엄은 탈처럼 벗겨지고 비겁과 공포가 얼굴에 가득찼다.

갑자기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가 방안에 울려 퍼졌다.

《고구려의 너인앞에 수만기를 거느린 적장이…》

턱밑 구레나루가 짙은 관리가 통쾌한 나머지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림을 두손으로 그려안았다.

고유는 너무도 이외의 일에 낮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림앞에서 것처럼 꿈꾸던 부기와 출세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천길나락속에 자기의 몸이 처박히는것 같았다.

《이게… 무슨 망발이요?》

외부관리의 고유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턱밑 구레나루가 짙은 관리에게 던지는 말인지 알수 없는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놈들이 우리 나라에서 바랄것은 저것밖에 없소이다.》

가무리의 서리발같은 웨침소리가 그들의 머리에서 채찍처럼 내려졌다.

원탁에서 물러난 국상은 활달하게 일어나와 사신에게 말했다.

《장할지여. 고구려사람들은 저렇게 산다는것을 그대의 임금에게 알려주라.》

넋을 잃은 사신은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뒤걸음치더니 출입문밖으로 사라졌다.

이때 가무리는 분노의 화살마냥 국상앞에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국상님께 아뢰옵니다.》

그는 자기의 부귀영화와 더러운 목숨을 위해 나라의 존엄을 티끌불처럼 어기고 비루한 수단을

일삼은 고유의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을 날날이 공소하였다.

국상은 증오에 가득찬 눈으로 고유와 외부관리를 한동안 쏘아보았다.

《배은망덕한… 내 이미 내놈들의 죄행을 알고 있었노라.

천하에 고약한… 저놈들을 국법대로 목을 자르고 불에 태워라. 저런 간신들은 이 땅에서 숨쉴 자리가 없다.》

《알겠소이다.》

관리들의 멸시에 찬 눈총을 받으며 고유와 외부관리는 파수들의 손에 끌리워갔다.

국상은 자기결으로 가무리와 아량을 불렀다. 그의 두눈에는 감동의 빛이 한껏 어려있었다.

《참, 고구려의 참다운 자식이로다. 그대들의 소원은 뭐고? 고향이 어디메뇨? 내 장한 그대들의 뜻을 기특히 여겨 임금님께 상소하여 고향에 돌아가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 나라 땅을 살지우게 할터이니 주저말고 소원을 남김없이 말하여라.》

가무리는 피곳 아량에게 머리를 돌렸다. 그의 마음을 알아차린듯 아량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렸다.

《오랑캐를 죽치는 전장으로 보내주오이다.》

《전장으로?! 참 훌륭한 백성들이로다. 이러한 백성이 있으니 고구려는 이기리라.》 국상은 허리를 굽혀 아량을 일으켰다.

가무리의 두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반짝거렸다.

×

가무리는 문득 말을 돌려세우고 앞을 내다보았다.

태양은 지평선우에 있었다. 그것은 연한 구름에 가리워 쉽게 볼수 있었다. 태양의 빛발은 희끄무레하고 노을은 누른빛을 띠었다. 하늘에 드리운 구름은 아직 빛이 없었다. 멀리 그린듯 서있는 무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가무리는 절풍을 벗어 흔들었다. 아량도 손을 흔들었다.

순간 태양이 구름을 밀어버렸다. 그 빛발은 눈부셨다. 노을은 보다 뚜렷해졌다.

가무리와 아량은 무은을 향해 다시 한번 머리우로 손을 들어 흔들었다.

흰눈우에 찍힌 말발굽자리는 가즈런히 멀어져 갔고 키작은 소나무들이 그들을 감싸버려 절풍에 꽃은 두개의 새꼬리만이 해빛에 까맣거릴뿐이었다.

《잘 싸우거라. 고구려의 아들딸들아!》

말발굽소리는 멀어져갔으나 무은의 귀에는 더욱 크게 들려왔다.

377년의 겨울은 짙어져가고있었다.

잊지 못할 강선의 압연기야

송찬웅

세월의 자취런듯
흰김서린 거뭇한 기대
화려함도 번쩍거림도 없건만
어찌해 네 앞에 서면
내 가슴 이다지도 뜨거워지는것인가

말해다오
강선의 분피압연기야!
너 언제부터
수령님 기억속에 그리도 소중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도 사랑스런
영웅의 압연기. 력사의 압연기 되었던가

평범한 날에 위훈을 세웠다면
네 모습 이처럼에야 장할수 있으랴
준엄한 날에 위훈세운 기대여서
너의 장쾌한 동음소리도
그날의 거세인 숨결인듯
이 가슴 세차게 울려주나니

만톤의 강재가 더 그리워
수령님 너를 찾아오셨던
그날의 하많은 사연을
나는 다 모르고 자랐어도
세월과 함께 더더욱 깊어지는 생각이어!

그날에 우리 수령님
사나운 눈바람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혁명의 난국을 여시지 않으셨다면
해빛넘치는 오늘을 상상할수 있으랴

그날에 우리 수령님
한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마다에 주체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너에게 만능의 불꽃을 지펴주셨기에
온 땅에 천리마의 불길이 타번졌거니
오, 너는 불꽃!

가장 어려웠던 시련의 날에
가장 깨끗한 계급의 량심으로
수령님을 받들던 당중앙을 지킨
우리 압연공들여 충성의 불덩이!

너는 준엄한 년대들을 넘어
기적과 위훈을 무수히 수놓고도
지칠줄 모르는 그날의 열정으로
비약의 한길로만 끝없이 나래치는
우리 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의지의 상징!

그때문에 그때문에
우리 수령님 너를 그토록 못잊어하시고
우리 인민들 너를 자랑스러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있는것이여라

누가 알라!
네가 뽑아낸 강편들이
내 사는 불밝은 창문을 받들고있는지
내 걷는 대통로와 뚝널들길에
자동차와 트랙포르되어 달리고있는지

너의 강철기둥에 받들려
나라가 이미 허리편지 오래고
주체의 공업강국이 높이 솟아났건만
간고했던 그 시점을 차마 못잊어
너는 오늘도 쉽없이 강편을 밀어내며
그때처럼 살아가자! 우리를 부르는가

오, 압연기 압연기
잊지 못할 강선의 영웅 압연기야!
이 땅에 번쩍이는 새 기대를 쏟아져나와도
너는 변함없는 수수한 그 모습으로
수령님과 당중앙을 영원히 받들고있구나!

해빛넘치는 령길우에서

황용국

며칠전에 우리들은 산간마을의 한 문학통신원으로부터 100편의 단편소설원고들을 받았다. 우리는 원고를 단숨에 읽어버렸다. 아름다운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이름없는 문학청년의 뜨거운 심정이 느껴져 좀처럼 원고지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기때문이었다. 흥분한 우리는 방안을 거닐면서도 한가지 생각에서 헤어날수 없었다. 그의 단편소설들에는 산골의 뻘스에 대한 이야기가 약국의 감초처럼 끼여들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여 소설의 양상이나 구조에 적지 않은 무리가 생겼던 것이다. 몇몇 작가들과 편집원들이 원고를 읽은 후의 소감도 다를바 없었다. 소설의 기본줄거리와 맞물리지 않는 뻘스에 대한 이런저런 장황한 설명이나 정황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었다.

문학청년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우리는 출장수속을 서둘렀다. 아직은 기량이 미숙한 청년을 도와서 작품의 줄거리를 새롭게 토론하고싶었던 것이다.

×××

산간역에서 120리나 떨어진 신평군 소재지의 한적한 뻘스정류소 풀색 장의자에 앉은 사람은 우리뿐이었다. 사슴리행뻘스는 오후 3시에 있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느라고 새로 나온 잡지를 뒤적이고있는데 얼굴이 갱끗한 청년이 러행용들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무척 령리하게 보이는 청년이었다. 적적했던만큼 우리는 청년에게 많은것을 물어 장용선이라고 부르는 청년을 찾아가는 사슴리는 령길로 200리나 되는 하늘아래 첫동네임을 알았다.

얼마후 몇명의 사람들이 정류소에 나타났다. 대여섯살잡이 소녀의 손을 잡은 할머니 한분, 살갗이 류달리 맑은 중년부인, 군에 불일이 있어 들렸던 모양 차림새 수수한 40대의 장년 서너명이 전부였는데 뒤이어 이동작업에서 돌아오는듯 배낭을 진 처녀들과 청년들 십여명이 짹짹그르 웃고 떠들며 다가왔다. 갑자기 정류소에는 활기가 넘쳤다. 죄다 사슴리로 가는 사람들이었다.

계란색으로 말쑥히 도색한 뻘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서둘러오고 차에 올랐다. 우리는 맨나중에 차에 올랐는데 운전사의 바로 뒤에 자리를 남겨놓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끝내 우리를 거기에 앉혔다.

《찾아오시느라 수고합니다. 함께 갑시다!》

40대의 장년사나이의 말이었다. 사슴리사람들의 후더운 인정이 무뎌없이 느껴졌다. 우리는 운

전사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사슴리의 청년이 작품에 그랬듯이 썩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이었다.

발동을 건 뻘스는 얼마후 높지 않은 구릉길을 달리였다. 운전사는 차창밖으로 호기심어린 시선은 던지고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손님은 비행기를 타보았습니까?》

《못타보았습니다.》

《그럼 땅우에서 한번 비행기를 타봅시다. 멋있지요. 이젠 아직 활주로에 불과하지요.》

시간이 흘렀다. 뻘스는 우산모양의 로송들이 들성들성한 령마루로 톱아오르기 시작하였다. 발동기마저 숨가쁜 소리를 질렀다. 퍼그나 달렸다고생각했는데 밖을 내다보니 방금 지나온 령길이 몇발자국밑에 굽어보였다.

오리나무가 무성한 숲속에 이르자 길은 평탄해졌다. 차의 동음도 고르로와졌을 때 우리는 운전사에게 물었다.

《자동차가 없었던 지난날엔 이 길을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의 녀적한 얼굴은 침통하게 흐려졌다. 그는 차내 라디오의 스위치를 껐다.

《별수 없었지요. 걸었지요. 하긴 신평군에 나오는 일이 죽을데 살일이 아니문 숫제 나올 생각을 못해본 사람들이라 별로 걸을 일도 없었지만은...》

올리받이가 시작되자 그는 서둘러 변속장치를 제껴놓고나서 말을 하였다.

《가보시문 알겠지만 무서운 산골이지요. 지금은 커져서 리소재지가 들어앉았지만 옛날엔 버섯같은 농막 20여호가 처마귀를 맞대고 살아온 고장이랍니다. 보내고 맛을 사람도 없이 저들끼리 살았지요.》

우리는 부쩍 호기심이 동해서 운전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조금전 내 어깨를 눌러 자리에 앉히던던 사나이가 이야기에 끼여들었다.

《이고장에 처음 오시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나직이 한숨을 지었다.

《지금 우리가 넘는 이 령을 <종일령>이라고 부르지요. 한것 오르고 한것 내리면 온종일 걸린다고 누군가 그렇게 부른가봅니다. <종일령>을 넘어서서 조금 더 가면 이 령따윈 대비도 안되는 《할미령》이 막아선답니다. 옛날, 별방에 나가 사는 막내딸이 못건디게 보구퍼서 꼬부랑할머니가 지평이를 토닥거리며 령길을 오르고 또 오르

다 더위에 쓰러진채 종시 일지 못한 뒤부터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것지요.》

차안은 조용해졌다. 전설같이 들리며서도 사슴리사람들의 비참해졌던 운명을 말해주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다. 침중한 표정으로 눈길을 옮기던 우리는 놀랐다. 가쁜숨을 몰아쉬며 차는 어느새 《종일령》마루로 치달아오르고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높이에 올라선 자신을 발견하였던것이다. 령말에 바둑판처럼 펼쳐진 규격포전이며 신평군소재지가 한눈에 안겨들었고 들판에서 일하는 농장원들의 모습이란 옷색갈밖에 가려보이지 않았다. 운전사가 물었다.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탄 기분이 납니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를 타본적은 없지만 령길을 따라 하얗게 핀 배꽃속을 헤가르는 차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느낌이란 구름속을 꿰지르는 비행기를 탄 기분을 령상시켰다.

령길은 높아질수록 좋았다.

홀쭉홀쭉...호이 호이 호르륵...빗쭈 비릿쭈...

이름모를 산새들이 각가지 청으로 울어대는 굽이길을 에돌자 이번에는 사슴리사람들이 《다람쥐굴》이라고 부르는 숲속이 나졌다. 홀날리는 락엽처럼 뛰여노는 애기다람쥐며 비자루같은 꼬리를 가진 어미다람쥐들은 손님들의 령로를 송두리채 앗아갈만큼 복성스러웠다.

《종일령》마루에 올라서자 운전사는 차를 세웠다. 그는 사람도 다리섬을 하듯이 차도 다야섬을 해야 한다고 재미있게 말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싸래기꽃이 한벌 뒤덮인 꽃섬으로 습새들었다. 처녀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얼마후 처녀들은 들꽃묶음과 산나물을 뜯어들고와 우리들앞에 스스럼없이 내밀었다.

《드림이에요. 이건 참나물이구요. 가을이면 머루랑 다래랑 대접할수 있는건데...》

담스레 담배를 빨고있던 운전사가 처녀들의 말에 발을 달았다.

《가을에 한번 오시유. 없는게 없지요. 사슴리사람들은 산을 뜯어 잘살지요.》

지금껏 잠자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있던 할머니가 머리를 들었다.

《그게 다 수령님 은덕이라네. 그전에야 기름진 산을 끼구두 뜯어먹을 궁냥이나 했나. 뭐 한가지 우리 수령님 은덕이 아닌게 없어.》

우리의 가슴은 몽쿨해졌다. 자기의 행할로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마음속에 갈피갈피에 새기고있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참으로 절절하게 울렸다. 운전사는 자리를 고쳐 앉았다.

《참 무지하게 살았지요. 기차, 자동차가 뭔지도 모르구... 우리 사슴리에 돌부처가 웃다가 배꼽이 빠여질 얘기가 있수다.》

캐득캐득 웃던 처녀들속에서 누군가 쏘아붙였다.

《운전수아저썬 뭐예요. 손님한테.》

《너희들은 뭘 안다구. 손님이길래 말하는거다.》

그는 입지 않게 처녀들을 흘겨보며 빙그레 웃었다.

《사슴리에 자동차가 들어간게 1947년도 봄이지요. 농쟁기를 실은 자동차가 마을앞에 나타나지 평장했답니다. 아이 어른할것없이 온통 구경을 나왔는데 해가 팔짝 넘어갈 때까지 부산을 떨었지요. 그날밤이었수다. 우리 마을의 박가성을 가진 할머니 한분이 제 동네 찾아온 무쇠하늘소를 굶긴 일이 마음에 걸려서 김이 문문 나는 여물을 끓여 들고 자동차를 찾아갔다나요. 할머니는 눈미에 입이 있겠지 하고 전조등밑에 여물버치를 놓아주면서 <날래 시장기를 꺼라. 세상이 개벽해서 좋아지니 이 심삼산골에 귀한 너까지 찾아왔다만 산골헬미 정성이 이제 전부로구나.>하면서 허를 끝끝 찾다나요.》

폭소가 터졌다. 처녀들은 몇번 들었지만 또 우스워 못견디겠다는듯 허리를 까부리고 찢찢맸다.

할머니가 꾸짖듯 말해서야 웃음은 잠잠해졌다.

《웃긴, 그제 그제 웃고말 일이어.》

할머니는 나에게 얼굴을 돌렸다.

《처음 듣는 얘기니 거짓말처럼 여겨질거우다. 하지만 정말이라우, 이 샘순이란 애가 내 손녀인데 바로 이 애의 외증조할머니가 그렇게 했다우.》

숲속에서 사람들이 돌아오자 빠스는 떠났다.

처녀들은 노래를 불렀고 즐거운 담소들이 시작되었으나 우리들은 명상에 잠겨버렸다. 한뼘 세상 밖에서 버림받으며 살아온 산골할머니, 생명체가 아니고서는 움직일수 없다는 단순한 개념의 테두리에 갇혀있었을 그가 액체연료를 리용한 현대적인 발동기를 《무쇠하늘소》로 단정할수 있었던 것은 결코 허황한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보아라! 봉건의 울타리와 식민지노예의 질곡에서 벗어난 그 후손들의 즐거운 령행길을 따사로운 자연의 봄빛때문에 200리 령길이 저토록 유난히 밝지만은 않으리!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빛말이 억만줄기로 뿌려지기에 령길의 봄빛도 인민의 봄빛으로 무르녹는것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농촌리들에 빠스가 들어가도록 하는것입니다.》

구름처럼 피어나던 우리의 상념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동강났다. 서운하지 않았다. 들을수록 듣고만싶어지는 이고장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이번엔 진짜 우스운 말을 하리라.》

할머니는 마른침을 삼켰다.

《그전에 그래두 마음씨 착한 새애기를 따르는 후행, 새서방네 일행이 함해 모두 넷이었는데 령너머에서 걸기 시작했다우. 오지랄것 마음고운 새애기한테 200리면 어떻구 600리면 무슨 상관이었수. 그런데 신랑의 형이란 미련등이가 슬쩍궁속였다질 않소.<슬슬 걸어서 50리만 가면 됩지요.> 하구말이지. 한것 걸어서 50리를 왔다누만. 야단났지, 아직 150리가 남았는데 새사둔을 숙여넘길 재주가 있어야말이지. 그래 얼핏 꾸며냈는데 <한 오리만 더 갑세다>했지. 또 오리를 다 왔수. 그러니까 <아마 오리쯤 더 가면 될거우>했다는 구만. 이렇게 꾸며대면서 일백오십리를 앞에 두고 오리오리하면서 데리구 들어가다가 길에서 로속하게 됐나봅디다.》

웃음소리가 뻘스안을 들었다놓았다. 할머니는 정색하고 계속하였다.

《신랑의 형이란게 신부집 후행의 물집잡힌 발에 무명실을 끼워주면서 한다는 소리가 <예구 새사둔님 발바닥은 연하기두 해라. 오십오리 령길에 콩마당이 되셨네.> 했다는구려. 그러자 새사둔이 그럴듯하게 받아넘기더라오, <허허, 사둔님 마음은 어지기도 하셔, 산길 오십오리에 잔등배기가 염전마당이 되셨수다> 하구말이야. 옷을 벗어보니 소금버개가 하얗게 내뚫었다라오. 별수없지 150리를 5리로 숙여넘기자니 땀동이나 흘렸을테지.》

또 한바탕 웃었다. 즐거운 려행길에서는 별치 않은 이야기도 웃음집을 곧잘 건드리기마련인데 산골마을사람들의 하소연이 담긴 전설같은 일화들은 혼자 듣기에는 아쉬운것들이었다.

지금껏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자기의 소설에 서툴게나마 뻘스이야기를 밀어넣으려한 사슴리 문학청년의 의도가 선명하게 리해되었다.

사슴리사람들의 가장 큰 생활적요구인 뻘스에 대한 세부들을 놓칠수는 없었을것이다.

뻘스는 《종일령》을 지나 얼마쯤 골짜기길을 달리다가 《할미령》에 접어들었다. 현록색의 락엽송으로 성장한 《할미령》은 첫눈에도 산세가 험하는것이 알렸다. 령길은 처음부터 구배가 심했고 가파로왔다. 《종일령》이 정서에 잠겨있으면 《할미령》은 기백을 안은것 같았다. 령길이 차츰 높아지자 해빛이 성글어지더니 위험구간이 나타났다. 주먹같은 감탄부호의 표식판이 눈뿌리를 찢렸다. 높이를 가늠할수 없는 아찔한 벼랑길을 에둘 때 우리는 눈을 딱 감았다. 당장 차가 나뉘어지는것 같았다. 운전사는 우리에게 빙그레 웃어보였다. 그 고마운 미소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감이란 후일 《할미령》을 넘어보는 길손이 아니고서는 체휼할수 없으리라고 우리는 단정하여버렸다. 위험구간을 벗어나자 운전수는 우리를 돌아보았다.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거나 걸어다녔다는따위의 이야긴 얼마든지 있지요. 사슴리에 첫 뻘스가 들어갔던 날은 정말 굉장했수다 난생처음 그날만은 내 좀 울었수다.》

운전사의 이야기에 방해가 될가보아 저어하듯 차는 소리없이 달렸다. 사슴리사람들한테 첫뻘스를 물고갔던 그날의 감회가 되살아나서인지 운전사의 목소리를 자주 토막냈다.

《우리 마을에 뻘스가 온다!》

젖빛안개 자욱한 이른새벽부터 사람들은 동구밖으로 밀려났다.

뻘리리 궁당 뻘리리 궁당 췌췌...

닐리리 닐 닐리리 니리 췌췌...

새납, 장고, 북소리가 어울리는 속에 춤판이 벌어졌다.

어화라 어화라 어화라 좋네
우리네 마을에 뻘스가 오네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좋아
우리네 사슴리에 뻘스가 오네

사슴리의 장로인이 춤판에 뛰어들었다. 덩기적 덩기적대며 호합지게 웃는 로인의 얼굴이 춤판에 섞이자 새납소리는 더 류랑해졌다.

갑자기 천둥같은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꽃송이에 파묻힌 뻘스가 미끄러지듯 마을어구에 들어섰던것이다.

뻘스가 마을북판에 떨어져자 사람들을 해집으며 누군가 차앞에 다가섰다. 장로인이었다.

거울진 손으로 뻘스를 쓸어만지던 그는 끝내 오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 보세요. 눈을 뜨고 보세요. 사슴리에 뻘스가 왔습디다. 일어나요, 일어나 보아요. 사슴골에 대통운이 텃는데 아버지만은 꼭 보셔야 하잖나요.》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의원을 찾아 떠났다가 꾹꾹 언 시체를 원한의 령길우에 묻어버린 장로인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어른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따라 멍모르고 울었다.

안그럴수 없다. 령길 200리의 자욱자욱에 고인 피눈물이 어찌 장로인의것만이라!

《김일성원수님 만세! 만세!》

사람들은 로인을 부축하고 골안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만세를 부르고 북을 울렸다.

운전사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다.

우리의 옆자리에 앉은 중년사나이가 입을 열었다.

《뻘스를 받은 그날 우리들은 뻘스길을 땀자는 모임을 가졌습디다. 보시지요. 령길은 일매지게 고르롭답디다.》

《어디 그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날밤부터 우리 마을 사로청원들이 길옆에 배나무를 심은건 자랑이 아니유. 그랬더니 좀 좇수. 봄이면 이렇게 꽃속으로 차가 둥둥 떠가고 가을이면 차안에서 참배향기에 흠뻑 취해버린단 우.》

짙막한 이야기들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운전사가 또다시 참지 못했다.

《가을에 오십시오. 달구 향기롭구 입안에서 슬슬 녹아버리는게 이 고장 참배지요. 하, 오죽하면 <시어미구박에 아니 살자 해두 사슴리 배맛에 넘 못버리겠네.> 하는 노래가 다 있겠수.》

《그건 봉건이예요.》

처녀들의 질책에 운전사는 한눈을 쏙겼다.

《맞았다. 봉건이구말구. 제집머리를 밋땀에 구박하겠니. 그런데두 그놈의 배맛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아서 너들두 사슴리총각만은 못 놓겠다면서.》

《어마나.》

처녀들은 의사등반이에 앵두알처럼 붉어진 얼굴을 숨겼다.

《그때 배나무 심은 청년돌격대장이 이 뺄스에 탔지요. 저 뒤에 앉은 청년입니다. 뺄스를 붙들구 울던 로인이 저 사람 아버지지요.》 운전사의 말이였다.

(장용선!)

우리는 놀랐다. 정류소에서 만났던 얼굴 갱뽀한 청년이 단편소설의 필자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우리는 청년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에게 찾아온 사유도 설명했다.

청년은 몸둘바를 몰라하면서도 무뎡 기뻐했다.

지금껏 말이 없던, 병원에서 퇴원하는길이라는 중년부인이 우리들의 상봉을 류달리 관심했다.

《작업반장이 무척 좋겠네요. 이번엔 꼭 소설을 완성해요. 그런데 우리 마을 뺄스애길 놓쳐서는 안돼요.》

《알고보니 반가운 손님이구만. 저 친구 뺄스에 대한 소설을 쓴다고 늘쌍 나에게 치근거리며 묻지요. 용선반장이 이번엔 룡을 타는가부다.》

운전사의 말이였다. 의례 할머니가 끼여들었다.

《암, 자랑을 할반엔 뺄스자랑을 해야 돼. 이 뺄스루 매일매일 신문이 척척 날아들어 당정책을 알겠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기사들이 들어오지, 새영화두 들어오구 중앙이나 도에서 오는 간부들두 매일매일 드나들며 우리 사슴리를 길덕농장 못지않게 도와주질 않나. 이걸 다 쓰면 애기책이 되지 않겠수. 용선이 이 사람, 뺄스길에 배나무 심던 애기두 놓치지 말아.》

뺄스는 달렸다. 살갈이 달렸다.

장용선청년은 조용히 말했다.

《편집원동지, 농촌뺄스는 우리의 보람차고 즐거운 생활입니다. 우리 사슴리사람들의 행복의 상징으로 되는 뺄스를 두고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잘안됩니다.》

시적으로 함축된 청년의 이야기에 동감하며 우리는 차안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그랬는지 할머니는 혼곤히 잠들어있었다. 퇴원하는 중년부인은 아름다운 산촌의 봄풍경에 취해버린듯 건강이 넘치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있었다. 샘순이라는 소녀는 완구 《직승비행기》의 태엽을 감아놓고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해죽해죽 웃으며 보고있다.

우리는 흥분에 휩싸였다. 차안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나라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화폭들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며 눈앞을 가리우는것이였다.

지팡이를 토닥거리며 령길을 오르다 영영 쓰러진 할머니와 뺄스안에서 잠든 오늘의 할머니, 발동기를 생명체로 오해했던 산골늙은이의 증손녀 손에 들려진 현대적인 완구...약 한첩 못써보고 간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과 병원에서 몸까지 부쩍 내고 돌아온다는 중년부인... 진정 어제와 오늘은 하늘땅처럼 판판 달라졌다.

그렇다! 보람차고 즐거운 이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풀어주신 농촌뺄스화의 따사로운 빛발속에서 창조된 아름다운 노래,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주체사상의 대화원에서 꽃핀 참으로 귀중한 삶에 대한 송가였다.

우리는 햇빛가득한 령길을 뒤돌아보며 산골마을사람의 행복한 생활보다도 실무적인 눈으로 소설의 줄거리만 따져보려 한 우리자신에 대한 질책에서 헤어날수 없었다.

축복받은 사슴리사람들의 크나큰 행복이 억만 꽃송이로 다투어핀것인가! 200리령길에는 희디흰 참배꽃이 만발하였다.

×××

청년은 소설의 즐거리를 훌륭하게 완성하였다.

농촌뺄스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려는 차사업소로동자들과 사슴리농장원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고 진실한 인간관계속에서 보여주는 재미있는 단편소설의 줄거리였다. 장용선청년은 새로 착상한 중편소설의 즐거리를 들려주는것도 잊지 않았다.

산골마을사람들에게 오늘의 이행복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자기들이 보람찬 투쟁모습을 감동적으로 반영한 내용이었다.

우리는 청년에게 완성된 원고들을 빨리 보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해빛밝은 령길에 다시 올랐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전통문화개발계승》책동의 반동적본질

김하명

오늘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상전 미제의 사촉 밑에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그 더러운 괴뢰의 정체를 《애국가》, 《독립국가》의 너울로 감싸보려고 온갖 술책을 다하고있다. 놈들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있는 《민족사적전통설계승》이요 《전통문화개발계승》이요 하는 광대놀음은 그러한 술책의 하나이다.

괴뢰도당은 《민족사적전통성》이란 우리 민족이 5천년 역사에서 형성발전시켜온 《제 전통과 가치》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놈들이 그것을 계승하여 《모든 정책의 기초》로 하고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괴뢰들에게 매수된 문화분야의 어용 학자들에 의하여 조작되고있는 《전통문화개발계승》이라는것도 《민족사적전통성계승》놀음의 한부분이다.

원래 《민족사적전통성》이라는것은 미일제국주의의 2중주구였던 박정희괴뢰역도의 《창안품》이었다. 박정희역적이 극악한 군사파쑈독재체제인 《유신체제》를 조작해놓고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회유기만하기 위하여 들고나왔던 허위적인 구호였던것이다. 다시말하면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채 팔아먹으면서 미제의 영구장점을 애걸하고 일본군국주의재침책동의 길잡이노릇을 하는 제놈의 반역적정체를 신성한 민족의 이름을 도용하여 《민족사적전통성》으로 위장하였던것이다.

전두환군사파쑈당당이 오늘 《민족사적전통성》이요 《전통문화의 개발계승》이요 하고 더욱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는 까닭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제놈들의 국제적고립이 더욱더 심각한 지경에 이른것과 관련되어있다. 그러나 놈들이 그 어떤 위장을 하든 미일제국주의의 손때묻은 주구이며 신식민주의 정책의 하수인 알짜배기괴뢰로서의 정체를 가리울수는 없다.

오늘 세상사람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는 전두환군사파쑈분자들의 몸서리치는 매국배족

행위는 그 어느것이나 다 미제의 조종과 비호밑에 감행되고있다.

1

미제의 사촉밑에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벌리고있는 《전통문화개발계승》책동의 반동적본질은 무엇보다도 봉건시대의 반동적이며 락후한 문화예술작품들과 민속들을 발굴, 출판, 전시하며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등으로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애국가》의 탈을 쓰고 사람들속엔 봉건유교사상과 부르조아사상 온갖 미신을 부식시키며 《반공》선전에 광분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새 문화건설에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필수적으로 나서는 합법칙적요구이다. 그 어떤 시대의 문화도 빈터우에서 대번에 만들어질수는 없다. 인간의 귀중한 정신적창조물인 문화예술은 그 이전 시기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바로 유산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승하여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방법으로 발전해나간다.

문제는 그 유산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립장과 자세에서 계승하는가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계급에 따라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립장과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력사적경험은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진 선진계급은 반드시 지난날의 성과와 경험에서 배우려고 하면서 민족문화유산의 진보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승하여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지향하게 된다. 우리 나라 봉건시대에 있어서도 문화가 비교적 건전하게 빨리 발전한 18세기에 그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던것을 볼수 있다.

이와는 달리 착취계급은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사회의 변혁을 두려워하는데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진보적인 문화유산을 무시하면서 민족허무주의에 떨어지거나 민족적인것을 존중한다는 구실밑에 미신적인 락후하고 반동적인것을 고집하며 그대로 되살리는 복고주의의 길로 나가게 된다.

오늘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전통문화개발계승》의 구호밑에 남조선 각지에다 절간과 향교

등을 꾸려놓고 봉건유교사상과 각종, 미신을 퍼뜨리기에 미쳐날뛰고있는데서도 그 뚜렷한 실례를 보게 된다. 놈들은 마치 제놈들이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그 어떤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요란스레 고아대고있지만 그것은 반역자의 정체를 가리기위한 한갓 서투른 위장에 지나지 않고 그 본질은 사람들속에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퍼뜨려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려는데 있는것이다.

지난해(1982년) 2월 6일 반동문학잡지 《문학사상》사의 주최로 이른바 《전통문화의 현장체험》이라는 명목밑에 김동리파위의 반동문인들이 무리를 지어 통인 《민속촌》이라는데를 찾아가서 《답교놀이》, 《해불놀이》, 《쥐불놀이》를 한답시고 한바탕 소란을 피운 그 어리광대놀음에서도 그러한 반동적목적을 찾아볼수 있다.

답교놀이나 해불놀이, 쥐불놀이 같은것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전승되어온 민속이다. 오늘 작가들이 그것을 알자고 하는 그자체를 탓할 까닭은 없는것이다.

문제는 피뢰도당의 비호밑에 과학문명이 발전하는데 따라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되어버리고 인민들의 생활에서 이미 자취를 감춘 그것을 되살리려고 하며 거기에서 반동적인 요소를 의식적으로 조작시키려고 광분하는데 있다.

답교놀이는 지난날 봉건시기 민간에서 다리밟이, 다리밟기라고 하며 정월 보름날 밤에 그해의 재액을 물리친다고 하여 다리우를 밟고 거닐 민속놀이를 말한다. 다리를 밟고 거닐면 그해의 재액을 물리친다는것은 미신적인것이지만 거기에는 달밝은 밤에 겨우내 방속에 들어앉아있던 사람들이 펼쳐나서 다리를 밟고 거닐면서 자연을 즐기고 건강을 단련하려는 지향도 깃들여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지향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한 남조선 반동작가들의 《답교놀이》라는것은 그 《해설》과 《실연》이 다 한결같이 봉건적충군사상을 선전하는데 바쳐지고있는것이다.

이 놀이를 《주도》한다는자의 《답교놀이》에 대한 해설에서는 그 유래가 서울에 수표교가 준공되었을 때 그 개통테프를 정월 대보름날 밤에 임금이 행차하여 굿고 한해의 무병장수를 비는 뜻에서 다리밟기놀이를 하였다고 전해온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시키기 위하여 이 밤의 답교놀이에 《임금》을 등장시킨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다리밟기》는 맨앞에 《문인들의 달맞이...》기발을 세우고 그다음에 《고나쟁이(길잡이)》가 길을 치며 나가고 길잡이 옆에 8개의 초롱을 든 중이 뒤따르고 그뒤에 회적(피리) 둘, 장구 하나, 제금 둘, 북 하나 등 풍악이 줄을 이었으며 그뒤로 6명의 무동이 두줄로 춤을 추며 앞장서면

가마를 탄 《임금》이 량옆으로 포도대장(별감)들의 호위를 받으며 일산을 받쳐든 상궁 셋에 둘러싸여 행차한다. 그옆으로 룡공 좌우 6개가 길을 밝히고 노장이 녀불을 외우면서 뒤따르며 그뒤로 잡귀를 쫓는 왜장자와 왜장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깨춤으로 거들먹거리면서 흥에 겨워 뒤따른다. 바로 이런 해패한 행렬의 앞과 중간에서 《문인》이란 사람들이 해불을 밝혀들고 내굴로 눈물 코물을 흘쩍거리면서 어정어정 걸어가는 것이다. 그야말로 돈 끼호페조차 무색해할 희극장면이라고 하지 않을수없다.

이들은 기자들의 물음에 《오래간만에 다리밟기를 해보니 잃어버린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난다느니 《다시 젊어진 기분》인데 《이런 행사가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느니 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문인소인데 부끄러움도 없이 얼빠진 소리를 하여 사람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미제의 총견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애국자》의 너울을 써보려고 요란스레 광고하고있는 《전통문화개발계승》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다.

오늘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전통문화개발계승》의 간판밑에 벌리고있는 광대놀음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으며 남조선 사회에 얼마나 엄청난 후과를 가져오고있는가 하는것은 이른바 《부적 전시회》라는것에서 더욱 똑똑히 찾아볼수 있다.

《부적》이라는것은 봉건시기에 미신에서 귀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친다고 하여 붉은 색으로 불가나도가에서 쓰는 괴상한 모양의 글자를 쓴 종이를 벽이나 문머리에 붙이기도 하고 몸에 품고 다니기도 하던것을 말한다. 《부적》은 《부작》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미신은 근대문명이 보급되는것과 함께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고 해방전에도 부유층의 락후한 사람들속에서만 그 잔재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부적》들을 소개선전하고 팔아서 돈벌이를 하기 위한 《부적 전시회》라는것이 20세기 80년대인 오늘 서울의 중심구인 종로자리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여러 도시들에서 류행되고있다.

여기에 전시된 《부적》이라는것은 참으로 해괴하기 그지없는것이다. 어떠한 《부적 전시회》에는 본처가 남편한테서 첩을 떼게 한다는 《첩퇴치부》, 상사병을, 낫게 한다는 《상사부》, 병을 예방한다는 《병예방부》, 벼슬자리 오르기 를 비는 《관직승급부》 따위의 《부적》 108점이 전시되었다고 한다.

남조선출판물까지도 처음에 《전시회》에 구경오는 층은 대부분이 늙은이였지만 최근에는 청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와 보고서는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겠다는 소문을 퍼뜨려 《전시회장》이 남너로소의 관객으로 붐비게 된 기막힌

정상에 대하여 개탄하고있는 형편이니 남조선피뢰도당의 죄행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것을 가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놈들의 《전통문화개발계승》책동은 교육분야에도 몹서리치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어린이를 교육하는 《국민학교》에서 이른바 《선비정신》을 계승한다는 명목밑에 《선비의 방》을 꾸려놓고 《점잖아지는 법》, 《엄숙해지는 법》, 《조선옷 입는 법》같은 고리타분한 《량반행세》를 가르치고 있다든가, 봉건시대의 《서당교육》을 되살려 《삼은서당》 《락운서당》등의 간판을 내걸고 모여앉아 《론어》 《중용》같은 한문책을 옛날식으로 배우고있다고 하니 그저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정상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

이러한것들은 다 복고주의가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좁히고 마비시키는 무서운 독소라는것을 고발하는 생동한 증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온갖 불건전한 문화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인민들의 의식속에는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이 자라나게 됩니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낡고 반동적인것을 덮어놓고 그대로 옮겨놓으며 미화분식하는 경향과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시바와 같이 복고주의는 흔히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전통을 존중한다는 외피를 쓰고 사람들속에서 낡은 봉건적 및 부르조아사상이 되살아나게 하고 사물현상에 대한 계급적분석과 평가를 무디게 하는 해독적작용을 하는것이다.

복고주의는 락후한것을 찬미한데로부터 결국 자기 나라것이 남의것만 못하다는 민족허무주의를 사람들속에서 부식시키게 된다. 그것은 복고주의나 민족허무주의가 다 낡은 사상에 바탕을 두고있고 착취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데서 비롯되는 필연적구결이다. 남조선에 전두환피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전통문화개발계승》책동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가 또한 《유산승배》의 탈을 쓰고 유산에 대한 허무주의를 고취하자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한 실례를 반동작가 김동리 창작과 미학견해에서 찾아볼수 있다.

반동작가 김동리로 말하면 그는 《출세작》이라고 하는 소설 《화랑의 후예》로부터 시작하여

《낡은 조선에 대하여 강렬한 집착》을 가지고 이른바 《토속적》인것을 소재로 한 반동소설을 많이 써서 복고주의를 고취하는것으로 하여 상전의 총애를 받았다. 《무녀도》, 《황토기》, 《바위》, 《달이야기》, 《당고개무당》, 《늪》, 《역

마》, 《을화》 등이 모두 그러한 류형의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은 많은 경우 봉건사회의 미신과 결합된,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정황에서 벌어지는 귀신들린 인간들의 비극적인 운명이나 령기적인 이야기들을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반동작가 김동리가 특히 즐겨 취한 소재는 미신적인 무당의 이야기이다. 그의 초기작품 《무녀도》가 귀신에 들린 무당 모화의 이야기라면 《달이야기》는 무당 모랑이의 아들 《달이》가 불우한 출신으로 하여 겪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취급하고있으며 《당고개무당》은 기생이 된 딸들의 간청으로 굶을 할수 없게 된 무당이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해괴한 내용을 담고있다. 역시 무당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샤머니즘의 미신적인 세계를 미화분식하고 있는 장편소설 《을화》를 내면서 이 반동작가가 샤머니즘에 손을 댈것을 변명하여 《신과 인간의 관계에다 민속 내지 토속을 결부시킴으로써 유린되고 허물어져가는 민족의 고유한 일을 함께 찾고 지키자》고 한것이며 《샤머니즘은 우리가 좀더 문학적으로 밀착하여 승화시켜볼만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유산》이라고 뻔뻔스럽게 떠벌인데 대해서는 이미 사회계의 엄격한 비판이 있었다.

무당의 미신적행사를 《민족의 고유한 얼》이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유산》이요 하고 그것을 민족적인것과 결부시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려고 한데서 명백한바와 같이 이 반동소설들의 창작의 도는 복고주의사상의 고취에 있었다.

그런데 김동리는 최근년간 좌담회나 강연, 토막글들을 통해서 근대소설이라는 문학형식이 유럽사회에서 유럽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생활양식에 맞게 형성발전된것이기때문에 그들과 판이한 생활을 하고있는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소설양식을 충분히 자유자재하게 구사할수 있게 되어있는것 같지 않》다는 민족허무주의적인 견해를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반동적인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련애와 종교의 경우를 그의 구체적인 실례로 들고있다.

소설에는 흔히 남녀관계가 다루어지는데 유럽사람들이 자기 애인을 《내 생명이다》라고 말할때 그것은 《개인성》 혹은 《자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것이 분명하지만 조선사람의 경우에는 남편이 죽어 수절한다고 할때 이것은 자기의 《주체적인 애정관념》이 바탕이 되어있다고보다는 《일부종사》라는 (한 남편만을 섬긴다는) 전통적론리의식이 바탕이 되어있는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남녀관계의 양식은 서양사람들의 련애양식에 비하여 《소설적》으로 되기가 힘들다는것, 이것이 그 하나의 근거이다.

순간의 향락을 위하여 서로 다진 맹세와 신의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미국식자유련애에는 어떤 《개인성》이 있어서 소설감으로 될수 있지만 자기의 신념을 지켜 첫사랑을 고이 간직하려는 참으로 인간적인 높은 정신세계에서는 《개인성》을 찾을수 없다고 쓰는것은 오직 숭미사대주의사상에 중독된 허수아비들만이 가질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원로작가》로 자처하는 김동리는 그리스도교와 근대소설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기 무식을 여지없이 드러내놓고 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2천년 가까운 기간을 그리스도교의 전통속에서 살아온 유럽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의식의 밑바닥에 《구원의식》을 간직하고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자연주의적인 삶》과는 다른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있는것이며 따라서 그 《구원의식》은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의식까지를 좌우하고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의식상태를 립체적으로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나아가서 소설 그자체를 보다 극적으로 엮어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우리 생활속에는 그 그리스도교가 그다지 깊이 뿌리를 박지못하고있어서 그 《의식상태를 여실하게 그린다고 할때 그것은 근대소설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히 평면적으로 되어버리기 쉽다》고 그는 《개란》하였다. 이것이 50년 가까이 창작생활을 하였노라고 뽐내는 《원로작가》김동리의 《창견》이다.

이야말로 포복절도할 백치의 잠꼬대같은 소리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유럽문학사에서 17~18세기 계몽주의 소설문학은 중세기적 그리스도교의 전제주의를 반대하고 인간을 되찾기 위한 투쟁속에서 형성발전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소설을 보다 극적으로 엮어내는데 작용을 하기는커녕 인간적이며 현실적이며 따라서 문학적인 모든것을 말살함으로써 유럽의 중세기문학사를 암흑시기로 전변시켰던것이다. 이것은 문화인들에게 있어서는 초보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작가 김동리가 한편으로는 무당놀이-사마니즘을 《민족의 중요한 유산》이라고 내세워 《애국자》 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깊이 뿌리박지 못한 까닭으로 소설이 발전할수 없다고 자기 민족을 모독하는 까닭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김동리가 철두철미 상전의 장단에 춤추는 미제와 그 피퇴들의 어용작가이기때문이다. 그의 위선적인 이중성은 이에 의해서만 설명될수 있다. 그리고 김동리따위의 이러한 황당무계한 꾀변은 미제의 수급주구인 전두환반역도당의 《전통문화개발계승》책동의 허위성과 반동적본질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전통문화의 개발계승》의 반동적본질은 또한 민족문화유산을 연구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 고전문학작품들을 부패타락한 미국시생활양식의 전파에 악용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오늘 남조선의 반동적인 어용학자들은 고전문학을 이른바 《현대적방법론》으로 연구한다고 하면서 악명높은 프로이드주의를 끌어들여 우리 인민의 민족생활을 반영한 고전문학작품들을 《성격본능의 발현》이라고 모독하고있다.

우리 나라 원시가요의 하나인 《구지가》(《거북의 노래》)를 그 무슨 《성격본능의발현》이라고 떠벌이고있는것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이들 어용학자들의 고전문학해석은 그 어떤 현실적기초나 과학적타당성이 전혀 없는 황당무계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자들의 진실에 대한 란쪽한 외곡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구지가》로 말하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가야국의 건국설화와의 관계속에서 전해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구지가》는 우리 나라에서 현재까지 남아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볼수 있다.

가야국의 건국설화는 가락지방 9개촌의 간(우두머리의 뜻)들이 이삼백명의 무리를 데리고 구지봉에 올라가서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가야국의 시조로 된 수로왕을 맞이하였다고 전하고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들어라
들지를 앉으면
구워서 먹겠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와 이 노래의 내용으로 볼때 그것을 《성격본능의 발현》으로 해석할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

우리의 력사과학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9명의 씨족우두머리들이 각기 자기 무리를 이끌고 구지봉에 모인것은 종족장을 선거하기 위한것이며 《구지가》는 종족모임을 한 다음 춤추며 즐길 때에 부른 노래들중의 하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여기서 가야종족들이 모인 산이름을 《구지봉》이라고 하고 그들이 춤추면서 부른 노래를 《구지가》라고 한 사실과 노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거북은 가야종족의 원시신앙과 관련되어있다는것을 쉽게 리해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지가》에는 거북과 같은 자연동물을 종족신으로 숭배하면 원시토템사상이 반영되어있고 사냥과 목축을 위주로 하던 가야종족의 자연정복에 대한 지향이 반영되어있다고 보는것이 옳다. 숭미사대주의에 중독되어 프로이드주의와 같은 극단한

반동부르조아사상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어용학자들의 고전문학에 대한 외곡과 비방중상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반동문학잡지 《현대문학》(1978년 10호)에 실린 평론 《어둠에 대한 문학의 감응》-려요를 통해서 본-에서 그 뚜렷한 실례를 찾아볼수 있다.

프로이드주의의 광신자인 이 글의 필자는 서두에서 봉건통치배들과 몽골침략자들의 가혹한 략탈에 의하여 《서민들은 로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며 《그들의 눈에는 피눈물ियो 입으로는 울음소리와 탄식이 터진》고려의 사회상을 설명하면서 마치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시늉을 하였지만 영똥하게도 《돌과구를 찾아 그들은 본능에 결부되어 리비도의 애너지를 직접 발산, 그 향락을 추구하게 된다》고 황당한 《결론》을 끌어내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리비도》란 프로이드주의자들이 《성적욕망》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프로이드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행동의 원동력은 《잠재의식》에 있고 《잠재의식》의 주요내용을 이루는것은 《리비도》이며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불행은 이러한 《성적욕망》이 억제되는데로부터 빚어지게 되는것이다.

반동평론 《어둠에 대한 문학의 감응》은 바로 이 프로이드주의를 《방법론》으로 하여 당시 고려사회의 어두운 현실에서 《서민들은 그 막힌 숨통을 열기위해 욕구불만을 상태에서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려국어가요를 말함-인용자)를 지어 부르고 춤을 추었던것이다.》이라고 하면서 고려가요의 대표적작품의 하나인 《청산별곡》도 또한 《충족되지못한 성욕의 욕구불만》을 표현한것이라고 해피한 해석을 붙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청산별곡》은 주제사상적내용 남녀간의 사랑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작품이다. 한때 《청산별곡》에 대한 해석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성격분석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었으나 시적형상과 정서의 특성으로 보아 무인통치밑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된 사회현실을 피하여 류랑생활에 나선 봉건선비들의 불만과 울분을 토로한 작품이라는데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살어리 살어리 랫다
청산에 살어리 랫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 랫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니려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니려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노래는 이렇게 청산속에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것을 보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살겠다는 결의의 표시로 시작되며 2련에서 가실수 없는 짙은 시름을 자고일어나 울고있는 새의 울음에 비유하고 있다.

가요의 서정과 시격구조는 인간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철저히 기초하고있다.

3련~5련에서는 산중생활에서도 도저히 달랠길 없는 서정적주인공의 시적체험을 더욱 전개시키고 심화하고있다. 그는 늦은 장기를 들고나서 낮은 이력저력 지내와서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떻게 할것인가 근심이 앞서며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난데없는 돌에 맞아-(애매한 루명을 쓰고)이렇게 산중생활을 하게된것을 개탄한다.

그는 드디어 이 산속을 떠나 바다가에 가서 살아보려고 한다.

살어리 살어리 랫다
바라레 살어리 랫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라레 살어리 랫다.
.....

이처럼 가요는 어지러운 현실을 떠난 서정적주인공이 머루 다래 주렁지고 못새들이 우짖는 한적한 산속에서도 해초와 조개가 나는 바다가에서도 울분을 달랠길 없어 모대기는 정신세계를 짙은 정서로 잘 드러내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프로이드광신자의 이 반동평론에서는 보통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평범한 모든 생활현상들을 다 《리비드의 발산》으로 외곡중상하고있다.

이자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기도피기제》요 《자기방위기제》요 《공격기제》요 하는 정신병리학의 《심리기제》라는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인류학》, 《민족학》까지 끌어대면서 《청산별곡》의 《울음은 슬픔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의 즐기는 행위》이며 《새는 녀성<애인>을 표상한》것이며 《자고니려 우니노라》는 애욕충족을 위한 바램이 실현되지 못한 애절함을 억압된 상태에서 우회적으로 나타낸것》이라고 떠벌렸다. 이자가 얼마나 환장했는가 하는것은 《<물아래 가던 새>는 생기찬 녀성의 품만함을 상징》하는것이라고 하고 《잉무든 장글-(녹슨 쟁기라는 뜻)》을 남자의 그무엇에다 비기는것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에서 볼수 있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적창조물인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이보다 더 흑심한 모독이 또 어데 있겠는가. 선조들이 남긴 민족문화유산마저 퇴폐타락한 미국식생활양식의 전파에 악용하는것을 서슴지 않는 바로 여기에 미제의 철저한 주구로

서의 남조선괴뢰도당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놈들은 이렇게 우리 인민의 고귀한 민족문화유산을 헐뜯고 외국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극도로 부패타락한 퇴폐적인 반동부르조아문학작품들에 대해서 그 무슨 큰 《문학사적의의》라도 있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20세기 10년대말엽부터 일제침략자들의 비호밑에 퇴폐적인 자연주의소설들을 써내어 청년들을 타락시키는데 앞장섰던 림상섭, 김동인 등을 《식민지 조선에 도전》

한 애국자로 묘사하면서 이들의 작품에다 그 무슨 사회적의의를 부여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은 그러한 실례로 된다.

지금 남조선의 반동평론가들은 림상섭의 《암야》나 《표본실의 청개구리》같은 반인민적인 반박이자연주의작품들을 《나라 잃은 겨레의 강한 의대의식을 통하여 드러난 레》로 된다고 미화분식하고있는가 하면 김동인의 단편소설 《발가락이 닳았다》 《붉은산》과 같은 자연주의작품들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민》 소설 《모범》으로 내세우고있다.

이 작품들의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한갓 동물과 같은 생물유기체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보며 또 추잡한 남녀관계나 치정싸움 같은것을 그 어떤 사회적의의라도 있는것처럼 그림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인간중요사상을 합리화하고 착취자들의 패륜패덕을 미화분식하고있다는데 대하여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남조선괴뢰도당이 《민족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무시하고 반동적이며 락후한것을 그 어떤 《민족적전통》으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민족자주의식을 흐리게 하고 매국배족적인 정치적 야욕을 실현해보려고 하는데 있다.

이자들은 1920년대에 활동한 시인 이상화의 창작에 대해서도 사실과 정반대되는 평가를 주고있다. 즉 시인이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사회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체험에 기초하여 압제자들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체험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항거, 빼앗긴 조국과 불쌍한 조선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격조높이 노래한 《선구자의 노래》,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통곡》,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같은 작품은 완전히 묵살하고 그가 창작생활의 초기에 《백조》파의 동인으로서 퇴폐주의의 수령에 빠져 모대기면서 쓴 시 《나의 침실로》 같은것을 두고 《당대문예사조와 시대적분위기를 민감하게 대변한 작품》이라느니 《...데카당스의 본질을 전형적으로 표상한 성공작》이라느니 하면서 《20년대문학사의 중요한 위치에 놓여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최근년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어용평론가들에 의하여 하잘것없는 반동작가 리상이 조선문학사에서 《현대문학》의 시원을 열어놓은 《개척자》로 떠받들려우고있는것도 결국은 《전통문화개발계승》의 미명하에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은 외국말살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 부패타락한 양키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을 널리 퍼뜨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를 영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제의 충실한 주구이며 력사에 류례없는 인간백정인 전두환군사광패가 갑자기 《민족문화의 수호자》로 둔갑하여 들고나온 《전통문화개발계승》책동은 철두철미 반민족적인 것이며 문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판독한 외곡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속에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부식시키며 퇴폐타락한 미국식생활양식과 양키문화를 합리화하고 찬미하여 인민들의 자주주의와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리론일군들은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적대적사상들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예리하게 폭로하며 자그마한 비계급적, 비혁명적 사상요소도 우리 내부에 침투해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우리 문예리론분야에서는 문학예술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자연주의, 형식주의, 복고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철저히 당과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적인 혁명적예술, 참다운 공산주의문학예술로 개화발전시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이 날로 더욱 강화될수록 미제는 식민지적지배를 부지하기 위하여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에 매여달리고있으며 사상문화적침략에 광분하고있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이 들고나온 《전통문화개발계승》책동도 또한 상전인 미제의 사촉에 의하여 동족학살의 하수인 철저한 괴뢰로서의 피눈은 낮잡아 《민족문화》의 탈을 쓰고 인민들속에 봉건유교사상과 부르조아사상, 퇴폐타락한 미국식생활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한 미제의 교활한 사상문화적침략의 일환이다.

우리는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적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을 제때에 예리하게 폭로단죄함으로써 우리 주체적문학예술의 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를 건전한 토대우에서 급속히 개화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창조의 저 불빛속에

럼우봉

남대천 강바람에
단가슴 식히며
돌아보니
불빛 총총한 제련소건설장
내 금시 서있던곳은 그 어데인가

지원의 밤
남모르는 땀 흠뻑 흘리고
돌아가는 이 길,
풀어헤친 가슴 흐뭇이
뜨거운 저 숨길 다시금 안아보면

수고 많았다고
광차바퀴를 깎아 금꼴에 보낸
한낮의 그 교대를 이어
바쳐온 이 밤에 수고 많았다고
불빛 흔들어 인사를 보내느나

활활 타오르는 저 우등불
가로세로 엇갈리는 전조등 불빛속에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타나
한걸음 내앞으로 불쑥 다가서는
우중충한 벽체며 강철트라스들
뜨거운 이 가슴

또하나 안아세운 두리기등도
저 어느 쇠지붕 한끝을 고이고
두고온 내 마음처럼 서있으리니

무심히 바라볼수 없구나
이 밤을 타는 저 불빛 불빛
그대로 내 가슴의 불길도 합쳐
첫 제련의 황백색 쇠물로 끓는것 같아...
아, 어버이수령님 부름심 받들어
창조의 삶이 불타오르는곳에
지원의 발걸음 다그쳐
밤마다 귀한 땀 뿌리지 않고서야
내 저속에 그 무엇을 읽어보라

조국의 찬란한 미래도 꽃으로 피여와서
온통 불꽃, 불꽃의 저 바다속에
건설장의 성실한 벗들과 우정을 맺은
정녕 이런 밤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이렇듯 미래를 보는 웃음 줄수 있으랴,

가슴에 끓는 못건달 이 열정
고스란히 조국에 바치고 바쳐
《80년대속도》 창조의 저 불빛속에
나만이 아는 총총한 발자욱도 바라보는
아, 이 밤의 내 기쁨이여!